

일어나 교회를 재건하라!

[느헤미야 묵상]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4
기도의 사람 (1) (1:1-4)	6
기도의 사람 (2) (1:4-11)	9
“흥왕케 하려는 사람”(1) (2:1-5)	13
“흥왕케 하려는 사람”(2) (2:6-10)	17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2:8)	22
“일어나 건축하자!” (1) (2:11-16)	24
“일어나 건축하자!” (2) (2:17-18)	28
“일어나 건축하자!” (3) (2:19-20)	31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3:1-3)	35
마음 들어 일하라! (4:1-6)	40
사탄의 전략 (4:1-3)	45
재건되어 갈 때에 (4:7-14)	50
오는 위기 (4:7-14)	55
위기관리 (4:7-14)	59
건축하는 자의 자세 (4:15-23)	63
말한 대로 행하라! (5:1-13)	68
모범된 지도자 (5:14-19)	74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6:1-9)	78
파워 리더십 (6:10-14)	84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6:15-19)	90
일군을 세워라! (7:1-3)	96
말씀의 부흥 (I) (8:1-5)	99
말씀의 부흥 (II) (8:6-9a)	103
우리의 힘 (8:9-12)	107

말씀 적용 성경공부 (8:13:18)	111
죄의 문제 (9:1-5)	115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9:6-8)	120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9:9-12)	125
하늘의 하나님 (9:13-15a)	132
용서하시는 하나님 (9:15b-17)	137
인도하시는 하나님 (9:8-21)	144
하나님의 자궁 (9:19a)	151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9:19-21)	153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9:22-26)	157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야 합니까? (9:25-26)	163
금흠이 크신 하나님 (9:27-31)	166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9:32-38)	171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10:28-31)	176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0:32-39)	183
“자원하는 자들” (11:1-2)	188
헌당식의 예배자들 (12:27-30, 43)	195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12:44-47)	203
결론	208

서론

지금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성경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사45:4, 5).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호4:1).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6절).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이(6절)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고 있습니다(7절). 또한 지금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갈 1:6-9). 그리고 지금 교회는 그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고 있습니다(고후11:4). 또한 지금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빌1:27). 즉, 지금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27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 하는데 지금 교회는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습니다(신12:8, 사 17:6, 21:25). 이것이 콩가루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않는 교회는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우리의 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사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재건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모범된 지도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사 다가오는 어떠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마16:18). 동참하되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성경 66권 중 느헤미야 책을 선택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약속 말씀인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 때문입니다(마16:18).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금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사 목회를 시작케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매 주일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저를 무너트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 마음과 삶에 “틈”

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느4:3).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5:19)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6:16).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마16:18)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8월, 승리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사람 (1)

[느헤미야 1장1-4절 말씀 묵상]

2003년 12월 21일 주일 오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04년 1월, 저는 성경 66권 중 느헤미야서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택한 이유는 “다시 세우다” 또는 “재건”(Rebuilding)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기초는 있지만 무너진 성벽들, 혹은 무너져야 할 우리의 “벽”들을 주님께서 무너트려 주시는 가운데 다시금 “벽”을 세우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혹은 무너져야 할 “벽”들을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 것일까?

제임스 패커(J. I. Packer) 목사님은 그의 책 “신앙의 열정: 느헤미야의 지혜”(A Passion for Faithfulness)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벽을 세웠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도들을 세웠습니다’(패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장로교회의 “벽”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 즉 사람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program)보다 한 사람, 한 사람(people)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1-4절을 보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1)”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이 엠 바운즈(E. M. Bounds)의 “기도의 필요성 (Necessity of Prayer)”이란 책을 보면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믿음의 청원과 (2) 순종의 기도. 믿음의 청원(the petition of faith)은 말씀 중심의 기도를 말합니다(롬10:17).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순종의 기도(the prayer of submission)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분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바운즈). 이 복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느1:1, 7)를 생각해 보면 이 엠 바운즈가 말한 두 종류의 기도 중 두 번째인 복종(부탁/의뢰)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조상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대 바사 왕궁 중 수산 궁에서(1절) “왕의 술 관원”(11절)으로서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술 관원이라 함은 지금 말로 하면 국무총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왕에게 드러지는 술에 독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술을 미리 맛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술 관원이라 함은 왕과 같이 앉아서 왕과 국

정을 논할 수도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면 자기의 형제인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두어 사람”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 때 그가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과 남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소식에 대하여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3절). 흥미로운 점은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니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 목사님의 느헤미야 강해(Be Determined) 책을 보면 한 3가지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 Remnant(남은 자): 출애굽의 사건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 밖에 없다는 소식, (2) Ruin(황폐):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 (3) Reproach(치욕): 그 남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여 능욕을 당하였다는 소식(위어스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4절). 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2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얻는 교훈은 고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인 유대 백성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유다에서 메대 바사로 온 하나니와 두어 사람에게 형편을 물었던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진실 되게 하나님께 드러지기보다 습관적으로 드리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등등을 알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마음을 실어 중보기도하게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모든 형편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자기만 잘 살고 잘 먹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이동원). 이 말은 느헤미야는 그 당시 강대국 이었던 메대 바사의 왕의 술 관원으로서 왕이 거하고 있는 수산궁(그 나라의 수도였던 수산에 있었던 여러 궁중에 제일 좋은 궁)에서 왕의 곁에서 아무 부러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계속 그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합리화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조국의 현실을 걱정해 보았자 뭐가 달라지겠는가? 나는 여기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등등.’ 그러므로 느헤미야에게는 약 800마일이나 떨어진 고국의 소식을 무시 할 수도 있었습니다(이동원). 그는 충분히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면서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고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고국을 사랑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조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실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국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아파하면서까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이동원).

느헤미야는 고국인 유대 백성들의 상처를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4절) “아닥사스다 왕”(1절)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4절)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힘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메대 바사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보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보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보이는 그 당시 최고의 힘과 세력을 자랑하는 메대 바사의 왕을 바라보기 보다는 그에게 그 힘과 세력을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들은 자가 자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패커).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에 먼저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이동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국을 사랑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국 예루살렘 성의 황폐 소식과 남은 동족 유대인들의 능욕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의 상처를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합시다.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아픈 소식을 듣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요나처럼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 다시금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강해설교 묵상하고 설교하기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사람 (2)

[느헤미야 1장4-11절 말씀 묵상]

한 농부가 산 속에서 거대한 곰을 만났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순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농부가 한참 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줄 알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다니... 내 기도가 곰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그때 곰이 기도를 마치고 농부를 그윽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다만 음식을 앞에 놓고 식사기도를 했을 뿐이다" (인터넷).

이 재미있는 기도의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농부처럼 기도 응답을 받은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5-11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2)”란 제목 아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 6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이동원).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 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1년에 한번, 속죄날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레16:29).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기도 하였습니다(느1:4). 여러분, 금식기도란 무엇입니까? “금식기도”하면 우리는 밥을 굶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연상합니다. 그러나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금식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형태입니다(이동원). 중보 기도함에 있어서 금식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적으로 기도했으며 장식적인 기도나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심장을 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이동원).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십시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의 좁은 마음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였기에 믿음의 삶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상상력 안에 넣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의심이 섞인 기도를 드렸기에 기도 후에 의심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메데 바사라는 이방인 나라에서 유대인으로서 느헤미야는 ‘땅의 하나님’, 즉 이방인 나라에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2)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던 느헤미야,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고국의 백성들과 훼파된 예루살렘 성과 소화된 성문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왜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유다의 소식이 자기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결과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을 확인하는 소식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우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범죄의 큼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큰 고난(3절)을 겪고 있으며 또한 큰일을 행해야 한다면(4:19; 6:3) 우리는 큰 권능(10절)과 큰 복(9:25, 25)과 하나님의 큰 긍휼(9:31)이 필요합니다(위어스비).

(3)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박윤선).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라”(이동원).

셋째로, 느헤미야는 범죄함을 자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6-7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

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만 자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민족의 범죄함에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도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연대 책임지고 친히 자기의 죄처럼 여겨 회개한 것입니다(박윤선).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성경 에스라 9장 6절을 보십시오: “...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러워 낮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성경 다니엘 9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왜 느헤미야는 민족의 범죄함에 자기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에게는 공동체적인 범죄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수산 궁에 있다고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 에스더(에 4:13-14)와 아간(수 7:1, 11)].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국을 사랑하는 중보기도자는 고국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알고 슬피 울며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대상자들과 영으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8-10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것은 이 엠 바운즈(E. M. Bounds)가 말한 두 종류의 기도 중 첫째 종류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신명기 28장63-67절과 30장1-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prayer in faith)으로 기도하였던 것만 아니라 믿음의 삶(faithful life)인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 1장 2절과 2장1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슬르월”(1:1)은 출애굽 후의 히브리 달력의 달로써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니산”(2:1)은 히브리 달로써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느헤미야는 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린다”입니다

(박윤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가르쳐 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고국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되 기도한 후 기대하면서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란 “아닥사스다 왕”(2:1)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돕도록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 왕께 나아가 왕에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도와 달라고 청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작정이었습니다”(이동원).

우리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하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먼저 기도자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금식 기도로도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기도의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토요 새벽기도회 후)

“흥왕케 하려는 사람”(1)

[느헤미야 2장 1-5절 말씀 묵상]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란 책에서 “‘정지 버튼’ 만들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응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보다 ‘정지 버튼’을 눌러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과연 나는 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의 자유’ 시간에 생각하는 가운데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기보다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중 첫 번째 습관인 “주도적이 되라”(Be Proactive)는 말입니다[정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코비). 그러나 우리는 주도적이 되기보다 ‘반응적’(reactive)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자극을 받았을 때 상황과 감정에 치우쳐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도적인 사람들도 외부적 자극에 영향(그것이 육체적이든, 사회적이든 혹은 심리적이든)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칙과 가치 근거의 선택 혹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유다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자극을 받은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그는 이제 자기 기도의 책임을 지고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과 부귀, 영화보다 더 가치 있음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5절 중심으로 “흥왕케 하려는 사람 (1)”이란 제목 아래 느헤미야의 선택의 원인인 그의 내면세계, 즉 그의 마음을 한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1-3절).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이 있기로 그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그의 얼굴에 수색이 있음을 왕이 보았습니다(1-2절).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색이 육신의 병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때에 두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얼굴의 수색이 왜 있는지 이유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땅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1:3). 그 때부터 4개월이 되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 문제 때문이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참해 진 사실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있었기에 얼굴에 수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두 종류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끝없는 근심으로 그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러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 근심은 회개(“마음을 고침”)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듣고 영적 근심을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영적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한 3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연약함을 교훈해 줍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했습니다. 만일 성경이 기록하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를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물로 혹은 비인간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이동원).

(2) 지혜자의 교훈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 전도서 7장3절을 보십시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이야 말로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4개월이란 기간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비전에 더욱더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3)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은 그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기회입니다(1:11). 얼굴의 수색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젠 느헤미야는 왜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자신의 마음의 원함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2절). 그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왕 앞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나 왕과 대작을 하는 모든 신하들이 만일 얼굴에 근심 빛을 띄우면 그 순간부터 직위를 박탈당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동원).

그는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왕이 분노했다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마음의 근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었습니다(4-5절).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4-5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을 보고 마음의 근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는 얼굴에 수색이 있는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2, 4절). 참 흥미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근심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관심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4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2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어 남의 말을 좀체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느헤미야가 가서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잘못하면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함은 물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이동원).

(2) 둘째로,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이동원). 그에게 전해진 고발장인 에스라 4장11-13절 말씀과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인 에스라 4장18-21절을 보십시오:

(고발장)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스 4:11-13).

(답변)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매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스 4:18-21).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운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무력으로 막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혹 그 성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메대 바사를 그들이 거역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4절). 그는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 ‘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뜨고 그들과 대화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미 느헤미야 1장 11절 후반 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연관성이란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왕의 질문인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마음의 소원을 왕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인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보십시오: “...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잠10:24);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11:23);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145:19).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근심과 소원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마음의 근심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흥왕케 하려는 사람”(2)

[느헤미야 2장6-10절 말씀 묵상]

에이든 토저(A. W. Tozer) 목사님이 쓰신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Rut, Rot, or Revival)란 책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원수”(1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종교가 부패해 가는 점진적 삼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감탄도 없이, 어떠한 행복한 놀라움이나 기대감도 전혀 없이 그저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기만 합니다.

(2) 두 번째 단계는, 습관적 상태입니다. 기계적 상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습관적 상태라고 일컬을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계적 상태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습관적 상태는 기계적 상태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적 상태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이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감지하거나 느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단계는, 부패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내면적 부패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패한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자면, 더 좋은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성장을 향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영적 엄격함이 시작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발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 이것은 그 교회가 내면적 부패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죄의 증거가 됩니다: 자기 의, 비판, 자기만족의 죄입니다(토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마치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온 교회가 습관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에 박힌 일이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한 예측 불가능이란 분위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감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음 달에 일어날 일도 미리 예언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결정지어 버리는 주인이 되었고,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리는 통치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온 교회가 습관적 상태에 빠져 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까? 모든 것을 뻔히 예측할 수 있기에 아무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주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예측 불가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심에 대한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여 흥분상태(excitement)를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예측 불가능한 일을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흥왕케 하는 사람인 느헤미야가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착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흥왕케 하려는 사람 (2)**” 제목 아래 느헤미야의 마음의 계획과 행동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존 화이트 목사님은 그의 책 “탁월한 지도력”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계획이 시작되는 곳이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제일가는 목표는 큰 능력을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는 일이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만든 계획은 단순히 기도에 의해 차후 ‘뒷받침을 받는’ 계획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을 수 없다” (화이트).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양극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극단은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이동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2)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계획이 세운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렸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책임을 지고자하는 헌신과 결심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책임을 지길 원했던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진리는 고린도전서 14장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표 속에서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 나아갈지 기도 중에 미리 계획해 둔 것은 그의 질서 정연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한 다음 명한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마음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4가지였습니다:

(1)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가가기 가장 좋은 때 접근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면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왕비가 공식 석상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화이트).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가 갔을 때에는 왕비가 왕하고 같이 있었던 때인 것으로 보아 공식 석상이 아닌 비공식 상황, 즉 친근하고도 사적인 상황을 틈타 왕에게 느헤미야는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느헤미야는 가장 좋은 때에 의도적으로 슬픈 안색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2-4절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고국을 형편을 듣고 슬퍼했을 텐데 왜 그 때가 아니라 2장 1 절에 와서 4개월 후에 슬픈 기색을 왕에게 보였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갑자기 4개월 후에 슬픈 기색을 왕에게 하였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엿보다가 왕비가 왕하고 같이 있는 친근한 분위기에 느헤미야는 자기 소원을 왕에게 아뢰고자 슬픈 안색을 의도적으로 보인 것이 분명합니다(2:2).

(3) 느헤미야는 마음에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에 돌아오겠느냐”하고 물었을 때(2:6) 느헤미야의 대답은 “내가 기한을 정”했다고 왕에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대충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 봐야 알지요. 주께서 원하는 대로 머물다가 오겠습니다.” 이 말이 왕에게 통했겠습니까?

(4) 느헤미야는 왕에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서”(letters)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떠한 조서를 부탁했습니까? 2 가지입니다.

(a) **유다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7 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는 메데 바사에서 유다까지 800마일 정도 가는 여정에 대적들(에스라 4:9-10; 5:3)을 예상하고 왕에게 유브라데 강 서편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가도록 허락하는 왕의 편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b) **들보 재목을 느헤미야에게 주게 하는 조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8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느헤미야가 요구한 두 번째 조서는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목들과 자기의 거할 집을 위한 재목을 아삽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도록 허락하는 편지입니다.

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입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마음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때, 혹은 그에게 주시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담대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관리들의 도움과 물질적인 원조까지 받는 것에 관한 조서를 청원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소”(들)을 청한 결과 느헤미야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8절). 주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느헤미야는(1:10)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한 것입니다(2:8).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로마서 8장2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시편34편8절 상반 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 잠언16장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계획을 세운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계획조차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경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잠언 19장21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둘째로, 마음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단 왕으로부터 자신의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자마자 필요한 물자를 얻어 내고 안전한 여정을 마련해 놓을 뿐만 아니라,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인력을 가동시키며, 하나의 방대한 공공사업 계획을 앞에 놓고 운영하기 좋도록 작은 단위로 쪼개 놓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만났던 경건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한 유능한 감독자가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화이트).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이제는 행동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느헤미야가 기회가 주어지자 마음의 계획을 펼치고자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로 향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드디어 유브라데 강 동편에 있는 수산 궁을 떠나 유브라데 강 서편에 있는 유다를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렀습니다(9절). 그 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해서 얻는 조소[“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하는 조서(7절)]를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가 요구한 조소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도 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를 보호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경의하기를 기뻐하는 자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모든 종들 중 강 서편 총독들까지도 느헤미야를 존경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대적하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두 대적들이 나옵니다. 19절에

가서는 또 한 사람의 대적이 나옵니다. 이 셋 중에 주동인물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벨론 이름인데 그 뜻은 ‘신(달 신)은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 자들은 느헤미야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느헤미야를 목표를 삼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자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그 때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를 지속적으로 컨트롤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37년 후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어느 고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 자들, 특히 주동적인 인물 이었던 산발랏은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유다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 등을 재건하므로 주도권을 빼앗길까바 질투하여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는 흥왕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Opposition(대적)은 Opportunity(기회)입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바로 기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목표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인내 혹은 견뎌를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일이 우리 기도의 질을 반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일의 질을 결정합니다’(패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도 집회가 있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에게 다가가 교회 전도 집회로 인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전도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천국잔치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태신자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며 교회적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말기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위기는 기회인 줄을 믿으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느헤미야 2장 8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롬 8:28)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시34:8)

지난 주말 저의 장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는 상황인 지라 뭐라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저는 아내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깐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아내에게 당장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줄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이 제 아내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만일 제 아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분명히 그녀는 지금 자기 아버님이 병중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자기 어머님도 이모저모 힘든 가운데 계시고 등등 이런 저런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 아내가 견고한 믿음에서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하면서 제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1:11)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즐겨하였습니다(2:6). 더 나아가서, 그는 느헤미야에게 두 개의 조서를 주어 느헤미야로 하여금 강서편 총독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7절) 왕의 삼림 감독 아삽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느헤미야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였습니다(8절).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유다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11절).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한 지 삼일에(11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하시므로 말미암아(12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몰래 성벽을 자세히 둘러본 후(12-16절) 나중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과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이른 말을 고하였습니다(18절). 그리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습니다(18절).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는 유다 사람들에게

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0, 19절).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한 비웃었습니다(19절).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 줄 확신했습니다(20절). 그리고 그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6:16).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적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핍박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그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므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마음의 정결한 자”란 책을 내게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1)

[느헤미야 2장 11-16절 말씀 묵상]

고든 맥도날드의 책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Rebuilding Your Broken World)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확장 사역에 어떠한 자를 쓰시는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와 같은 실패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확장 사역에 요원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심으로 “디베라 바다”(1절)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 3가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재건자는 베드로가 너무 상처를 입어 스스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자기의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4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5절)고 말씀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혔을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7절)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을 향해 헤엄친 베드로, 그는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한 것일까요? “작별 인사하러 왔다” 혹은 “베드로야, 나는 널 유능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 정말로 힘써 왔지만, 넌 아쉽게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구나” 혹은 “어디, 앉아서 그날 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 조금 하자꾸나.”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숯불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실패자들의 무리를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 디베라 바다에 오신 것입니다.

(2) 둘째, 예수님은 제자가 내뱉었던 세 번의 부인을 대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솔직하게 다시 고백할 기회를 세 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그 대신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15-17절). 그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세 번 고백하였습니다(15-17절).

(3) 셋째, 예수님은 제자에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사랑 세 번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 받은 사명이 아직 유효했습니다. 베드로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무너졌던 세계가 재건된 것입니다(맥도날드).

아직 유효한 사명,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야 할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1-16절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 건축하자! (1)**”란 제목 아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요소 중 그 첫 번째인 “사명감”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다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요즘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을 보면 사명 진술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승리장로교회의 사명 진술은 그리스도 중심된 비전을 쫓는 일꾼들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목적 진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을 찾아 발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증인들로 양육하며, 그들을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켜, 성숙된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운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명의 '사(使)'자는 '심부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命)'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곧 사명이란 '심부름을 하는 목숨'으로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인터넷).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표어 또는 목적 진술에 목숨을 걸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을 받는 느헤미야(2:8)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들)를 가지고 메데 바사 수산 궁을 떠나 이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11절). 도착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고요히 지냈습니다(12절). 성경은 특별히 그가 3일 동안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요히 지냈는지 우리는 10절에 비추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설불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대적들이 뺨히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거하겠다고 분주히 드러내고 움직였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서도 고요히 지내는 동안 무엇을 했겠는지 우리는 그의 과거의 삶을 비추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 외에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며 고요히 지냈겠습니까? 헨리 나우웬(Henry Nowen)의 “기도의 삶”을 보면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이란 심신의 심을 뜻한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침이다.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다.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통제력을 내 놓는 것과 같고,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창의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잠잠히 있는 것이다. ... 침묵이 없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며, 우리는 삶의 창의적 에너지를 다 잃은 채 차갑고 지친 모습으로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침묵이 없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잃은 채 끊임없이 내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나우웬). 생각건대 기도의 사람 느

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의적인 일이 자기 자신 안에 먼저 일어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의 고요한 시간 보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느헤미야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3일 동안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느헤미야 마음에 창의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시간도 귀하지만 고요히 거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이렇게 신자가 고요히 지내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영감도 받게 된다. 우리가 일할 때에는 주로 인간을 상대하게 되고, 고요히 쉬는 때에는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다”(박윤선).

느헤미야는 3일(동안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밤에 ‘비밀리에 예루살렘 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전에 현장을 사전에 미리 둘러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울타리 시찰을 언제 했는지 시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집 앞 울타리를 다 없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저희 교회 한 형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때 그 형제가 와서 다 뜯어 냈는데 기동까지 없애라고 해서 틈을 가서 사서 다른 형제와 같이 잘라 냈습니다. 도시 환경 차원에서 아바 아름답게 도시를 꾸미고자 집 앞 울타리를 없애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3절을 보면 느헤미야도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시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 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느헤미야 1장2-3절에서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느헤미야에게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1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형제들의 말을 직접 자기가 시찰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그 형제들의 보고를 의심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최종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존 화이트(John White)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자세한 정보와 조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직접 알아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는 능률을 기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원리인 것이다. …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문제를 미리 내다보실 수 있고 또 종종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화이트).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화를 받고 시작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12절)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중독’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중독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의대 이홍식 교수(정신과)가 쓴 “‘일 중독증’ 자기 진단법 및 치료”라는 인터넷 글을 보면 일 중독증 자기 진단법을 보면 10개 리스트가 있는데 이중에 8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 중독증에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1)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2) 매일 할 일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다, (3) 쉬는 것이 견딜 수 없다, (4) 식사 때 옆에 서류뭉치를 펼쳐 놓는다, (5) 일에 정력적이고 경쟁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6)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한다, (7)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면 일할 자세가 돼있다, (8) 일이 많아 휴가 내기가 힘들다, (9) 퇴근 후에도 내일 일을 걱정한다, (10) 정말로 일을 즐긴다(인터넷). 과연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James Packer) 목사님은 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성경에서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는 소이 우리가 말하는 일이나 직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돈을 벌어 우리 자신을 유익케 하는 것을 가리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이란 항상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것은 끝을 관점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2) 둘째로, 성경은 삶을 일과 쉼의 리듬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또한 영적 일과 세상의 일을 마치 두 따로 구분된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단일성 있게 계획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3) 셋째로, 성경이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살전 4:11)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책임 있는 행동은 그의 사명감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지도자, 그는 결코 꿈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을 정직하게 부딪치며 또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받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거주자들이 낮에 본 것보다 그는 밤에 더 많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와 더불어 가능성을 밤에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면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존 존스톤(John Johnston) 목사님은 “골리앗 세상의 다윗”이란 제목 아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쉽사리 패배주의적이고 망상적인 전략을 개발해 낸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극대화시키는 방어적인 공격성과 비현실적인 죄의식을 낳는 심각한 예민함이 생겨난다. '큰 것이 좋다'는 주제를 메아리처럼 되풀이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절망에 대한 유혹은 새로워진 정신, 즉 다시 불타오르는 목적의식과 사명감에 굴복해야 한다”(존스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흥왕케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불타오르는 목적의식과 사명감에 굴복 하십시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이 목적의식과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일꾼을 세워 파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사명감을 불태웁시다!

다시금 사명감에 불타오르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길 기원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2)

[느헤미야 2장 17-18절 말씀 묵상]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3장 “삶의 원동력”에서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것 다섯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 다닌다, (2)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 (3)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4)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5)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워렌). 이 다섯 가지 잘못된 삶의 원동력 외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말한 ‘잘못된 습관에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위에 다섯 가지 잘못된 삶의 원동력도 습관화가 되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우리가 죄의식에 이끌려 생활하는지, 원한과 분노의 쓴 뿌리를 씹으며 생활하는지, 두려움에 이끌려 생활하는지, 물질에 이끌려 생활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교회 생활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이곳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까? 죄책감입니까? 원한과 분노의 쓴 뿌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면 괜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곳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7-18절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 건축하자! (2)”라는 제목 아래 “동기부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십시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하고.” 동기란 무엇입니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학교실 및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최 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란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는 그 무엇이다. 행동을 시작하고, 일단 시작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내적인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동기 때문에 시작되고 지속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고 싶다’라는 의욕의 불꽃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를 유발하는 원칙은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부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지시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라고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서 실천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독립심을 북돋아주면 동기가 생깁니다(인터넷). 어떻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동기부여 했습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화이트):

(1)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료 의식을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간결하고 직설적인 연설을 보면 예루살렘 거주민의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중보기도, 즉 자기를 동족들과 동일시하는 모습인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1:6)에서 보듯이 그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느헤미야는 수산 궁에서 파견되어 나온 관리 행세를 하면서 “당신들이 참 딱해 보이니 내가 도와주러 왔노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2)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곤경을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의 안 좋은 상황들을 목사인 제가 먼저 사전에 다 살펴본 후 여러분에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곤경”을 직시케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기계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안 좋은 상황들도 익숙해져서 그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존 화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어려움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들을 못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원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도자 그 자체이다.”

(3)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고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보십시오: “...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저의 개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할 것인가? 화이트 목사님의 말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들(사람들)은 어떤 비전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자기들보다도 위대한 어떤 것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소망, 혹은 이제껏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소망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칠 때에 비로소 행동한다.” 여러분의 억누를 수 없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4)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자기 개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예루살렘에 오기 전 아닥사스다 왕과의 있었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원치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한 조소들도 내리는 것을 즐거웠었기에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 거주민들 앞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부담,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마음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시기가 온 것임을 설득시켰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동기를 이렇게 부여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8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의 사명감 속에서 제시된 비전(예루살렘 성 재건)과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그 지도자를 좇는 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했을 때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주님께서 지도자에게 사명감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지도자를 좇는 자들에게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 분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저 같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하시고 선한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아내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강하지 않다. 상당히 연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모든 진정한 지도자들은 동기부여의 대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세계 2차전 전쟁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들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떨어지고 있었고 영국의 힘도 제일 낮아져 있었을 때 그가 한 국민 연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받칠게 없습니다. 오직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만을 받칩니다. ...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한 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승리 - 모든 희생을 다하여 승리,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승리,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침략이 거의 확정될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우리 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싸워야 하며 길가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패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동기부여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쫓는 자들에게 비전과 도전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움 받길 기원하면서)

“일어나 건축하자!”(3)

[느헤미야 2장 19-20절 말씀 묵상]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왕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 청년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단, 포도주를 엮지르면 네 목을 베리라.'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의 거지와 장사꾼들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새어 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 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일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많다.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인터넷).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운 확고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목표에 집중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때에 그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이루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동기부여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목상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일어나 건축하자! (3)”란 제목아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인 “성공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의 확신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영어로 “success”, 즉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형통,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원하는 대로 잘 풀고 물질적으로는 번영하고 풍성해 지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형통 혹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이루었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입은 은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한 것을 가리킵니다(2:8).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요구인 두 조소[하나는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조소(2:7)와 또 하나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내린 것으로 느헤미야에게 들보 재목을 주게 하는 조소였음(2:8)]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다 백성들 앞에서 개인 간증을 그의 짧은 연설에 나누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2:18). 그 때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공의 걸림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주위 이웃 지도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은 먼저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죄를 범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비웃었습니다: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대하여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와 유다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에스라 시대로 돌아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 못하게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질문입니다(스 4장).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을 대적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한 것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형통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잘 되어가다가 대적들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대적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적들과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39장2-3절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의 관점에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습니까? 과연 모든 게 잘 되었습니까? 만일 세상의 관점에서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자, 혹은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에는 핍박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형통에 대하여 의아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17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열심히 주일성수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십일조 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옆의 사람은 바르게 생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에 "내가 그 동안 잘못 살았나.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성공의 걸림돌이 다시 나타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 추진할 뜻을 느헤미야는 확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슬피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형통의 경험을 했습니다(1:4-5). 느헤미야 2장 4절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형통케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 하였기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줄 확신 하였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과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이라고 그의 대적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공의 확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물질이나 환경처럼 다른 것이라면 일어나 건축하려고 해도 대적이 오면 흔들리고 의심하며 두려움 속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학개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기초만 저놓고 대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성전은 황무한 채로 놓아두고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었습니다(학1:9).

(2)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첫째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유대 나라를 배역함에 있어서 아무 법정 나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b) 둘째로, 그들은 아무 법정 권리가 예루살렘에서 없다는 말씀입니다. (3) 셋째로,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예식 기념에 아무 권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훤삼).

미국 카네기 기술연구소 졸업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성공 비결을 조사한 보고가 있어 나눕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데 15퍼센트의 영향밖에 주지

않았다. 나머지 85퍼센트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 특히 그들은 인간관계를 위해 세 가지 방문을 잘했는데 그것은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은 칭찬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칭찬은 할수록 커지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어려운 이는 찾아갈수록 친근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챙겨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인터넛).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십시오: “...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시고(느 2:8, 18) 또한 그의 마음을 감화하사 역사하신 하나님(2:12), 그 “하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헤미야의 성공(형통)의 비결입니다.

(2)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7-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뜻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추구하였습니다.

(3) 셋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경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십시오: “...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형통의 비결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과 기도로 승리!)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느헤미야 3장 1-3절 말씀 묵상]

공화당 컨벤션에서 부시 대통령의 연설 중에 자주 사용되었던 문구는 ‘더 안전한 세상과 더 희망찬 미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설 중에 부시 대통령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 최고의 부대통령이 있어서 나는 운이 좋다 ... 나는 그가 내 옆에 있어서 영광이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로라 부시의 선함과 친절함과 장점들을 자기가 26년 전에 보았던 것을 미국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녀와 함께 삶을 걷는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두 딸과 가까운 친구들과 부모님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연설 중 특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말한 부분을 들으면서 마음이 몽클함과 동시에 TV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부시 대통령과 느헤미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너진 미국 뉴욕 쌍둥이 빌딩(Twin Towers) 후에 미국을 좀 더 안전하고 희망찬 미국으로 세우려는 부시 대통령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강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력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시와 뚜렷한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옮기는 느헤미야 ... 특히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과 비교할 때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좀 더 유사한 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적고 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란 제목을 걸고 한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는 가운데 우리 또한 성기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협력(teamwork)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팀워크(협동작업)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2:18)고 등장한 인물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38명의 개인 이름과 더불어 42 다른 그룹 이름들이 적혀있습니다[적어도 75명 이상(이동원)].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나 어느 누구 혼자 힘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명감을 갖고 지도자에게 동기를 부여 받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협동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원리를 잘 말해주는 있는 성경구절은 바로 전도서 4장9-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같은 인간관계를 가진 팀원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 파워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느헤미야는 75명이나 넘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들을 적으면서도 자신의 이름과 행한 일은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다른 인물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훌륭한 지도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훌륭한 지도력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1) 느헤미야는 맨 파워(manpower)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75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혼자서 못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마쓰시다 전기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회사는 무엇 만드는 회사인가?”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사람을 만듭니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인터넷).

(2) 느헤미야는 일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delegation)하였습니다.

어느 한 형제의 홈페이지에 적힌 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들은 자기 부하들보다 뛰어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알아보고 끌어 모아, 통합적인 비전 아래 효율적으로 배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류리더는 자기 능력을 사용하고, 이류 리더는 남의 힘을 사용하고, 일류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합니다’(이준호).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75명이 넘는 유대 백성들에게 일을 위임하여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느헤미야는 격려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는 오늘 보문 3장에서 75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한 일(업적)을 적고 있습니까? 특히 그는 20절에서는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 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에는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보통 “... 사람은 ... 일을 했고”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룩은 특별히 힘써 일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바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은”이란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3장1-32절중에 22구절에 걸쳐서 “그 다음에”라는 말이 2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그 다음은 ...”). 그리고 4절, 5절, 7절, 8절, 9절, 12절 등등 29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은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예루

살렘 성의 건축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나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이 대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동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unity)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1절), “여리고 사람들”(2절), 누구누구의 “아들”(2, 4, 6, 등등), 어느 “자손들”(3절) 등등.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1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9절 (12, 14, 15, 16, 17, 18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지방이나 도시를 다스리는 자라면 일을 하인에게 시킬텐데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때 당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는 직위를 막론하고 다 협력하여 일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성경 시편 133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은사 받은 대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디(D. L. Moody)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아이디어(생각)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는 와서 편히 쉬는 곳, 폭신한 성도 좌석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구제 헌금을 드리며 교회가 부도가 없도록 자기의 책임을 하는 곳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교회 안에서 실제적 일)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위어스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무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2:18)고 있는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돕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2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첫째 질문은 ‘왜 드고아 사람의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는가?’이고, (2) 둘째 질문은 ‘왜 느헤미야가 5절에서 이 귀족들의 일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질문에 대한 가능성 있는 대답은 드고아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서동 쪽에 있는 열린 나라(open country)로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무리 중 아라비아 사람 게셈(2:19)으로부터 공격 받기에 쉬웠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훤삼). 또 한 가지 가능성 있는 대답은 귀족들로서 겸손하지 못해서 낮아져 다른 이들과 함께 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박윤선). 둘째 질문인 ‘왜 느헤미야가 이 드고아 귀족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는가를 5절에 지적하고 있는가’에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교훈이란 이유가 ‘두려움’이던 ‘겸손하지 못해서’이던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방관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다 일어나 주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러

한 방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다른 모든 이들이 힘을 내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성공의 걸림돌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계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방관자들이었던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2:20)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되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25:18). 즉,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부지런히(열심히) 일을 하지 않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21, 23절)라고 칭찬을 받기 보다 “게으른 종아”(26절) 또는 “무익한 종”(30절)이라고 질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38명 개인들과 42 그룹들이 나오는데 (위어스비) 그 42 그룹들을 4 전문 직종으로 나눈다면 “the goldsmiths”(금세공인들, 금 대장장이, 8절)과 “the perfumers”(향품 장사, 8절)과 “정치인들”(12절)과 “the merchants or businessmen”(무역상인 혹은 사업가, 3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훤삼). 성경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잡다하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은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은사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주신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 팔, 다리, 머리 등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사 받은 대로 일을 했습니까?

(1) 지도자들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십시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 하였고.” “엘리아십”은 예수아(스룹바벨과 동역한 사람)의 손자입니다. 성직에 있던 그가 이렇게 솔선하여 예루살렘 성 중건에 앞장서서 협력한 것은 공사에 있어서 모본입니다(박윤선). 그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한 일은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문이란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이동원).

(2)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11,19,21,24,27,30절).

한글 성경을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성경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 “repaired another section”(또 다른 부분을 수리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끝났을

때 자기의 도구를 내려놓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아니 되며 오직 주님이 힘을 허락하시는데 까지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10,23,28-30절).

이 구절들을 보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10절),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23절),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28-30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어도 6명의 일꾼과 알 수 없는 숫자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성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영광의 문”(Through Gates of Splendor)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북미 선교사들의 영원한 심장인 젊은 5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인 짐 엘리엇과 그의 선교 팀원들이 다른 4명의 동역자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1956년 살인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1996년에 쓴 “기념판 에필로그”에서 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5인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섯 남자 자신들을 돌이켜 본다. 다른 선교사들의 모험에 가담해야 할지 쉬 결정하지 못하던 피트의 고민, 마릴루가 임신 8개월임에도 모든 일이 잘될 줄 확신하고 가려 했던 에드의 열정, 로저의 우울과 선교사로서의 깊은 패배감, 네이트의 극도의 신중성과 굳은 결의, 무모하리만큼 들떴던 짐의 열의를 떠올린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죽을 때부터 후에 자기가 와오라니 인디언(아우카 인디언)들과 함께 살던 때와 그 후 그 일을 기록하고 자기 자신의 이후 경험에 비추어 묵상하던 긴 세월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점은 하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일진대 그분은 내 예배와 성김을 받으시기 합당하다”(엘리엇).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자 느헤미야를 들어 일으켜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들어 일으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받은 은사대로 신실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목회를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각자의 은사를 깨달아 알아 충분히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하면서)

마음 들어 일하라!

[느헤미야 4장 1-6절 말씀 묵상]

저는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 9/11”(Fahrenheit 9/11)를 보고 한 영화 객이 적은 글을 인터넷 중앙일보에서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다들 알다시피 부시와 그의 각료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부시의 멍청한 표정, 그의 말,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부시와 참모들의 코믹한 표정들,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격소식을 접하고 난감해 하는 부시의 표정들로 영화는 시작된다. 심지어는 9.11사태가 발생하기 전날 프랑스제 이불을 덮고 잤다는 것까지, 문제의 본질은 제쳐두고, 오직 부시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코미디에 실없이 웃을 만큼 감정이 한가하지도 않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처참한 사건을 두고 값싼 농담거리나 주절거리고 있는 감독이 한심하기까지 하였다”(인터넷). 결론을 한 마디로 “부시를 조롱하기 위한 3류 코미디…”였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이란 웹사이트에 2004년 7월 첫째 주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게 조롱의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조롱의 대상 순위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제1순위: 서울 시장 “이명박”씨였습니다. 야심만만하게 서울시 교통체계를 바꾼다는 명분 아래 7월 1일부터 시행된 버스노선 전면개편이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이 시장은 줄지에 분노의 집중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 2순위: 말 바꾸기 의혹과 석연찮은 행동으로 김씨 피살의 진실을 미궁에 빠뜨린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주간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제 3순위: 3위에는 “이번엔 진짜 결혼한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며 댄서와 약혼한 ‘브리튼니 스피어스’가 올랐습니다(인터넷).

교회 안에서의 조롱은 어떠합니까? 누구를 조롱합니까?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그 따위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주일날 꼭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충성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하며 조롱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교인이 교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인터넷). 이렇게 조롱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조롱 가운데서도 ‘마음 들어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들어 일하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2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마음 들어 일했습니까?

그들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마음 들어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3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 3명 중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1절). 이미 산발랏은 다른 대적 자들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2:19). 이것은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

하려는 공작으로서 야비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망과 두려움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화이트). 즉, 예루살렘 성을 재건 못하도록 건축자들의 폐기(morale)를 파괴하려는 의도였습니다(패커). 이 대적자들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 하여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락 전쟁 된 심리전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나눕니다. 1990-1991년에 있었던 걸프 전쟁 때 심리전 부대가 작은 비행기를 통하여 “걸프의 음성”(Voice of the Gulf)이란 명칭아래 이락 사람들에게 전단지(빠라)를 많이 뿌려서 결국 87,000명 이락 군인들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락 전쟁에서도 “정보 라디오”(Information Radio)라는 명칭아래 이락 사람들에게 엄청난 숫자의 전단지를 비행기로 뿌리면 서 연합군이 이락 사람들을 돕길 원하며 사담과 그의 정권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무고한 이락 시민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산발랏의 심리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심리전을 한 5가지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질문은 “... 이 미약 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2절).

여기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일하는 자들인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리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심리전에선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던지 혹은 상대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가지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때 봉사하고 있었던 크리스천 그룹에 속해 있던 자매와 제 룸메이트와 담당 고문 전도사님과 한 식당에서 앉아서 물을 마시며 음식을 기다리는데 제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던 자매에게 ‘좀 건강하시네요’ 했다가 물벼락 맞았습니다(그 자매는 자기 몸매에 대해 신경을 썼었던 것 같음). 쉽게 말하면 뚱뚱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려면 그녀를 뚱보라고 부르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산발랏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인 사마리아 인들과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형편없고도 치욕스러운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구약에서 한 2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a) 첫째는, 사라지는 혹은 시들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사16:8; 24:7; etc.). (b) 둘째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사 19:8; 호 4:3). 오늘 본문에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한 것은 유다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사람들로써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기에 가치 있는 일 또는 훌륭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18-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면 또 한 우리를 사용하시사 그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파워를 영광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에 곧 강하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고후12:1-10).

(2) 두 번째 질문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입니다(2절).

여기 두 번째 질문에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일 자체, 즉 예루살렘 성 재건이었습니다. 이 조롱을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시작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말(화이트) 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확실히 그들의 능력 밖이다’(패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처럼 숫자가 적고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승리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남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등등의 조롱어린 질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지쳐있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이러한 조롱은 치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자신이 시작한 어떤 일에 대하여 의구심이 일어나려 할 때 자신이 이미 느끼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가장 듣기 싫은 것이다” 고 말하면서 느헤미야 4장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연약한 상황과 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을 때 산발랏의 이 두 번째 조롱은 치명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세 번째 질문은 “…제사를 드리려는가 …”(2절)입니다.

이 세 번째 조롱은 그 뜻이 분명하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발랏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화이트). 그것은 마치 ‘과연 저들은 기도가 성벽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산발랏의 조롱입니까?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일인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조롱하더니 이젠 그들의 신앙인 기도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는 기도와 예배로 되겠는가?’는 조롱인 것입니다. 이것은 산발랏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 집회를 위하여 또한 태신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나? 는 조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과연 나의 태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 세 번째 조롱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의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4) 네 번째 질문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입니다(2절).

이 네 번째 조롱의 핵심은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이 쇠하여 지쳐 있었고(10절) 또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산발랏은 이렇게 크고 힘든 일을 얼마나 걸려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더욱더 낙심케 하려는 의도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조롱이요 유혹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우리 승리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커보이게 하면서 우리가 그 큰일을 감당하기엔 작아보이게 만들므로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입니다(2절).

여기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돌들이 이미 소화되어서 소용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었던 소화된 돌들은 아직도 건축 재료로 쓰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화이트). 그 때 소화된 것은 성문이었고 성벽은 무너트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돌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패커). 그러나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실망시키려고 맞는 말과 더불어(소화된 돌) 틀린 말을 슬쩍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의 5가지 조롱 후 암몬 사람 도비야의 조롱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4:3). 여기서 도비야의 조롱 핵심은 완성된 생산물, 즉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될찌라도 너무나 약해서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벽)의 터진 곳, 갈라진 틈’입니다. 즉, 여우가 올라가도 예루살렘 성벽에는 갈라진 틈이 생길 거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대적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충실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들과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을 조롱하며 우리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롱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조롱하며 도전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마음 들여 일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마음 들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4-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 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를 봅니다(1:4-11 & 2:4). 우리는 그의 기도를 이중 간청으로 구체화(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패커):

(1)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지원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자신감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산발랏의 조롱의 약화시켜 달라

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4-5절을 보십시오: “원컨대 저희의 욕 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대적하는 산발랏과 그의 일행에게 저주를 내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조롱을 당하여 복수심 속에서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길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시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시편 69, 79, 139:19-22). 이러한 시편을 가리켜 영어로 “Imprecatory Psalms”(남을 저주 하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예로 시편 79편 4, 6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운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어 역사하였음이니라.” 놀라운 사실은 대적들의 조롱을 느헤미야는 기도와 마음 들어 일하므로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조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낙심시키려는 대적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온 유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계속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짧은 기간 안에 절반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65절과 15장 16-20절을 보십시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막14:65), “군병들이 …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막 15:16-20).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후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막14:58).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조롱 가운데서도 마음을 들어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허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

사탄의 전략

[느헤미야 4장1-3절 말씀 묵상]

교회 안에서 “누구를 조롱합니까?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그 따위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주일날 꼭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충성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하며 조롱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교인이 교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3절을 보면 조롱을 받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누가 그들을 조롱하였습니까? 바로 산발랏(1-2절)과 암몬 사람 도비야(3절)였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1절)였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도 산발랏과 더불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였습니다(2:19). 이것은 산발랏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공작으로서 야비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였습니까? 실망과 두려움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화이트). 즉, 예루살렘 성을 재건 못하도록 건축자들의 폐기(morale)를 파괴하려는 의도였습니다(패커). 이 대적자들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산발랏의 조롱(2절)과 도비야의 조롱(3절)을 묵상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한 여섯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 자신이 그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미혹되어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산발랏의 조롱입니다(2절). 우리는 그의 5가지 조롱 섞인 질문에서 5가지 사탄의 전략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산발랏의 조롱 섞인 첫 번째 질문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2절a).

여기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일하는 자들인 **유다백성들(workers)**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리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심리전에선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던지 혹은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가지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면 됩니다. 산발랏은 자기 형제인 사마리아 인들과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형편없고도 치욕스러운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란 말은 “Miserable Jews”, 즉 비참한 혹은 불행한 유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mil)는 구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라지는 혹은 시들고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고, 둘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사19:8; 호4:3). 본문에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한 것은 유다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아무 쓸모 없는 사

람들이기에 가치 있는 일 또는 훌륭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조롱입니다.

저는 이 사탄의 전략에 수 없이 넘어갔었고 지금도 자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사탄은 저의 마음에 자꾸만 ‘제임스, 넌 부족해, 넌 연약해, 넌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넌 쓸모없어’ 등등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탄의 음성을 종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겸손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탄은 나 자신만 바라보게 합니다. 특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등등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까지 하게 만들곤 합니다. 진정한 자아성찰은 나 자신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은 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나 자신만 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장27-28절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고전1:27-28) 사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우리의 천함, 멸시 받을 만한 점들과 없음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낙망케 하며 좌절케 하므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쓰고 있습니다.

(2) 산발랏의 조롱 섞인 두 번째 질문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입니다(느 4:2b).

여기 두 번째 질문에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일 자체(**work**), 즉 **예루살렘 성 재건**이었습니다. 이 조롱을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시작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화이트) 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확실히 그들의 능력 밖이다’(패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처럼 숫자가 적고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남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등등의 조롱 어린 질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조롱입니다. 사역에 지쳐있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이러한 조롱은 치명적입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자신이 시작한 어떤 일에 대하여 의구심이 일어나려 할 때 자신이 이미 느끼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가장 듣기 싫은 것이다” 고 말하면서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연약한 상황과 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화이트). 이미 유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들은 지쳐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산발랏의 이 두 번째 조롱인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먼저 우리들이 얼마

나 미약한지를 부각시킨 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작음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크기를 더 크게 부각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낙심케 하며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은 이 모든 미혹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면 어떠한 큰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도할 텐데 사탄은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큰일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작게 보게 만들고 또한 그는 큰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듦으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며 절망하게까지 만듭니다.

(3) 산발랏의 조롱 섞인 세 번째 질문은 “...제사를 드리려는가 ...”입니다(2:2c).

이 세 번째 조롱은 그 뜻이 분명하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발랏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유다 백성들)의 **믿음(faith)**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화이트). 그것은 마치 ‘과연 저들은 기도가 성벽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산발랏의 조롱입니까?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일인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조롱하더니 이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의 믿음(신앙)을 공격합니다. 처음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공격하여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사탄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기도와 예배로 되겠는가?’라고 우리를 조롱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 집회를 위하여 또한 태신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조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여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과연 나의 태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의심의 길을 걷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불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 가운데 불충성하게 만듭니다.

(4) 산발랏의 조롱 섞인 네 번째 질문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입니다(2절d).

이 네 번째 조롱의 핵심은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 즉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느냐’입니다. 안 그래도 “힘이 쇠하”(4:10)여 지쳐있었고 또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산발랏은 이렇게 크고 힘든 일을 얼마나 걸려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더욱더 낙심케 하려는 의도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의 무능력함을 공격하므로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참으며 견디지 말고 인내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큰 일을 중단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조롱이요 유혹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매우 커 보이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큰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작아 보이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부각시키므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능력함과 감당해야 할 일의 크기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므로 결국은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5) 산발랏의 조롱 섞인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입니다(2:2e).

여기서 산발랏의 조롱 핵심은 **건축재료(materials)**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필요한 돌들이 이미 소화되어서 소용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었던 소화된 돌들은 아직도 건축 재료로 쓰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화이트). 그 때 소화된 것은 성문이었고 성벽은 무너트렸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돌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패커). 그러나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실망시키려고 맞는 말(소화된 성문 재료는 쓸 수 없었음)과 더불어 틀린 말(소화된 돌들은 쓸모가 있었음)을 슬쩍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의 조롱 섞인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사탄은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구약 말씀을 좀 빼놓아서 인용한 것처럼 사탄은 무조건 거짓말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더하기 진리(진리 +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저 밖에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생각과 발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두렵고 낙망하여 지친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작다 보니 일할 사람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고 등등 자꾸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망케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중단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이 산발랏의 5가지 조롱 후 암몬 사람 도비야의 조롱이 나옵니다(3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야의 조롱은 이것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3절).

여기서 도비야의 조롱 핵심은 **완성된 생산물(finished product)**, 즉 예루살렘 성이

었습니다. 그는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 될
찌라도 너무나 약해서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
기서 ‘무너지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벽)의 터진 곳, 갈라진 틈’(a breach)입니다.
즉, 여우가 올라가도 예루살렘 성벽에는 갈라진 틈이 생길 것이다 라는 조롱입니다.

저는 이 도비야의 조롱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약 5년 전 주님께서 저를 승
리장로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설교케 하셨는데 그 때 이 도비야의
조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틈”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마16:18)을 성취해 나아
가심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
다. ‘목사인 내가 먼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렇게 틈이 많
은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세워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아 하
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가410장1절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
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발랏의 조롱 섞인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제
자신이 얼마나 사단에 노출돼있는지 제 자신의 틈을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계시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미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을 바
라보게 하시므로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는 일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담대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저
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가
운데 저로 하여금 인내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계
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게 하시므로 힘을 얻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대적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우리 다 같이 충실히 섬기십시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
리가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하는 일을 조롱하며 우리의 능력
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롱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조롱하며 도전할
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
어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에 노출돼 있지만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재건되어 갈 때에

[느헤미야 4장 7-14절 말씀 묵상]

인터넷 사이버 독서교실을 보면 강문주씨란 사람이 쓴 “두려움은 없다”란 글이 나옵니다. 그 글 내용 중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식에서 대공황의 불안과 좌절에 빠진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당시 미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1천500만 명이 실업상태에 빠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쇄도산하면서 극도의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했다. …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루스벨트는 어떤 경제 정책보다 ‘자신감’ 회복이 불황을 이기는 급선무라고 간파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끝없는 불안과 패배주의가 바로 위기의 본 질이라고 본 것이다. 위기의식이 위기를 부르고 위기가 다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루스벨트는 단절시키고자 했다”(인터넷).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과 염려입니까? 낙심입니까? 의심입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확신의 위기”(Crisis of Conviction)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온 경제 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감’ 회복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확신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이 올 것을 확신하는 마음 자세를 심어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그 때 경제 위기는 곧 경제 회복의 대한 확신의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도 확신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확신 속에 거하게 될 때에 그것은 곧 교회의 위기란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위기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재건되어 갈 때에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1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가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재건되어 갈 때에”란 제목 아래 한 2 가지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1) 재건되어 갈 때에 오는 위기(Coming Crisis)는 무엇입니까? (2)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오는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오는 위기(Coming Crisis)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8절을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가고 있을 때(7절),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이 중수되었을 때(6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인 도비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조롱하였는데(4:3) 과연 이 조롱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입니다. 이 도비야의 조롱에서 “무너지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벽)의 터진 곳, 갈라진 틈이 있을 것이다’란 말로서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에 갈라진 틈이 생길 것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느헤미야 4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의 있었던 갈라진 틈이 닫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도비야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도비야의 조롱을 통하여 교훈을 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갈라진 틈을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튼튼히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가 유다 백성들에게 왔습니까?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 위기는, 대적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절을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 함께 꾀하기를 …”. 예루살렘 성 재건이 진척이 있으면 있을수록 대적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 느헤미야 2장10절에서는 대적자들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2명의 지도자들 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장19절에 가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해서 3명의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4장 7절을 보면 이전 한 사람이 아닌 “아스돗 사람들”이란 무리가 다른 대적자들과 연합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잘못된 같은 목적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일에 이들이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쩔 때는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함께 대적함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둘째 위기는 대적자들의 연합 무력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8절을 보면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였습니다. 이들의 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즉, 대적자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을 요란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전 예루살렘 도시는 대적자들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 동쪽으로는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 남쪽으로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돗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탄인(볼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중요하고 강한 커뮤니티가 생겨나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연합은 누가복음 23장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핍박함에 있어서 연합전선을 피는 대적자들을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편기자가 시편 2편2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쁨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세 번째 위기는 낙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은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흠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젠 대적자들의 연합 전선 및 무력 공격의 소식을 듣고 더 힘이 빠졌고 또한 낙심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어 거기서 여기 저기 널려져 있는 흠무더기나 돌들, 이것을 다 치우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니 일이 두 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은 일이 너무 많아 낙심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반이나 재건된 이 마당에 대적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공격은 더욱더 심해짐을 느낄 때에 이 얼마나 낙심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만들어 낸 교훈적인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악령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전시하는 “무기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곳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기에 제일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악령들이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두목님, 이 무기에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나요?” 그러자 두목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 줄을 모르지. 그래서 나는 이 무리고 간단히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 이 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다구.”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낙망”이었습니다(이동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서 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냉담과 절망적인 타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전체 재건하는 분위기를 빨리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패커).

(4) 네 번째 위기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연합하여 무력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음모의 소식을 유대인 정보 제 공자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부터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가는 기습 공격이 있으리라는 보고였습니다(화이트).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1-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미국의 사상가 및 박물학자였던 헨리 소로는 그의 읽기 1851년 9월7일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Nothing is so much to be feared as fear”(두려움만큼 두려워할 게 없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이란 저와 여러분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결코 두려움과 믿음은 우리 마음에 공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며 또한 패배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0장 8절을 보십시오: “...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재건되어 갈 때에 위기는 올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Increased opposition is increased opportunity!’(증가하는 대적은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낙심케 하며 두렵게 하는 위기를 주님께서 돌이켜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종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네스북 10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 기록보유자인 김연중씨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위기관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의 위기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난히 위기상황에서 괴력을 발휘합니다. 한 마디로,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역전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바둑 9단 조훈현이란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대마가 위기에 몰리거나 도저히 승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그의 머리에서는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묘수가 나오고는 한다. 그 뿐 아니라 “제비”라는 별명답게 그는 소소한 전투의 실리에 연연하지 않고 발빠른 작전으로 적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단번에 거꾸러뜨리는 과단성이 있다”(인터넷). 느헤미야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위기관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1) 첫째로, 그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 느헤미야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의 대적들이 동서남북에 있어서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갇힌바 되었다”(출14:3)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환경을 보고 낙심하여 모세에게 원망할 때에 모세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출14:15). 그 위기에 초반부터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사 그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였습니다(패커). 조지 뮐러(George Muller) 목사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뮐러).

(2) 둘째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때 침략자 들을 막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는 파수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웠는가?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느헤미야는 파수을 성벽에서 눈에 잘 띄는 곳과 취약한 곳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러면 침략자들이 유대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종족을 따라 파수꾼을 함께 세운 이유는 그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견고히 서서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중수했을 뿐만 아니라(느3:28-30)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서서 자기들의 가정과 도시를 지키려고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3) 셋째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연약한 믿음과 불확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있었습니다(1:15; 4:14).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충분히 위기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구해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이동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만일 그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큰 위기 가운데서도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재건되어 갈 때에 충분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위기를 통하여 자신들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인내로 잠잠히 주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동시에 그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며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합니다. 오직 승리하신 구원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목격하며 경험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는 위기를 대비하며, 온 위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는 위기

[느헤미야 4장 7-14절 말씀 묵상]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식에서 대공황의 불안과 좌절에 빠진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1천500만 명이 실업상태에 빠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쇄 도산하면서 극도의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루스벨트는 어떤 경제 정책보다 ‘자신감’ 회복이 불황을 이기는 급선무라고 간파했습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끝없는 불안과 패배주의가 바로 위기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위기의식이 위기를 부르고 위기가 다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루스벨트는 단절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과 염려입니까? 낙심입니까? 의심입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확신의 위기”(Crisis of Conviction)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확신의 위기입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주님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을 믿지 못하는 확신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확신 속에 거하게 될 때에는 그것은 곧 우리 교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신의 위기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재건되어 갈 때에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7-14절을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가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오는 위기”란 제목 아래 그 위기를 한 4가지로 생각해보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다가올 위기를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잘 준비하여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위기는, 늘어나는 대적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절을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 함께 꾀하기를 …”. 예루살렘 성 재건이 진척이 있으면 있을수록 대적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대적하였습니다(2:10). 그러다가 2장 19절에 와서는 이들 대적자들 외에도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합류해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4장7절에 와서는 이전 “아스돗 사람들”이란 무리까지 연합하여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이 연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재건되는 것을 지금도 막고자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외부적인 교회 대적자들의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교회 대적자들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늘어나는 대적자들의 대적은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때 더욱 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 질수록 사탄은 교회를 무너트리려고 더욱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대적자들을 계속 일으켜서 교회 재건을 막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대적은 우리에게는 늘어나는 기회입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기회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또한 그 기도를 응답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둘째 위기는, 대적자들의 연합 무력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8절을 보면 많은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 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였습니다. 이들의 꾀함은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7절). 즉, 대적자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을 요란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젠 예루살렘 도시는 대적자들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 동쪽으로는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 남쪽으로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연합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연합은 누가복음 23장1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핍박함에 있어서 연합 전선을 피는 대적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기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세상의 군왕 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시 2:2). 지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교회를 공격하여 교회를 요란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의 목적까지도 혼동하게 만들므로 교회 안에 질서도 깨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명백하게(plainly)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계속 혼동(confusion)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연합 공격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단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예: 행1:8)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행1:14). 그리할 때 온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행2장)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낙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은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낙심하였습니다. 흠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젠 대적자들의 연합 전선 및 무력 공격의 소식을 듣고 더 힘이 빠졌고 또한 낙심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이 훼파 되어 여기 저기 널려져 있는 흠무더기나 돌들, 이것을 다 치우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니 일이 두 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은 일이 너무 많아 낙심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반이나 재건된 이 마당에 대적자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공격은 더욱더 심해짐을 느낄 때에 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이러한 낙심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낙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냉담과 절망적인 타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전체 재건하는 분위기를 빨리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페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서 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그 일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탈진하는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낙심 때문입니다. 낙심한 영혼은 결국 교회 일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것은 그래도 좀 견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원인이 우리 자신일 경우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 등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낙심이란 늪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낙심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어도 아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오는 낙심은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거의 절망감이 들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렘29:11). 그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부흥케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시43:5).

네 번째 위기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연합하여 무력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음모의 소식을 유대인 정보 제공자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부터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간다는 기습 공격이 있으리라는 보고였습니다(화이트).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1-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에 기습하여 살륙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이러한 음모의 소식은 낙심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및 박물학자였던 헨리 소로는 그의 읽기 1851년 9월7일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Nothing is so much to be feared as fear”(두려움만큼 두려워할게 없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두려움이란 저와 여러분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20장8절을 보십시오: “...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 전쟁에 나아갈 군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내는 자가 있으면 모집된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져서는 아니되기에 성경은 그 두려워하는 형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이지만 또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의 영적 군사들 중 사탄의 공격을 무서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전체 교인들에 점진적으로 점염된다면 그 영적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확산되어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 군사들은 교회를 무너트리는 사탄의 역사를 그저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이사야41장10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코 두려움과 믿음은 우리 마음에 공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재건되어 갈 때에 위기는 올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대적자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연합하여 교회를 공격하려고 음모를 꾀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낙심하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Increase opposition is increase opportunity!’ (증가하는 대적은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울 때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마16:18) 그 약속의 성취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

다가오는 위기를 신실하게 준비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기관리

[느헤미야 4장 7-14절 말씀 묵상]

미국 경제에 대한 미주 한국일보 이철씨의 칼럼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투자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문제 원인은 투자은행들이 간 덩어리가 커져 검토 없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투자까지 손댔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이 일어나자 이 모양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경영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수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중 한 가지 마음에 다가온 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추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윤을 극대화 시키다 보면 욕심에 눈이 멀어 리스크 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이 작동하지 않는다”(한국일보). 욕심에 눈이 멀다 보면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에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면 그 만큼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도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결국 욕심이란 것이 눈을 멀게 하므로 수준 높게 잘 작동해야 할 리스크(위험)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참으로 미국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 CNN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 사람 10명중 8명이 좋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어제 월요일 뉴스엔 경제 문제로 인하여 한 가정에 가장인 45살 남자가 자기 장모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을 통으로 싸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경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삶의 위가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므로 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두운 때, 우리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제 위기 때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아갔는지를 배우야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취임식 당시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1천500만 명이 실업상태에 빠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쇄 도산하면서 극도의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했습니다. 이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두려움이 가져오는 끝없는 불안과 패배주의가 바로 위기의 본질이라고 보고 어떤 경제 정책보다 ‘자신감’ 회복이 불황을 이기는 급선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기의식이 위기를 부르고 위기가 다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는 과정을 루스벨트는 단절시키고자 했습니다(인터넷).

우리 삶 속에서도 위기로 인하여 삶이 어두워질 때가 종종 있으며 또한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잘 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 삶 속에서 위기가 적어도 한번은 왔었을 터인데 그 왔었던 위기를 통하여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 또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위기를 통하여 위기관리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느헤미야4장7-14절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온 4 가지 위기(늘어나는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의 연합 무력 공격, 낙심, 그리고 두려움)를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과연 어떻게 이겨 나아 갔는지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위기관리에 대한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교훈을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하여 현재 위기도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위기관리 교훈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다가온 4 가지 위기인 늘어나는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의 연합 무력 공격, 유다 백성들의 낙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대처해 나아 갔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하며 …”.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이 동서남북에 있어서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14장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갈헨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환경을 보고 낙심하여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출14:15).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위기관리 교훈입니다.

기도 응답 5,000번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꾼몰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몰러). 과연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ABC를 알고 있습니까?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을 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식과 두려움, 불안과 걱정, 염려 같은 것을 무릎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우리 삶 속에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동서남북 같이므로 땅을 보고 낙망하며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 처럼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 봐야 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란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도 필요 하겠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포위된 상태 에서도 홍해 바다를 육지로 만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미하던 바울과 실라처럼(행16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 위기관리 교훈은,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 왔을 때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십시오: “...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데”. 느헤미야는 그 때 침략자들을 막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웠습니까?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성벽에서 눈에 잘 뛰는 곳과 취약한 곳에 세워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그러면 침략자들이 유대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종족을 따라 파수를 함께 세운 이유는 그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견고히 서서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중수 했을 뿐만 아니라(느3:28-30)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서서 자기들의 가정과 도시를 지키려고 파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략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자들을 막고자 파수꾼들을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 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종족을 따라 눈에 잘 뛰는 곳과 취약한 곳에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위기를 맞이할 때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눈과 귀, 그리고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왜 눈과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면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 위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감을 주는 소식들을 막는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에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위기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불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에 확신의 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구원의 확신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적 상황이나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기 가운데 견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 위기관리 교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대적자들로 인하여 위기를 접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가 연약한 믿음과 불확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1:15; 4:14).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충분히 위기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구해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하라고 끊임없이 도전 하였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말을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이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이것은 불신앙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는 우리는 결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오는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큰 위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겨 나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대적자들을 향한 두려움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사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접하는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

위기관리를 더욱더 배우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길 기원하면서)

건축하는 자의 자세

[느헤미야 4장 15-23절 말씀 묵상]

수피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나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다. 가장 완전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맸지만 완전한 여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그냥 돌아온 그에게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 그렇게 완전한 여자가 세상에는 한 명도 없던가?’ 70살의 총각이 답한다. ‘아냐, 한명 있었네. 기적적으로 완전한 여자를 만날 수 있었네.’ 깜짝 놀란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침울한 얼굴로 총각이 답했다. ‘어떻게 되긴, 그 여자는 완전한 남자를 찾고 있더군. 그래서 결국 허탕치고 말았지’”(김정호). 아마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수피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교회를 70살의 총각처럼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여기서 던지고자 하는 자문은 과연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시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5-23절 말씀 중심으로 “**건축하는 자의 자세**”란 제목을 걸고 건축자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자세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목표에 이끌려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예루살렘 성 건축에 반대하던 대적들인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모여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8절)고 결정하였지만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대적자들의 뜻을 유다백성들이 먼저 알게 되어 수비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뜻은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 살육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사를 중단케 하려고 했지만(4:11) 그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유다백성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대적들의 쳐들어 올 것을 여러 번 미리 얘기해 준 것입니다(4:14).

(2)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꾀를 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좋은 예로 압살롬이 다윗을 죽임에 있어서 아히도벨의 모략과 다윗의 친구 아렉 사 람 후새(삼하16:16)의 모략을 들은 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 의 좋은 모략(삼하17:14)을 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도 보면 “하나 님이 저희(유다의 대적자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습니다. 즉,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 뒤 낮 고 넓은 곳에”서 대적들의 공격에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성벽으로 돌아와 그들의 목표인 예 루살렘 성 재건을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건축하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얻는 원리는 “목표에 이끌려 일하라”입니다. 독립전쟁 당시 미국 해군 제독이었던 메이혼(Mahon) 장군은 부하 장교들을 가르칠 때 다음 과 같은 훈령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제군들, 귀관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설 때에는 언제나 최종 목표를 먼저 결정해 놓고 시작하십시오. 일단 결정했으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화이트). 느헤미야는 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선제공격을 택했다라면, 그는 모든 병력 을 다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은 정체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적 들의 적대감이 누그러질 때까지 성벽 건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면, 불가피 하게 노동 인력을 재배치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건축 재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노동력은 계속 활성화 상태에 있었고 작업은 가장 빠른 시기에 재개되었 습니다.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성벽 건축이었고 그의 정책은 그의 목표에 의해 결정되었 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리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일을 계속한다는 계획안이 나온 것입니 다. 공격에 대한 그의 자세는 방어적이었고 일에 대한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었습니다(화이트).

18세기 전도사였던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 18세기에 다른 어떤 지도자보 다도 영국과 북미에서 일어난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을 중심을 차지했던 인물로서 그만큼 맹렬하고 끈질긴 반대에 부딪혔던 그리스도인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으로 살고 있지 않는 성직자들로부터 일찌감치 반대를 받았고 대부분의 영국 국교회들은 궁극적으로 그로부터 등을 돌렸었다고 합니다. 그 때에 휘필드는 3 가지 원리를 고수했습 니다: (1) 자신을 비난하는 자에게 절대 응수하지 않는 것, (2) 물의를 빚고 있는 논쟁에 가 능한 한 휘말리지 않는 것, (3) 복음의 전체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 그에게는 궁극적인 목표인 복음을 완전히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선포한다는 목표가 있었 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오는 온갖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목표를 놓치지 않 았습니다(화이트).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재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목표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이 위대한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투적인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 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 때로부터”, 즉 대적들이 연합하여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입수

한 다음부터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에 전쟁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성을 건설하면서도 전쟁 태세를 갖추고 일하였습니다(박윤선). 자기의 사람들 중 절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다른 절반은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었던 건축하는 자들이나 담부하는 자들(즉, 돌들을 치우며 성벽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자르는 자들)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또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17절). 건축하는 자들은 일할 때 두 손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칼을 옆구리에 차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18절).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크고 또한 성벽이 넓기 때문에 서로 나뉘어져 멀리 있었기에 어느 쪽에서든지 대적들이 공격해보면 나팔을 불어 위험한 쪽을 도와 연합으로 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닐 때 배운 것이 생각납니다. 헬만 바빙크(Herman Bavinck)라는 신학자가 말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요, 천상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전투적이 되어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성경책,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에게 있어선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대적자들의 꾀를 폐하셨습니다(15절). 느헤미야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의 근거를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편을 도우신다는 것", (2) 둘째는, 예루살렘 복구 운동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 (3) 셋째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은 모두 다 승리하였다는 것, (4)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 등입니다(박윤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에게 나아가면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7).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즉(대하20:15)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세상을 깨우는 기발한 아이디어"(시라 P. 화이트, G. 패튼 라이트 공저)란 책을 보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혁신을 만들어 가는 주체들을 'H3 리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열정적이고(Hot), 진보적이고(Hip), 일을 만들어 가는(Happening)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들은 H3리더가 바로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누구'라고 말하면서 혁신을 추구할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원은 바로 창의적인 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3 리더는 단순히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인 아이디어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테크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5가지 정도로 저자들이 정돈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긴장 상태의 조성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찰과 긴장이 필요하고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긴장이 있는 곳에서는 긴장을 활용하고, 긴장이 없으면 긴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 즉, H3 리더들은 다양한 사람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스파크를 유도한다. 대립과 모순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에서 더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관점과 경험이 다양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지식 체계가 수렴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이 독특한 방식으로 합쳐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인터넛).

지금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찾아온 위기인 대적들의 무력 연합 공격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긴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3가지로 그들이 긴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첫째로, 유대 백성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가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다시 말하면,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고 혹은 허리에 차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2) 둘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낮에 성을 중건하는 일을 마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방위를 계속하기 위해 성 안에서 지내도록 당부하였다(박윤선).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그들은 긴장 속에서 가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안았습니다. 밤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모험은 위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 어떤 일하는 자들은 파수를 섰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공격 당하기 쉽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 셋째로, 씻기 위한 것 외에는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23절을 보십시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일을 한 후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옷 빨 시간도 없이 일을 하면 보초를 섰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으러 갈지라도 무기를 항상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서 자기도 긴장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였습니다(23절). 그는 자기의 형제들과 종자들과 그를 좇는 파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옷을 벗지 않고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범이 그를 좇는 유대

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충성하여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위기 가운데서도 감당케 하도록 격려가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느헤미야는 그를 쫓는 유다 백성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유다 백성들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자기들과 제일 가깝게 동인물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들 또한 그 지도자와 동인물이라고 인정한다'(패커).

믿음의 시인 올펠로우는 그의 "인생찬가"라는 시에서 꿈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대한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없이 쫓기는 가축의 무리는 되지 말자/ 이 투쟁의 앞장서는 영웅이 되자/ 그저 미래가 달콤할 것이라는 사실에 현혹되지 말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돌리자/ 활동하자 살아있는 현재를 위하여 활동하자/ 가슴속엔 용기를 품고/ 하늘위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을 가지고" 꿈과 개혁 정신을 가지고 메이플라우어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행했던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메이플라우어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던 순례자들은 그해 추위 힘겨운 노동, 피로, 영양실조 등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순례자들의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을 노출시켜 흑 원주민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례식도 밤에 행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 뒤 그들의 숫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앞에는 미개척 원시림, 뒤에는 망망한 대해로 둘러싸인 그들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친지를 잃은 슬픔과 예측 못할 불안감. 그리고 신대륙 개혁의 위압감은 그들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해의 고통스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우어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선장은 친절하게 권유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주저 말고 돌아가자". 그러나 그 배는 빈 배로 떠나야 했습니다. 순례자들 가운데 한사람도 그 배를 타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이지만 오직 한 가지. 꿈과 희망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현실의 날개는 무겁지만 그 날개를 이용해 힘차게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정대성).

주님의 교회 세우기 사역에 있어서 합당한 자세를 추구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분명한 목표의식과 전투적인 자세와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길 기원하면서)

말한 대로 행하라!

[느헤미야 5장 1-13절 말씀 묵상]

어느 주일 남편 혼자 저녁예배를 갔다 오더니 그날은 밤늦도록 아내를 열렬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흡족해진 부인은 대견한 눈초리로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웬일이유?”. 다음날 아침, 어젯밤 일이 필시 목사님의 설교에 의한 영향 이리라 짐작한 아내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어제 저녁 설교 참 좋았대요.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였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님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였는데요”(월간목회). 이 유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유모의 핵심은 아내의 착각, 즉 남편이 자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자기는 원수로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집사라는 남편이 설교 말씀을 듣고 “네 몸”이던 “원수”이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5장 13절을 보면 “...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는 제목을 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한 번 들어 보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실천을 통하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절을 보십시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원망하다’란 동사는 ‘심각하게 부르짖다’란 말로서 비탄/고통 가운데 ‘크게 부르짖음’을 가리킵니다. 크신 하나님(great God)(1:5)을 위하여 큰 일 (great work)(4:19)을 하는 가운데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great cry)(5:1)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외부적 대적들인 산발랏의 사마리아인들, 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로 말미암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다른 아닌 내부적 대적들인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닌 귀족들과 치리자들(7절)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단합하여 예루살렘 성 중건에 열성을 다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젠 서로 원망을 발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음에 주로 잠잠했던 아내들까지 나서서 함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주로 뒤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들을 유다 백성들은 접하고 있었습니까? 인구 집중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식량 부족, 또한 과도한 세금 징수 및 자녀를 노예로 팔고 사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접하고 있었던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위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래서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자연히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휼삼). 또한,

성벽 건축을 하다 보니 그 일에 모든 손이 집중으로 인해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게 되어 식량 증산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전시 태세입니다. 밖으로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접 지역의 부족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메대 바사 정부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력을 견딜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밭과 포도원과 짐승을 전당잡혀야 했습니다”(이동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잔인했던 일은 많은 유대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부유층의 유대인들(성벽 재건에 반대했던)에게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 넘겨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화이트). 이것은 그 때에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을 알려줍니다(출22:25-27; 신15:7-15). 그들은 율법대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어야 하며, 가난한 자의 물건을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부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가난한 자들이 곤경에 빠져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박윤선). 이 유대 백성들의 불평들은 근본적으로 4 가지였습니다: (1) 첫째, “우리는 먹어야 산다!”(2절), (2) 둘째, “우리는 죄다 저당 잡혔다!”(3절), (3) 셋째, “세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4절), (4) 마지막 넷째, “저들의 자식들은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데 우리의 자식들은 왜 종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한 민족이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5절)(화이트). 한 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파멸을 가져오므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결국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5절 하반 절입니다: “...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여기서 “속량할 힘이 없도다”란 말은 ‘우리 손에 능이 없다’란 말입니다(웬상). 즉, 가난한 유대 백성들은 노예가 된 자녀들을 밭이나 포도원으로 속량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부자 유대인들에게 전당 잡혔기 때문입니다(3절). 힘이 없는 가난한 유대 백성들, 노예로 팔린 자기 자녀들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은 지금 심각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형제들의 말, 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십시오: “...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두 번째 사람인,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만일 느헤미야가 정치인이었다면 ‘무엇이 인기 있는가?’란 질문을 던지면서 인기를 얻는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혹은 만일 그가 외교관 이었다면 ‘무엇이 안 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부자와 가난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무엇이 옳은가?’이란 질문을 던지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죄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기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나라 안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이 고난의 시기를 틈타서 오히려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화하는, 즉 동족과 동족이 서로가 서로를 노예와 종으로 삼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것을 알고 분노했던 것입니다(이동원). 이 문제를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습니까?

(1) 첫째로, 그는 중심에 계획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7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중심에 계획하고 ….” 느헤미야는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터뜨리기보다 중심에 계획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건설적인 지도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노엽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화이트).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은 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 성공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2) 둘째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7절을 보십시오: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먼저 잘못에 대해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들인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찾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먼저 사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들었고 이전 부자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입장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양쪽 입장을 모두 보려고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랬다면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지 못했을 것입니다. 꾸짖으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약해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귀인들과 민장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그의 분명하고도 함축적인 견해인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7절)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2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첫째로는 형제우애입니다.** 그는 이들에게 그들이 취리하는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

(b)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느헤미야는 먼저

사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른 귀인들과 민장들을 면책한 다음에 공개적인 문제이기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귀족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꾸짖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8-9절을 보십시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백성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 시련이 더 심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 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형제의식’의 결핍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이동원).

(3) 셋째로,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그는 더 이상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고 부자유대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하나의 좋은 모본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도 한때는 잘못을 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인지, 그의 말로만은 분명치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수하들과 함께 이자를 위해 돈을 빌려 주고 있었다면, 이제 그는 이를 고백하며 앞으로 그러한 일을 일체 중단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화이트). 지도자는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신의 실수를 죄다 드러내 놓고 다루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자유함으로 이끄는 가장 정직한 길입니다(화이트). 또한 느헤미야는 가난한 형제 유다 백성들에게서 취한 것들을 돌려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잘못된 행동을 즉시 그만두고 변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변상하는 것 말입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이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들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차차 고치자고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그 결심을 실현치 못해 ‘아차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이동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 귀인과 민장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꾸짖음을 듣고 있었던 귀인들과 민장들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8절). 즉, 귀인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면책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속량할 힘이 없는 형제인 가난한 유

다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부터 힘을 다하여 함께 속량해 놓고 다시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속량의 목적이 그 가난한 형제 유대 백성들을 자기들의 권력에 속박하는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지적하며 면책하고 있었기에 귀인들과 민장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인들과 민장들의 두 번째 반응은 12절 상반 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 이다 하기로 ….”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그가 권면한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형제 유대 백성들에게 돌려 줄 것(밭, 포도원, 감람원, 집,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돌려주겠다고 느헤미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때에 느헤미야는 제사장을 불러 이들 이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도록 했습니다(12절). 그리고 난 후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엄숙한 경고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13절).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옷자락을 떨치는 것은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옷자락을 떨쳐 모든 것을 비우는 것처럼 저주가 임하여 맹세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의 소유가 다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 때에 회중들은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4절을 보면 “세금을 바쳤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약 2500년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메대 바사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서야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도 지금 적용됩니다. 저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 제정은 세금을 낼만 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틈”들을 메워 더욱더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는 기회로 믿습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도 짓기 원했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큰 역사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2절)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물질을 받쳤습니다(3절). 그가 모범을 보였을 때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6절). 그 때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9절). 제가 승리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다윗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물질을 받쳐 우리 교회가 내야할 세금을 내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즐거이 물질을 받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보여진 “틈”을 메우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십시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한대로 행하는 자로 세움 받길 기원하면서)

모범된 지도자

[느헤미야 5장 14-19절 말씀 묵상]

하버드 의대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래스는 “성공증후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음의 네 가지의 A중 하나 이상에 빠져들게 된다고 믿고 있다: (1) Arrogance(거만), (2) Painful feeling of Aloneness(외로움의 고통), (3) Destructive Adventure-Seeking(파괴적인 모험추구), (4) Adultery(간음). 이 4 가지는 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값을 치루기에 언제나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골짜기, 즉 네 가지 A 중 하나 이상 빠져든 상황에서는 결코 시간이나 돈 또는 더 많은 명성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품의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가며 더 파괴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사람들을 이끌 때, 성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맥스웰). 미드 파크(Mid Park, Inc)사의 알렌 버나드 회장은 성품에 대해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리더십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존경심, 그것은 개인의 윤리적 삶을 필요로 한다. 리더는 옳고 그른 것의 경계선, 그 위에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회색지대’가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맥스웰). 지도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록은 성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꾼들(potential leaders)을 찾아 성숙된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 파송하기 위해선 “성품 만들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 만들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기 혹은 역경입니다. 그 이유는 위기가 반드시 성품을 형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성품과 타협이 만나는 교차로로, 인생은 언제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맥스웰).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4-19절을 보면 우리는 모범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타협을 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모범된 지도력에 대해서 한 4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모범된 지도자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부터 삼십이 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12년 있는 동안 자기와 자기 형제들은 유다 총독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유다 땅 중심 기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 개인 보고(treasury)를 위해서도 세금을 걷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와 자기 형제들, 즉 총독의 섬김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

지 않고 자기들의 돈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범적인 행동은 신약에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다(고전9장). 그는 고린도교회에게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값없이”(9:18)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다. 물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하는 자들이 자기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모범을 좇아 부(wealth)와 사역에 관한 영적 자세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한국 정치는 어떠합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까?’하는 것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나라 살림 잘하라고 뽑아주면 자기의 권력이나 특권, 높은 지위를 남용해서 나라가 경제 파탄에 이르던 말던 자기 배만 채우기 바쁘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사과 상자에 몇 억을 주고 받고 하니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특권의식보다 종의 의식에 더 크게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이동원). 지도자들은 비난을 많이 받고 신뢰를 들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범된 지도자는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사십 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이 되기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들의 종자들과 함께 다 같이 백성들에게서 토색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개인적인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서 “약식과 포도주와 은 사십 세겔”의 수당을 착취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총독들과 그 종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바빴기에 백성들의 짐이 더욱더 무거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독 느헤미야는 이들과 같이 행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직위가 올라간다고 지위가 향상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높은 감투를 쓰게 되면, 그 감투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여 하나님을 외면할 경우도 있습니다(이동원). 그 한 예로 우리는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울은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여김을 받으므로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자기를 위하는(12절)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를 크게 여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24절).

존 화이트 목사님의 말입니다: “기독교적 공무가 한창 진행되는 초창기부터 그 사역으로 인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책임이 막중해지고 경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샅을 받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임금님처럼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탐욕의 뱀이 서서히 우리의 자선과 사랑을 목 조르는 것이다. 잘사는 나라에서는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일신의 부귀를 위해 기독교 사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늑대임을 드러낸다”(화이트). 사역의 초창기에는 탐욕의 뱀은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그 꼬리부터 들어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잠언 8:13).

셋째로, 모범된 지도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하여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하여 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한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6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이전 총독들이나 그들의 종자들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토색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하므로 느헤미야는 그의 종자들과 함께 오히려 그의 목표인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중건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차이를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전 총독들과 그의 종자들은 자기들의 “성벽” 쌓기에 바빴습니다. 그 예로, 학개서 1장 9절을 들 수 있습니다: “...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9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그의 종자들은 다 함께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유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땅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느헤미야는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7-18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일백오십 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지도자에 대하여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는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과 그들의 부하들까지도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15절). 이에 반해 느헤미야는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들은 섬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상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항상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항상 감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들은 일신의 영광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를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화이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식탁에 자기가 대접해야 할 손님이 매일 150 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외에 주위 나라 이방인들 중 에 찾아온 손님들). 이들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다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했습니다. 그것도 최고로 좋은 음식(“살진 양”, choice sheep) 풍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18절). 왜 그랬습니까? 그 대답을 18절 하반 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즉,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긍휼이 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넷째로, 모범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일을 희생적으로 하다 보면 좀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고생스럽게 하는가? 도대체 그 대가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자세로 섬기면서 오직 주님께서 그의 희생적인 섬김에 보상을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면서도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생에 허덕이는 종들에게 성경 골로새서 3장 23-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 우리는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힘써 섬겨야 합니다.

모범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길 기원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 묵상]

“목회자 충격 보고서”(피터 칼도르& 로드 불피트 지음)란 책을 보면 20개 교파, 7,200개 교회 목회자, 성도 430,000명 설문조사 자료가 나옵니다. 탈진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목회자들은 누구인지 한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 가지가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1) 젊은 층에서 스트레스와 탈진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탈진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몇 가지 사실을 반영해 줍니다: 청소년 사역이 쉽지 않다는 사실,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사실, 긴장된 문제를 대처하는데 미숙하다는 사실.

(2)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도자들의 탈진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4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서 탈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과 사역이라는 이중의 책임은 지도자들의 부족한 시간과 에너지를 양쪽에 쏟아 붓느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칼로드 & 불피트).

여기서 말하는 “탈진”이란 무엇입니까? “탈진은 강한 애착이 가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또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는 데서 비롯된 피로와 절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프로이덴버거). “탈진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일, 인생,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며 무력감과 절망이라는 느낌을 동반한다”(마스라치). 사탄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탈진케 하므로 무력감과 절망감을 갖게 하므로 강한 애착이 갔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탈진케 하는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로 하여금 탈진케 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란 제목 아래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3가지 요소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요소는 만
남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십시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을 한 2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유익한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를 끼치는 만남.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1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그 중에 산발랏과 게셈이 사자를 느헤미야
에게 보내어 서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적용
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이 마무리(완성)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중대한 위기는 승리
이후, 축복 이후, 부흥 이후, 또는 일이 잘 진행되어 가던 중에 닥쳐오는 경우를 종종 보습
니다. 예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극적인 결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사건,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서 죽기를 구했습니다(왕상19:4). 엘리야의 이런 좌절은 성공 바로 다음 순간에 찾아왔습
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
전10:12).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다 짓고 이젠 성문에 문
짝 만 달면 되었던 때에 그들의 대적인 산발랏과 게셈이 사자를 보내어 “오노 평지 한 촌에
서 서로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2절). “오노 평지”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으며 예
루살렘에서 20마일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박윤선). 그런데 왜 이 장소에서 산발랏과 게
셈은 느헤미야를 만나 자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를 촌
으로 유인하여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해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손을 약화시키려는 계획
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거룩한 무리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성도들의 교통과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므로 결국은 한 지도자를 해하므로 전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리
고자 합니다(박윤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을 제거하면 전체 조직이 무너집니다(화이트). 전쟁
문맥에서 말한다면 “지휘관을 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는 것이며
또한 지금 미국에서는 알카이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생포 혹은 암살의 명령을 내
렸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가는 이 마당에 성벽 재건에 대한 반대도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반대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말하면 오늘 본문 6장에
서는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개인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젠
대적자들이 이 완성 단계에서 지도자를 해하므로 일 전체를 중단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입
니다. 여기서 존 화이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도자 역할이란 평상시에도 심한 정
신적 압박감(stress)과 긴장을 수반한다”(화이트).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인신공격의 표
적물이 될 때 그 정신적 압박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압박감에서 압박감으로 이어
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부르심이 또한 능력에서 능
력으로 이어지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점입니다(화이트).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능력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계셈이 만나자고 하는 것이 실상은 자기를 해치고자 함임을 알았습니다(2절). 가끔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바보처럼 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갈수록 비둘기처럼 순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균형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음모를 분별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분별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빌1:10),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4:1). 그러한 분별력 가운데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만남 제안을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6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너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큰 역사”, 즉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정지 될 수 없기에 대적들의 만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정신이 딴 데로 쏠리며 우회를 했다면 그를 좇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가 없는 대규모 계획(프로젝트)은 목표가 없는 계획이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도자는 꼭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하며 말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산발랏과 계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계속 사자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큰 역사를 멈출 수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목표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Conviction)을 가지고 자신 있게(Confidence)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계이 있더라도 일관성(Consistency)있게 일을 추진해 나아갔습니다. 한 주석을 보니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ecisions based only on opinions might be reconsidered, but decisions based on convictions must stand unless those convictions are changed” [생각(opinions)에만 근거한 결정은 다시 재고해야 하지만 확신(convictions)에 근거한 결정은 그 확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꼭 서있어야 한다](주석).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이 큰 일에 충성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인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다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요소는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6절을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과 계셈이 사자들을 통해서 네 번이나 “서로 만나자”고 제안 했지만 느헤미야는 목표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추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했을 때 산발랏이 또 다른 다섯 번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5절). 산발랏은 느헤미야 암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두 번째 음모로 악성

루머(소문)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악성 루머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마침내 그가 직접 왕이 되려고 합니다(6-7절).’ 이러한 산발랏의 중상모략은 치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소문이 수산성에 이르러 아닥사스다 왕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미칠지도 모른다고 가정해 볼 때 이는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수산 궁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문의 진위를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와 유다 백성들의 목표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여러 달 동안 중단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발랏의 소문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이와 같이 그는 엄청난 소문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절에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편지를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았기에 여러 번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화이트). 그 결과로 이 편지는 헌담과 구설을 점점 더 퍼뜨리는 원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이르기까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6절).

텍사스 주립대 광고학 박사과정에 있는 김호규 씨는 “10대 마케팅, 뿌린 대로 거두리라”란 제목 아래 1년에 2천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룹인 10대 젊은이들 어떠한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연구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보면 블루 퓨전(Blue Fusion)사의 조사에 의하면 27%의 젊은이들이 광고가 자신들의 구매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광고인들이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의 파워(word of mouth power)를 실감할 때가 왔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문조사는 90%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친구로부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 소문의 파워가 놀랍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있죠? 소문이 놀랍게 멀리 빨리 퍼짐을 이룹니다(말조심하라는 뜻). 그리고 또 다른 속담인 “말이 말을 만든다”, 즉 말은 옮겨지는 동안 모르는 사이에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한다는 뜻입니다(인터넷).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악성 루머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걸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비방하며 악성 루머를 퍼트리려고 교회 자유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존 화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얼른 자기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에 대해 민감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예민하다. 우리는 또한, 못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비방을 곧이들어 믿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사태에 대해 두려워한다. 달힌 문, 옆으로 외면한 얼굴들, 야비한 편지들, 차가운 태도, 이 모든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일의 손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손실이다”(화이트).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손실”은 절대 있을 수 없기에 그는 산발랏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의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8절).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중상모략에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산발랏이 만들어 낸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방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긴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변명이나 해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동원). 어느 한 청교도는 자신이 중상모략의 범주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

을 때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자기 행동의 원칙을 한 3가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1) 첫째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소문인가?’, (2) 둘째로, ‘내가 이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3) 셋째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 형제들에게 유익한가?’(이동원).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이 자기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 자기를 “해코자 함”(2절)을 알았고 또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것도(8절) 결국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며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큰 역사,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정지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사탄의 종들인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그 성벽 재건을 어떻게 서든지 정지(멈추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봅시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악성 루머를 무시할 수 있게 해주시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공될 때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조직하며 감독하는 자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패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걸잡을 수 없는 악성 루머가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와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성 루머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과 성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손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패커). “하나님,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게 하옵소서. 맡겨 주신 그 일을 다 하여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이동원).

존 화이트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보통, 반대 세력을 만들어 놓기 마련이다. 성공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심하다. 만일 그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대는(그것이 인간적인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실망과 공포의 감정으로 나타나든) 사탄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반개의 포악성 정도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의 중요성과 실현 임박성을 나타내 준다”(화이트).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반대의 원천(사탄)과 반대의 의도(일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서 절대로 눈을 떼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자 우리의 손의 힘을 빼려고 잘못된 만남, 거짓된 소문, 또한 두렵게 하고자 하는 대적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고 목표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는 이 큰 역사를 멈추어서(정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오게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소문과 두려움을 진실 됨과 하나님 경외하기로 극복해 나아가길 기원하면서)

파워 리더십

[느헤미야 6장 10-14절 말씀 묵상]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이란 책을 보면 “초점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유능한 리더에게 요구되는 초점을 우리는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를 한 3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초점의 70%는 장점에 뒤야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한 유능한 리더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이 잘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두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2) 둘째로, 초점의 25%는 새로운 일에 뒤야 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자기에게 항상 변화를 주면 개선하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점에 관련된 새로운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리더십에서, 성장하기를 그만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3) 마지막 셋째로, 초점의 5%는 약점에 뒤야 합니다. 약점을 완전히 피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쇠는 가능한 그것을 최소로 만드는데 있으며, 리더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잘하지 못하는 일을 위임할 줄 아는 자입니다(맥스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꾸만 자기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점조차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개발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고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한 점을 다른 이에게 위임하기도 꺼려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초점을 맞춘 지도자(Very Focused Lead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초점은 무엇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중건)하는 일 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충성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0-14절 말씀 중심으로 “파워 리더십”의 3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파워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파워 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는 용기(Great Courage)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 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이란 책의 “용기”란 장을 보면 미국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에디 릭켄백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계 1차 대전 전쟁이 끝날 때까지 300전투시간(미국 조종사 중 가장 많은 시간임)을 기록했으며, 134차례 적기와 만

나, 26대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의 훈장을 비롯 8개의 특별 공로 십자가 훈장과 프랑스 레종 도뇌르 훈장(Legion of Honor)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는 언론으로 하여금 ‘미국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American Ace of Aces)’라는 칭호를 붙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전투에 보여준 그의 용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란 필요 없는 것입니다”(맥스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큰 용기를 보여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목상한바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세 번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데 충분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산발랏과 게셈이 사자를 보내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한 촌에서”(2절) 만나서 그를 암살하고자 한 것이며(1-4절), 두 번째 시험은 6장5-9절 말씀에 나오는 악성 루머를 통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므로 낙심시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역사를 정지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 6장10-14절에서 나옵니다. 그 시험이란 거짓 선지자 스마야란 인물의 위협적인 예언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위협적인 예언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밤에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숨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마야는 암살 기도가 임박하니 함께 성전에 피하자고 느헤미야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성경 잠언 27장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를 “해코자 함”을 알았습니다(느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스마야 선지자가 대적들이 느헤미야 당신은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숨기를 거부하며 생명 보전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엔 좀 타협해서 이번 위협을 잘 넘기기 위해 잠깐 숨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중건하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더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생명이 연장되어야지 주님의 일을 좀 더 오래 많이 할 수 있지 하면서 합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 첫째로, 그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1절을 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자기가 비겁함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화이트). 성경 잠언24장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2) 둘째로,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느

헤미야는 성전에 숨는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라 해도, “일종의 신성모독 행위”(화이트)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지 않겠다고 스마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보존하지 않았기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11절). 이것은 느헤미야의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박윤선).

여기서 우리는 “파워 리더십”의 한 요소인 “용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큰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가 아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던 불안하던지 혹은 상처를 입던 시간에 옳은 길을 하고자 하는 확고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패커). 화이트 목사님은 “용기의 학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과업이 시작되기 오래 전, 아닥사스다 왕에게 첫 요청을 해야 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고백하였다(2: 2). …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용기의 학교에 등록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가 몇 개월 후,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랴?’고 외쳤을 때는 이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때였다”(화이트). 리더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맥스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옳은 일을 하게 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파워 리더십”의 또 두 번째 요소는 분별력(Great Discernment)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2절을 보십시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spiritual discernment)이 아닌 영적 혼동(spiritual confusion)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인드 토조 목사님은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That Incredible Christian) 보면 “영적 미몽”(spiritual illusion)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오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 거짓은 참을 모방하는데 너무나 능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하게 된다. 오늘날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 인지를 구별하려면 매우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 함께 어울리면 아주 편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 그는 말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호감을 준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때로는 사탄의 사자일 수 있다. 반면 거칠고 직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피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영적 위험성과 영원한 멸망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 있다.” 느헤미야에게 임한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 유혹’(spiritual seduction)입니다(패커). 즉, 두려움으로 느헤미야를 유혹하여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탄의 계략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진척되는 단계마다 더욱 야비한 형태의 공격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화이트). 처음 느헤미야 4장1-3절에서는 조롱과 공개적인 비웃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무장 공격을 꾀한다는 소식이 들려 왔었고(4:7-12), 그러고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제의로 위장된 암살 음모가 이어졌습니다(6:1-3). 그 다음엔 6장5-6절에서 나타난 중상 모략적 비난이 담긴 공개서한도 나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단계에서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

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자 했었습니다(6:10-13).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기 바로 전에 임한 이 마지막 단계인 ‘영적 유혹’은 상당한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이미 우리는 느헤미 6장 2절에서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게셈이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만나고자 함이 자기를 해하고자 함을 분별하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때 자기를 암살할 계획을 분별하였다는 것은 오늘 본문 6장 10-14절에 비교할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때는 대적들이 사자를 보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적들이 뇌물로 종교 지도자인 스마야 선지자를 사서 느헤미야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교회의 재건을 멈추게 하고자 거짓 목사를 뇌물로 사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보내어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므로 성도님들에게서 신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제일 먼저 분별한 것은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스마야가 “두문불출”, 즉 집 안에 갇혀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느헤미야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마야 선지자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암살 기도가 임박하지 함께 자기랑 하나님의 전에 숨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스마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12-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 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삯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이리와 같은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온다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한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삯꾼 선지자’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 숨는다면 그러면 양떼들이 유다 백성들은 어찌되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반면에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 생명(만)을 보전하겠느냐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11절).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은 성경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느헤미야는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민수기 18장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직임을 맡기시면서 “... 거기(장막 혹은 성전)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찌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스마야는 자기 자신이나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닐 찌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숨자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예레미야 23장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거짓 선지자는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유다 백성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음을 보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했습니다. 왜 이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유혹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결국은 느헤미야를 하나님에게 범죄케 하며 유다 백성들 앞에서 비방하려고 도비야와 산발랏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12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뇌물이 선지자의 눈을 어둡게 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출23:8).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헤미야의 분별력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성경적 생각(Biblical mind)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평가하는 판단력을 길러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적당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패커). 느헤미야의 그 적당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기준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기에 그는 진실 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리더십’의 요소는 기도(Great Prayer)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 노아다 외에 “그 남은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모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큰 압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을 크게 존중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평신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은 거짓 목사들의 음모단이 대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느헤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정지케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리켜 “전보기도”(telegraph prayers)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러한 짧은 기도는 느헤미야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한 예로 느헤미야 6장 9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의 삶은 생활화가 되어 순간순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 나아간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의 “기도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기도”란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두려운 고립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두려움 없는 대화로 옮겨오는 것이다. ... 마음의 기도란 일상의 많은 파도 밑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시냇물 같은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안에 살아가며, 고독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열린다.”

주님 중심된 꿈을 가진 지도자로 세움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용기와 분별력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느헤미야 6장 15-19절 말씀 묵상]

“기름부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교적 의미에서 기름부음은 두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어떤 물체에 기름을 발라 성별시키는 것입니다(출30:23, 레8:10-12).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출29:7)과 선지자(왕상19:16)와 왕(왕상1:39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붓는 자가 누구이든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와에게서 온 거룩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개념이 생겨났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인터넷).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기름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는다는 의미다. 고용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이런 말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피터슨). 제 개인적 생각은 기름부음을 구한다는 것은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름부음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기를 구했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이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야 합니다(갈2:20).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기름부음입니다. 즉, 기름부음은 성령의 임재 또는 내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요일 2:20, 27). 그러나 더 큰 유혹(위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다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잘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피터슨) 기름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과 은혜임과 동시에 큰 위험과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일이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일을 위해 예배가 도구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예: 사울처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부음을 빙자하여 우리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존귀케 됩니다. 그러한 신격화하는 일(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아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16절을 보면 성경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한 3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 공모(Conspiracy), (2) 완공(Completion), (3) 자신감(Confidence).

첫째로, 공모(Conspiracy)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7-19절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역사(The Unceasing Works of Satan)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여기서 “그 때에”란 말은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던 기간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전을 가리킵니다(15-16절).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17-19절은 15-16절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5-16절 이전에 써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5-16절 후에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한 가지 추측은 예루살렘 성벽 완공 후에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인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유다의 고위층 인물들도 산발랏과 도비야와 밀통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낙심시키려고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서신을 계속 주고받았기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예루살렘의 일을 훤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를 볼 때에 느헤미야 2장10절 말씀에 근거하여 도비야가 사마리아의 산발랏 밑에서 일했던 관리로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했었던 적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 도비야와 또 그의 아들과 유다 고위층의 딸들과 통혼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십시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한단도 베레가의 아들 므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베레가의 아들 므슬람”이란 인물은 유다에서 중요한 관리였을 것입니다(WBC). 느헤미야 3장4절과 30절을 보면 “므슬람”이란 인물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하는 일에 느헤미야의 견고한 지원자처럼 여겨집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 중에 그의 대적과 함께 공모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관하여는 느헤미야에게 좋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느헤미야에게 관하여는 원수들에게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19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 또한 원수 도비야는 편지로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19절 하반 절).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끊임없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탄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진척되는 단계마다 더욱 야비한 형태의 공격을 취한다는 것입니다(화이트). 처음에는 조롱과 공개적인 비웃음이었고(4:1-3)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무장 공격을 꾀한다는 소식이 들려 왔었고(4:7-12) 그러고는 대화로 해결하지는 제의로 위장된 암살 음모가 이어졌습니다(6:1-3). 그 다음엔 중상 모략적 비난이 담긴 공개서한도 나왔고(6:5-6)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단계에서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6:10-13). 이러한 와중에서 2장10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도비야는 꾸준히 유다의 고위층 인물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는(통혼) 전략을 써가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송가 342장이 이 질문의 답을 줍니다: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둘째로, 완공(Completion)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십시오: “성 역사가 오십이일 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엘룰월 이십 오일”은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9월20일정도가 됩니다. 이 역사는 7월 말 즈음에 시작하여 9월 즈음에 완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를 처음으로 들었던 때가 “기슬르월” 즉 우리 달력으로 11-12월 즈음이었습니다(1:1).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계획을 아뢴 때가 “니산 월” 즉 우리 달력으로 4개월이 지난 3-4월 즈음이었습니다(2:1). 그런 후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수산 궁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 기간이 한 2, 3달이 걸렸으니 4-5월에서 6-7월 즈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간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한 52일 기간보다 더 오래 걸려서 수산 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느헤미야는 온 것임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제일 중요한 완공 비결은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완공은 52일밖에 안 걸렸지만 그 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문제를 처음 들었던 “기슬르월”, 즉 우리 달력으로 11-12월부터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예루살렘 성벽 중건의 계획을 아뢴 “니산 월”인 3-4월까지 그는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이 훼파하고 성문 들이 불에 탔으며 그 남은 자들은 환난을 당하여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의 형제인 하나니(1:2-3)에게 전해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하”였던 느헤미야(1:4),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의 계획을 아뢰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사람인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것보다 간구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이동원).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더 의식하였기 때문에 보이는 그 당시 최고의 힘과 세력을 자랑하는 메대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바라보기보다 왕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한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 이유는 우리의 태신자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태신자들의 마음을 여시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사도행전 16장14절 말씀입니다: “... 주께서 그(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2) 완공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살아 있는 기도, 행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

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내 하나님 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도우신 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하였습니다(2:8, 18).

(3) 완공 비결은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지시킬 수 없는 혹은 멈추게 할 수 없는 지도자(an unstoppable leader)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후에 대적들로 말미암아 마음과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적 또는 초점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맞추고 마음과 주의를 딴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3 C's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Conviction(확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 승리의 확신, 등등, (2) Confidence(자신감): 자기에게 근거한 자신감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자신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는 그의 신실하심안에서의 자신감, (3) Consistency(일관성):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한 길을 걷는 삶.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4) 완공 비결은 탁월한 위기관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 가면 갈수록 대적들의 공격은 더욱더 아비해지고 강해졌습니다(조롱, 연합전선 구축하여 무장공격 소식, 위장된 암살 음모, 중상모략, 거짓 선지자의 출연). 이러한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의 탁월한 위기관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그 위기를 이겨냈고, 또한 기도의 행동으로 파수꾼도 세워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도전하므로 위기를 극대화하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위기도 모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위기 관리자였습니다.

(5) 완공 비결, 인내 혹은 견딜입니다.

52일이란 기간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면했던 어려움이나 위기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인내와 견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의 꿈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하면서 저는 그들을 도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 파송하는 그림을 마음이 그리자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들과 위기를 만나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6:16).

마지막 셋째로, 자신감 (Confidence)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즉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은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완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 모든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완공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모든 대적들과 사면 이방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성벽이 완공되었음을 모든 대적들과 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의 자신감을 잃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가지 나무들을 다 싹둑 잘라 버리시므로 말미암아 자신만만하던 자세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던지 낙심시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낙심했다는 말은 성경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낙심했을 때에도(4:10ff.) 지도자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self-confidence(자신감)에서 God-confidence(하나님 신뢰)로 신뢰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자신감을 잃게 만드십니다. 성경 여호수아 2장 9-1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해리 블랙가비와 클로드 V. 킹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Experiencing God)란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임무들은 항상 “하나님 크기”(God-sized)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확신에 위기를 가져온다(블랙가비 & 킹). “하나님 크기”의 임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임(불순종).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끌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 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블랙가비 & 킹).

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크기’의 임무를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느헤미야는 어떠한 대적의 위협과 공모 가운데서도 그 임무를 믿음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대적들이나 사방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자신감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크기’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섬기길 기원하면서)

일군을 세워라!

[느헤미야 7장 1-3절 말씀 묵상]

교회 안에는 18가지의 봉사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1) 소대장형- 언제나 선두에서 뚱기는 성도, (2) 먹거리형- 일할 때는 요리조리 빠지고 먹을 때는 썩살같이 나타나는 성도, (3) 자라목형- 집에서는 기고만장, 교회에서는 움츠러드는 성도, (4) 미꾸라지형- 핑계대고 잘 빠져나가는 성도, (5) 천진난만형- 순종하며 할일을 열심히 찾는 성도, (6) 주둥아리형- 입으로만 봉사하는 성도, (7) 재수좋은형- 빗자루 방금 잡았는데 막 도착한 목사님께 칭찬 받는 성도, (8) 가정파괴형- 봉사를 핑계로 가정에 소홀한 성도, (9) 사기진작형- 일꾼에게 줄 먹거리를 가져오는 성도, (10) 뒤로쳐져형- 뒤에 안주하려는 성도, (11) 시간망각형- 시작했다하면 불기둥의 인도가 필요한 성도, (12) 중도하차형- 중간에 말없이 사라지는 성도, (13) 눈먼봉어형- 현장에 생각 없이 왔다가 항상 걸려드는 성도, (14) 마르다형- 간식과 식사를 준비하여 즐겁게 하는 성도, (15) 엔돌핀공급형- 일보다 옆에서 즐겁게 웃겨주는 성도, (16) 공구류상가형- 필요한 자재, 공구를 챙겨주는 성도, (17) 먹을복없는형- 간식 먹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항상 빠지게 되는 성도, 그리고 (18) 충성파형- 끝까지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꾼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일군을 세워라!”라는 제목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후 느헤미야가 세운 일꾼들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워진 일군들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1절을 보십시오: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 6장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였지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역사가 오십이일 만에” 끝나 성이 완공 되었을 때(6:15) 오늘 본문 7장 1절에 와서는 느헤미야가 성 문짝을 달았던 것입니다. 성문을 달은 후 제일 먼저 유다 백성들의 대표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 봉사에 종사할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 말로 한다면, 도시를 재건한 후 교회에서 성길 목사님과 찬양팀과 안내위원을 세웠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예배자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찰스 헨샴(F. Charles Fensham)은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1, 2, 3절에서 나오는 ‘세우다’ 혹은 ‘임명하다’라는 단어 ‘appoint’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3 다른 뿌리(root)가 있다고 합니다: 1절의 “세운 후”(appointed)는 the root “pqd”로서 “probably made by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사람들의 대표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의 대표들이 임명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다스리게 하였는데”(put in charge)라는 단어의 뿌리는 “swh”로서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3절에 나와 있는 “appoint”란 단어의 뿌리는 “md”로서 총독 느헤미야가 2절에 세운 두 사람이 세운 파수꾼들이란 말입니다 (헨).

여기서 “문지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즉 우리는 문지기 신앙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인터넷).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문지기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지기 신앙으로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지기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입을 지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들여보낼 사람을 들여보내고 막아야 할 사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문지기 사명입니다.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생활에서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중 하나가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약1:27). 악하고, 속되고,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망이 되지만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회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을 들여보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는 예배자들로 문지기 신앙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 모양은 거룩한 성도인데 생활은 마귀가 하는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일꾼들은 보조자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서 뛰어난 자라.” 백성들의 대표들이 1절에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2절에 와서는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함께 다스릴 두 명의 자기 보조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니”와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니”란 이름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이름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아우 (“내 아우”)라고 하였는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 1장2절에서 유다에서 수산궁에 와서 느헤미야에게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1:3). 이는 자기의 조국에 대한 정직과 사랑을 지닌 자였습니다(헨리). 다른 한 사람은 “하나냐”인데 그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영문”이란 성전 주위에 있는 요새로서 제일 쉽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북쪽 성벽을 파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2 가지로 느헤미야가 적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된 자이며 또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보조자의 제일 중요한 자질은 충성(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충실합니다. 그러나 만일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옳무에 걸려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잠언29장 25절을 보십시오

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워진 일군은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가 두 보조자인 자기 아우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성된 하나니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세운 후 이 두 보조자들이 파수꾼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3절).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문을 열고 닫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3절). 파수꾼의 역할 중 하나는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들 닫아야 하는지 알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을 아침에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문지기가 성문을 열어 놓는다면 대적들이 들어 왔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말 것이며 또한 파수꾼이 없이 밤에 문을 닫아 놓는다면 원수들이 몰래 성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과 유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 종류의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파수꾼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특별한 위치에서 순찰하였고 또 다른 종류의 파수꾼들은 자기들 집 근처에서 파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니가 세운 파수꾼들에게 자기들이 세운 성벽 지역을 파수할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성문에 문지기들과 성벽에 파수꾼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시는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62장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는니라 ….”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파수꾼은 주의 종들이며 또 한 성도들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군대 용어로 '전투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안에서 또는 통해서 어떠한 일군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목회자들, 또한 문지기의 신앙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총성된 지도자들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들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군들로 세움 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일꾼을 세우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기도하면서)

말씀의 부흥 (I)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당황, 슬픔, 쇼킹의 차이”를 아십니까? “당황 - 설교본문 히브리서가 구약인줄 알고 구약성경 뒤적일 때, 슬픔 - 성경본문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독 하자며 나부터 시킬 때, 쇼킹 - 성경본문 읽으려고 폼는데 한문성경 일 때”(인터넷).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뭄의 현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리적 조작을 통한 감정 유발이 주목을 받는 시대, 말씀의 행함보다 말 많은 시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내년도 교회 표어를 “주 말씀 향하여”로 정했습니다(시119:32).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위에 견고히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역경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부흥 (I)”이란 제목을 걸고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3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기를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케 하신 후 이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의 재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13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학자로 성경 에스라 7장10절을 보면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에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포부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화이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재건을 위하여 말씀의 부흥을 수문 앞 광장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광장에 몰려와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홍보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

렘 성이 재건되었으니 축제 분위기로 전환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동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살의 위험가운데서도 지켜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배웠으므로 예루살렘 성 재건 후에 잔치를 벌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학자 에스라의 행함이 있는 말씀 순종의 삶을 보고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타당한 이유는, 성령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삶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갈급함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화이트).

요즘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현상을 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느끼며 보고 있습니까? 교회, 설교자가 ‘우리를 재미나게 해주길 바라며, 우리의 지루함이나 나태함을 제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패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very entertaining’(매우 재미나는)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합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사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까.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정까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2-3절을 보십시오: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강론해 주기를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약 여섯 시간 정도(이동원)]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봉독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40분 설교도 듣기가 쉽지 않은데 6시간 동안이나 성경말씀을 목사가 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뜨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들을 회중이 몇 명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사모님의 말입니다: “나는 목회는 이름 기억하기와 시간 지키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 이름 외우기로 나를 감동시키는 남편이지만 시간 지키기로 점수를 잃는다. 예배시간이 촉박한데도 50분 이상씩 설교를 해서 애간장을 태우기를 23년이다. 사모님은 왜 그러세요. 나는 5분만 더했으면 하는데요. 남편은 당신만 몰라주지 다 좋아한다. 소리 없는 대중의 눈빛과 아내의 진언에 귀 기울이면 좋으려만... 긴 설교의 특성을 아는 성도들은 30분 설교를 요청하려면 목사님 짧게 15분에서 20분만 해주세요. 특별 주문을 한다. 그러면 30- 40분이니까... 나는 훌륭한 강사는 시간

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당신이 해봐라 …”(인터넷). 설교를 하면서 길어질 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시간이나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듣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고 진리에 대해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납니다(이동원).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5절을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살전 2:1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를 표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우리교회도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봉독 할 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읽고 깨닫도록 설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서서 있었습니다(8:7). 즉, 그들은 “새벽부터 오정까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3절). 시간적으로는 약 5,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30-40분도 아니고 약 6시간을 일어서서 성경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입니다. 결혼 전 중학교 친구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달라고 부탁해서 한 번 선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다리 아파 진짜 혼났습니다. 결혼예배가 한 1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긴장 상태로 반듯하게 서서 한 1시간 서 있었는데 결혼예배 후 다리가 제 다리 같지 않더군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것은 제 결혼식은 1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었는데 들러리를 섰던 제 친구들은 오죽했을까 생각합니다. 한 친구는 양복을 평생 그렇게 오래입고 서있으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친구들 결혼 들러니 안서겠다고 말하더군요. ㅎㅎ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시간이 아닌 약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히 사모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7일)동안 매일 약 6시간씩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8:18). 물론 에스라가 그 때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매일 그렇게 오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길 원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는지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지방을 지나가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청정했으며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기에 분명 예사 죽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 맛있는 먹이를 던져 줍니다.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것이지요. 갈매기들이 이 맛있는 먹이들을 받아먹다가 그만 자연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철이 지나

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바닷 속 많은 먹이를 놔두고 여행객들의 음식만을 기다리다 굶어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은 때론 너무 달콤하여 우리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양식을 잊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인터넷).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겨하길 기원하면서)

말씀의 부흥 (II)

[느헤미야 8장 6-9절 상반 절 말씀 묵상]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세상입니다. 요즘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원래 이 말은 보험에 들면 사람이 조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면 교통사고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보험에 들면 건강에 크게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모컨에 센스기능이 다한 것처럼 양심에 감각이 둔해짐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뭔가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인터넷).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캐논(cannon)이라고 합니다. 그 원뜻은 자입니다. 성경 아모스 7장 7-8절에 나오는 말씀을 빌려 표현하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란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실에 추를 매달아 수직을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제 멋대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인터넷). 그래서 성경 사사기 21장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의 부흥 (II)”이란 제목을 걸고 말씀의 부흥에 대한 싸인(signs)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싸인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홍성건 목사의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홍성건).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찬양”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그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할 때에 그 출발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는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그의 은혜, 사랑, 거룩, 자비하시며 선하신 위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 찬양하는 에스라와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 에스라는 “광대하신 하나님”, 즉 크신 하나님(1:5, 4:14)께서 그의 크신 능력(1:10)으로 이 큰 역사(6:3, 4:19)인 예루살렘 성 재건을 이루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6:16).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고자 수문광장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에스라 3장11절을 보십시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시므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전 지대가 놀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6절 후반 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참된 말씀의 부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문광장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찬양(“송축”)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큰 역사, 즉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셨음을 인정하였기에 “아멘 아멘”한 것입니다. 그런 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아 에스라의 찬양에 동참하는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겸손과 경외심 가운데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을 성취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므로 그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 선하심,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7-8절을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달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게 하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후 레위 사람들이 수문 광장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7절).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2)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하며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세 율법을 해석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모세 오경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을 당시의 히브리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에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 속에 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책의 뜻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패커).

(3) 성경 공부의 목적은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존 밀턴 그레고리(John Milton Gregory)가 쓴 “가르침의 절대법칙 7가지(The 7 Laws of Teaching) 중 첫 번째 법칙인 “교사의 법칙”을 보면 그는 “가르침”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르침이란 제일 간단하게 말한다면, 경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내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해하여 얻은 진리를 배우는 자의 생각과 이해력에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달”은 뭔가 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의 경험을 생산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레고리는 “교사”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마음과 분명한 이해력 가운데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레고리).

셋째로,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패커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충격을 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은 감정에 압도당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은 눈물은 어느 특별한 현실의 분명한 자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부흥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자비와 그가 우리의 개인적인 죄들인 사악, 부끄러움, 무례함, 자살적인 어리석음의 분명한 자각입니다(패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언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죄를 들춰내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아모스 8장11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위선자들에게 필요하다. 위선은 성결을 위장하는 것이며, 위선자 또는 무대 연기자는 도덕가보다 한 술 더 떠 종교의 의상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다. 그는 경건의 형식은 자처하지만 능력은 부인한다(딤후 3:5).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안은 어둡다. 그는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춘다. 위선자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거룩을 꾸미는 화장을 한다. 그는 겉으로 선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할 수 있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박아놓고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욕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의 양심에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

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로지 귀뿐이다. 그는 교회 헌신에 열심이며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한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 오히려 가면으로 삼아 이용한다. 그는 거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속을 조사해서 혹시 거기서 아무 회개거리도 찾아낼 수 없을지 살펴보라”(인터넷).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암8:11). 지금 이 시대는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처럼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굽게 행하므로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합1:4). 이렇게 율법이 해이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3:2).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부흥은, "하야"인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부흥 항상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연약해진 심령에 불을 붙여, '다시 뜨겁게 되는 것'이 부흥이다.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의 힘

[느헤미야 8장 9-12절 말씀 묵상]

생명을 가진 곤충가운데 개미처럼 신비한 곤충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개미는 그 작은 체구로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먹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죽은 메뚜기를 질질 끌고 가는 개미를 지켜보던 어떤 관찰자가 개미의 몸무게를 달아 보았는데 놀랍게도 개미는 무려 자기보다 60배나 더 되는 것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던 말입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입니다(인터넷). 성경 잠언 6장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와 우리를 비교하면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은 개미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빌4:13).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없는(powerless)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 성경구절이지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진리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 ‘못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등등이란 말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속으로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너무나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충분한 능력의 공급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허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듣고 또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들의 죄가 들춰지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의 자각(conviction of sins)이 있으므로 울었습니다. 에스라도 이러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 에스라 10장1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

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각으로 인하여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현대 말로 한다면,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성경공부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은 주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가에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비춰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거울을 보아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안의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잘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심리적인 기술로 울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심리 조작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감정의 물결이 모든 회중을 사로잡을 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을 때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적 각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화이트). 많은 때에 우리 설교자들은 성도들에 내적각성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인 눈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말씀을 들으므로 죄의 자각으로 인한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설교자들의 심리 조작으로 말미암은 감정(눈물)일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눈물은 전혀 한 심령의 내적 각성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12-13절 상반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 그러나 과연 회개의 눈물, 죄를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성경은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인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입니다.

(2) 둘째로,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11절을 보십시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왜 수문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였던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 잘 모르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파커).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죄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 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 등등.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 “틈”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들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부족함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길 때에 마음이 기쁠 리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여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부족한 죄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으십니까? 조만제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근심을 이기는 슬기”가 있습니다(인터넷): “세익스피어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역설한 것처럼 근심이 지속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근심은 건강에 지장을 주어 생명을 단축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 ... 널리 알려진 이솝도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고 말하였다.” 맞습니다. 근심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몇 시간동안이나 근심하면서 울고 있다고 상상해 볼 때에 그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울면서 근심하고 있었던 날이 “주의 성일”이었기 때문입니다(10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사가 “이 날은”이 생각합니다: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들춰지므로 근심할 수 있고 또한 근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도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3)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잃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깨닫게 했던 레위 사람들을 권면을 듣고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잃어 들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12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 근심을 사라지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모세 율법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므로 회개의 눈물과 근심을 가져다줍니다(롬3:20). 그들은 모세 율법으로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갈라디아서 3장24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자각, 즉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갈3:24). 즉, 모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며 그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밝히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중단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이 찢려 죄를 회개 하는 가운데 눈물과 슬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회개의 단계는 시작단계이지 결코 최종의 단

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최종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사함 및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마음에 모든 슬픔과 근심을 주님께서 없애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속죄 날을 지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루시므로(레16장) 말미암아 그들이 죄 용서를 받으므로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 속죄 날 다음에 초막절이 옵니다. 그 초막절은 1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운 축제를 가집니다(레23:26-44). 중요한 순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자각(conviction), 씻김(cleansing), 그리고 축제(celebration).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듣고 밝히 알았다는 말은 죄의 자각, 씻김, 그리고 축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종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둘째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마음에 근심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영조 목사가 쓴 책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를 보면 “참된 힘”이 무엇인가 한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넷 번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인터넷): "넷째, 참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1절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도 진실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죄의 자각, 씻김, 축제!)

말씀 적용 성경공부

[느헤미야 8장 13-18절 말씀 묵상]

2003년 한국경기침체로 중장년층 실업이 급증하면서 생긴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사오정'(45세 정년)이란 말이 유행했는가 하면, 청년층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 조기 퇴직). 원래 '사오정'은 서유기에 나오는 세 번째 삼장법사의 호위과물(?)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오정은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 '생각패턴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 듣고 딴소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본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간음하다 한 여인이 붙잡혔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옥자지껄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바닥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흠어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 왈 ‘왜 가는 거유?’ 사람들... ‘음... 돌없는 사람이 치라고 해서’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냐, 저기 쓰는 것 보라구! 그 여자 집에 간 남자들 이름 쓰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기겁하고 막 떠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오정이 손에 돌을 들고 막 달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오정에게 물었다: ‘뭐하는 거야?’ 그러자 사오정: "저기 스테반 아니에요?"(인터넷)

이 성경에서 찾아본 사오정 시리즈가 우리를 좀 웃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웃을 일이겠습니까.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3-1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적용 성경공부에 대한 원리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적용 성경공부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 이튿날”, 즉 느헤미야 8장1-12절까지의 첫날인 칠월 일일, 주님의 성일이요 안식일이 하루 지난 그 이튿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더 밝히 알고자 또 모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주일 11시 예배 때 온 회중이 모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교회의 지도자와 가정의 가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성경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갱신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성일인 첫 날에 모세의 율법을 자그마치 약 6시간이나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불순종에 대하여 거꾸러져 애통하며 울”었던 이들은 이러한 갱신을 통하여 참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개혁이 뒤따릅니다. 즉, 회개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 개혁은 뒤를 따르게 됩니다(화이트).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영적 각성, 회개의 눈물과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불순종이 삶을 회개하므로 청산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학사 에스라 주위에 다시 모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신명기 8장3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동원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 속 깊이 건드려지지 않고는 내 영혼은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비틀거리며 달려가는 사람들의 행렬, 이것이 부흥입니다”(이동원). 저는 이러한 부흥의 행렬을 꿈꿉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교역자부터,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또한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화이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적용 성경공부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8장 14절을 보십시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찌니라 하였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 주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막절”무엇인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숙곳”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속죄일 후 5일째 시작이 되며 7일간 계속됩니다. 속죄일은 경외일로 그 분위기가 엄숙한 반면에 축제일인 초막절은 한결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초막절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일은 히브리어로 '수카'라 부르는 오두막 혹은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막을 만드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레 23:43)(인터넷).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박윤선). 그래서 장막절(초막절)을 지키고자 초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료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15절, 명령)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들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16절, 순종).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볼 때 그때로

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입니다”(이동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붙들려고 달려가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할 때에 성경공부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성경공부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성경공부의 역사가 금년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적용 성경공부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적용에 큰 즐거움을 맛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 주위에 모였던 지도자들이 그 율법에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 초막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므로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말씀 순종에 크게 즐거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의 다른 중요한 의미는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였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도 불립니다. 초막을 상기하는 것과 추수를 감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기쁨의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계속되는 계절 가운데 수확을 주시는, 또한 조상들로 하여금 역사의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진정한 기쁨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인터넷). 초막절을 기쁨으로 지켰던 “이유는 그 기념행사에 의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계시된 여호와와 사랑과 능력을 회상하며 더욱 믿음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또한 그 광야에서 언약의 땅에 당도하여 그곳의 열매를 맛본 후에, 추수기가 되면 종려나무 가지와 앞사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도록 되어 있었기에(레 23:33-43)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화이트). 특히 이렇게 성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번이 처음 이였기에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즐거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율법 순종의 기쁨 이였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제8일을 히브리어로 '심하트 토라'라 부르는데 '토라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1년 중 가장 엄숙한 예식이 회당에서 거행되는데 토라의 모든 두루마리가 궤에서 꺼내어 회당 주변을 7번 혹은 그 이상 행진합니다. 어린이들도 행진에 참여를 하는데 그들은 깃발을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예배 후 어린이들에게는 캔디나 단 과일이 제공되는데 이것은 시편 19편 10절을 상기시키기 위한 위함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인터넷).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초막절 행사 중 하나인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 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정금보다 또한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므로 초막절을 큰 기쁨으로 지킨 것처럼 주님의 날인 오늘 거룩한 주일, 과연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주일을 큰 즐거움으로 축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록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조만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고후5:1)에 들어갈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다 함께 큰 즐거움으로 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에서 7일이 아닌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초막절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초막절을 축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더욱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순종의 삶과 순종의 기쁨을 맛보길 기원하면서)

죄의 문제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 묵상]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책 “회개행전”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평신도로서 우리 시대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C.S. 루이스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이동원). 그 증거 중의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죄를 향한 진지한 접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죄를 극복하려고 눈물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도, 죄를 이기는 환희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극복하려고 발버둥 쳐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경허히 듣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악”이란 단어가 실종 위기를 맞이한 것이지도 모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4장3절 말씀처럼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는 다름 아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죄와 더 밀접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Be Determined”란 주석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있습니다: “Separation without devotion to the Lord becomes isolation, but devotion without separation is hypocrisy” (주님께 헌신이 없는 분리는 고립이 될 것이지만 분리가 없는 헌신은 위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죄악과 분리해서 신앙을 지키고자 발버둥쳐 보지만 결국 주님께 헌신이 없는 이러한 분리는 그들로 하여금 고립상태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웃들과의 교제도 단절되었고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은 아마 위선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했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지만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세상 것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 헌신했다고 하지만 이같이 세상과 분리가 없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이라는 사슬에 우리의 마음에 매여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시편119편 32절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어성경(NIV)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계명)을 향하여 달려나아 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하신다(set free)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과 절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 이성관계에서의 절교, 가능합니까? 한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한 몇몇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자와의 이성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대화 속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세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6장14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성관계를 끊을 것을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듣는 말은 ‘목사님, 지금은 믿지 않지만 결혼한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나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라-느헤미야 시대 때의 문제는 바로 이방인들과의 혼합된 생활 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너의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 끊어 버리라”(에10:11). 이방인과의 혼합된 생활 중 특히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즉 지금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14절 하반절과 16절 상반 절까지 보십시오: “...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조화를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창1:4).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합니다(엡5:7).

여러분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두 물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분자는 아주 약한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기는 아니지만, 분자의 세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따라서 물분자는 자신과 비슷한 분자들, 다시 말해서 전기를 띠고 있는 분자들과 잘 섞입니다. 전기를 띤 분자들끼리는 마치 조그만 막대자석들을 늘어놓은 것처럼 서로 잘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한편, 기름분자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분자와는 서로 섞이지도 않고 겹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름분자는 자신과 비슷한 분자들, 즉 전기를 띠지 않는 분자들과 잘 섞입니다. 전기를 띠지 않은 분자들은 전기를 띠지 않은 분자들끼리 잘 섞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과 기름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물과도 잘 섞이고, 기름과도 잘 섞이는 물질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 물질은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 분자는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쪽 끝은 약한 전기를 띠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를 띠지 않는 모양이지요. 따라서 비누분자는 물과도 잘 섞이고 기름과도 잘 섞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비누를 이용하면 기름때를 물에 녹여서 빨 수 있는 것이죠”(인터넛). 비누의 주성분은 계면활성제라는 것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성냥과 같은 구조로 머리 부분은 기름에 잘 녹는 친유성의 탄화수소 부분이고 꼬리는 물에 잘 녹는 친수성의 카르복실기입니다. 계면활성제는 물분자들이 표면을 최소화하려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표면장력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과 물을 한 용기에 따르면 서로 섞이지 않고 기름이 위층에 그리고, 물이 아래층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표면장력 때문에 서로 만나는 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두 층으로 분리되는 됩니다. 이곳에 비누액을 넣고 잘 저어주

면 친유기 부분은 기름에, 친수기 부분은 물에 녹아 들면서 물의 표면장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게 됩니다(인터넷).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비누”와 같습니다. 마치 비누가 물의 표면장력을 제거하여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듯이 이 세상은 ‘빛의 표면장력’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유혹하여 결국은 ‘어두움의 분자’와 섞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해서 살아야 합니다.

(1)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2)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3)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둘째로, 우리는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 초막절이 한 3주 지난 7월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약 3시간동안은 서서 모세의 율법을 읽었고 또 다른 3시간 정도는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들의 죄와 열조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1-3절). 여기서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란 말은 애痛的 표시로서 고대 이스라엘이 이같이 슬픔을 외부에 나타냈다고 합니다(창37:34; 삼상4:12; 삼하1:2, 3:31, 21:10 ...)(박윤선). 이 사실은 좀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 8장9절에서 초막절 기인 첫날에 수문광장에서 약 6시간이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 율법을 듣고 깨달아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일이기에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을 듣고 초막절을 크게 기쁨으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3주가 지난 후 오늘 본문에서 또 자기들의 죄와 열조들의 죄로 말미암아 슬픔을 외부적으로 나타냈는지 우리는 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쁘게 지낸 후 다시 그들의 죄와 사악이 자연스럽게 생각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훤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를 “자복”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박광현 목사님이란분의 원어 해석을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복”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자복은 하나님께 대해 사랑의 손길을 사모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뜻에 빛나감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슬퍼하고 죄악을 떨쳐버리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손을 쭉 뻗어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 5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빛나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2)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에 빛나감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3) 셋째로, 하나님의 뜻에 빛나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며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넷째로, 죄악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적용 원리에서 마지막 3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인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현대인이 슬픈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이것은 인격의 정서 방면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폐단이다. 현대인들은 슬퍼해야 할 일에 웃어버리는 일도 많다.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자들의 심령은 강박해지기 쉽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슬퍼해야 할 때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강박해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인 죄악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죄악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에 밀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에 밀접했는데(시 119:31) 우리는 오히려 죄악을 밀접 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 하반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절 하반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과 5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하는 일은 공중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4절).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다 여호와와의 성호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란 것입니다(박윤선): “예수아” -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갓미엘” - 하나님은 첫째이시다, “바니” -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스바냐” -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하셨다, “브다히야” - 여호와께서 여셨다.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 이다”(5절).

저는 이번 주 장모님과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하는 말 장모님의 몸에 있는 흑이 악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방암이라는 말 이었습니다. 제 첫째 아들 딜런 학교도 못보내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딜런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모님의 목소리는 밝았고 또한 암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이 "큰 선물"로 인하여 마음에 모든 '죄악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 내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에게 전화로나마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말씀 드린 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기도회 때 전파한 창세기 7장23절에 근거하여 홍수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 외에 다 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쓸어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암 세포를 잘라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단해 주시되 그 죄를 자복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회개의 눈물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6-8절 말씀 묵상]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정을 계산한다.” 이 말은 약속 시간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시간에 늦는 것은 생각보다 손실이 큰 행동입니다. 별 것 아닌(?) 일로 상대의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 투데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대림산업을 만든 이재준 회장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그 측근이 들려준 것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분을 모시고 중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약속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회장님이 이미 나와 계신 겁니다. 당황했지요. 다음 날은 시간보다 7-8 분 미리 나왔는데 역시 회장님이 나와 계신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음 날은 20분 정도 일찍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회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15분 전인 겁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냐고 회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약속시간보다 15분 일찍 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네. `그 이유는 첫째, 일찍 나가면 서두르지 않으니까 여유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미리 나가 있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살수있고, 셋째, 일찍 나가면 전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서두르면 택시 등을 타야 하니 경제적으로도 좋고...”(인터넷).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한근태).

신앙생활에도 매우 귀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심과 내가 하나님께 약속 혹은 서약. 두 번째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5장 4-5절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 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오늘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사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걸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2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

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와 열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9:1-5). 그런 후 오늘 본문 6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언급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는 바로 “주다”입니다. 이 단어는 느헤미야 9장에서만 적어도 16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딤펴6:17). 그분은 참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고(느9:8, 15, 35), 법(13절)과 “선한 신”(20절)과 양식과 물(15, 20절)을 또한 “구원자들”(27절)과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주셨습니다(22, 24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8-2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15장 13-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에 한 4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즉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에게 400년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을 섬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경험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 셋째로, 아브라함 자신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내 세대에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

(4) 마지막 넷째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약 400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 이 사실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상당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

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18절입니다: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 원인은, 괴로움과 고난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히 재건을 힘쓰는 가운데 대적들이 조롱하며 위협하며 공격하며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음모,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기에 그 시련에 지쳐 쓰러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기를 포기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2) 둘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그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약속의 말씀인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셋째 원인은, 믿음의 인내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약 4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상당한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약속과 만나는 사람은 ‘불가능’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잡는 자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가능’을 봅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을 붙잡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속에 숨어 있는 ‘가능’을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인내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

로소이다.” 여기서 “언약”이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자르다”(cut)입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9절)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찢개고 그 찢개 것을 마주 대하여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10절). 그런 후 해가 저서 어둠 때에 “타는 횃불이 찢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17절). 그런 후 18절에 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함께 찢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찢개 고기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서약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찢개 고기사이로 하나님이 보내신 횃불만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겠노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감기주). 이 “언약”이란 말은 두 가지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God’s promise)과 “사람의 책임”(Human obligation)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또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조차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의 이름은 “아브람”으로서 “존귀한 아버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사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서는 약속하셨으며 또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자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책임은 창세기 12장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 할 땅으로 가라”. 즉, 아브라함의 책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갔습니다(창12:4).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이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히11:8).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8절은 우리 사람의 책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즉, 언약을 맺은 가운데 우리 사람의 책임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마태복음 16장18절 말씀을 부인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함에서 오는 의심과 무관심과 불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그는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2) 둘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6절) “...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3)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6절) “... 다 보존하시오니...”]. (4)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6절) “...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5)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8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

이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유는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18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좇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좇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으로 좇아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도쿄 제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일본 천황의 ‘교육 칭호’라는 명령을 거부해 교사직을 박탈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 칭호’를 읽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차렷자세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치무라는 천황도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 미국에 건너가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고 묻자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관심이 없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고 사랑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한 사람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것은 약한 영광 싸워 승리한 후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사람은 누구든지 즐거움에 참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요한계시록 2:10)고 약속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1987년 5월,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주신 요한복음 6장 1-15절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9-12절 말씀 묵상]

인터넷을 보면 지도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는 길을 알고자 하면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가까운 길을 가르쳐 줍니다[몇 마일인지(거리)와 얼마나 걸리는지(시간)도 알려줌]. 만일 저와 여러분 앞에 가까운 길과 먼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가까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까운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 길을 택하여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해도 가까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13장 17-18절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길과 먼 길(혹은 돌아가는 길).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데 그 길에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가 하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17절)하여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1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의 길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21-22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하는 바로의 애굽 군대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냈느냐? 우리를 버려두라고 했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 보다 낫다’(14:11-12). 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14:13-14): “... 너희는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13-14절). 그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육지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고(구원받았고) 애굽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3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빈번한 질문이 있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왜 방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런데 이 질문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특히 이러한 질문은 ‘악인의 형통’과의 비교 속에서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야 9장 9-12절에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시대 때의 자기들의 열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애굽에서 자기들의 열조들이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즉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10절)(박윤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3장7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크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이나 사물과 비교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더 크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화는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싸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저희 집 딸 예리 같은 경우는 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눈물과 상처가 더 크게 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9:6)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1:5)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축복과 고통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크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 작게 보이는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옳을 보십시오. 옳은 축복 받을 때나 고난당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1) 첫째,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는 고난을 수반합니다.

자유는 인간됨에 속한 것입니다. 결정의 자유가 없는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 보다 훨씬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나쁜 세상은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으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2) 둘째, 고통은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병을 인식할 수 없고 의사를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우리 일상의 무의미에 대한 괴로움이 없다면, 특정한 괴로움의 압박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셋째, 고난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우리의 능력, 용서하거나 보응하거나, 상심하거나 놓아버리는 능력 - 이 모든 것은 특히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평안할 때는 우리의 진정한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없습니다.

(4) 넷째, 고난은 영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고난이 가득한 삶은 어딘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생의 끝이 영원으로 가는 문지방이라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의 말로라도 고난을 통해서 현재의 삶이 인간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전부라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일 뿐입니다.

(5) 다섯째, 고난은 우리로 놓아 버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새로운 고통은 이 세상을 덜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놓아 버리는 것을 그리고 의연히 다음의 삶을 향하는 것을 배웁니다(전12:1-14).

(6) 여섯째,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옴은 권능과 지혜를 갖고 계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난의 시기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누구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 보다 더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더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기적인 인류의 고통으로 인해 그분만큼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만큼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8) 여덟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제해주시기를 몇 번 간구했습니다. 이에 하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라,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너에게서 특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9) 아홉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또한 자라갑니다.

(10) 열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자신을 거부하고, 상처를 주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에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창50:20)”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10가지 “이적과 기사”(재앙)로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과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구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가 기도 응답 외에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10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이것은 야고보서 4장6절 말씀(인용: 잠3:34; 비: 시138:6)의 원리와 같습니다: “...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내용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교만히 행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지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고보서와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바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의 교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교만함이라 무엇입니까?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교만함을 알려주는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가 마음을 완강/강박하게 하여’입니다[“바로가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모세와 아론)을 듣지 아니하니...”(출7:13, 22);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출8:15, 참고: 8:19, 32; 9:7, 12, 35; 10:20, 27; 11:10)]. 마음을 강박케 혹은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강박이란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센 것이라고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반항하다, 완고히 하다는 뜻이 있고 영어로는 Hard(하드) 라고 하는데 ‘굳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강박함이란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자신의 위치, 견해를 확고히 하는 태도이며 또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적인 것보다는 거의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묵은 발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저는 출애굽기 9장21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청종하지도)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므로 그 말씀을 자기에 소유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시119:56).

우리가 바로와 같이 교만한 자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10절). 즉,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 때 자신의 권능과 공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대적들인 바로와 모든 애굽인들에게 나타내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찬양과 경배케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처럼 마음을 강박케 하여 우리의 대적들을 치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복수는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에스겔 36장26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므로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열심히 신실하게 기경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1-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셨사오며.”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바로와 애굽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사 명예를 얻으신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또 다시 부르짖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9절)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왔던 모든 애굽 군대 사람들을 홍해 바다 물에 던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도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힌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동서남북 돌아봐도 문제 해결책이 안보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잠언

3장5-6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일 “아니오”하셨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그 순간순간마다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고난을 극대화하므로 그 문제나 고난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그의 임재를 통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보다 고난 자체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고난에 이끌림을 받는 삶임). 그 예가 바로 수요기도회 때 나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래(사라)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잘 붙잡고 오다가 자기 남편은 아직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알았지만(85세) 그러나 자기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음을 알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여 자기 여종인 하갈과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케 권면하므로 결국 이스마엘은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가정에 싸움이 일어났고 지금 중동에서의 싸움도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당면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지향적’입니까 아니면 ‘해결 지향적’입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인터넷):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이른바 ‘해결 지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고방식을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문제와 난관에 대해 생각한다. 해결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고 돌아가고 지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한다. 문제 지향적인 사람들은 문제들에 대해, 누가 또는 무엇이 그것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거나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해 원망만 늘어놓는다. 반면에 해결 지향적인 사람은 단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다.” 홍해 바다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지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결 지향적”인 모세. 문제 지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갇힌바 된 상황, 특히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움 속에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제 죽어 꾸나 생각하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결 지향적”인 지도자 모세는 동서남북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제일 바르고 좋은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쳤을 때 바다가 갈라져 육지처럼 되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처럼 홍해를 건너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 물에 다 깊이 잠겨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므로 인생의 난관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사 우리를 저 약속의 땅 천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60장 후렴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2x)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원수(대적)처럼 여기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치사사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 천국으로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홍해 바다처럼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막힌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3-15절 상반 절 말씀 묵상]

크리스찬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전 세계적으로 32개 국가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1천개를 조사한 결과, 다음 8가지 특질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인터넷): (1) 평신도들의 영적 잠재력을 계발시키는 지도력, (2) 성령의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은사 지향적 목회, (3) 자신의 신앙적 의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영성", (4) 교회의 사명에 따르는 기능적 구조, (5) 예배의 스타일과 언어에 상관없이 성령의 활동으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예배, (6) 단지 성경 구절을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자신들의 구체적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통전적 소그룹 활동, (7) 비신자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되 "조작하는 것"이 아닌 전도, 그리고 (8)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크리스찬 슈바르츠의 6번째가 적용이 됩니다: “단지 성경구절을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자신들의 구체적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통전적 소그룹 활동”. 이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성장하여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3-15절 상반 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걸고 하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시라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후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라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13절).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롭고, 진실 되며 또한 선한 계명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리이시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 중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20:8)는 말씀 내용을 담은 계명이 적혀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여기서 핵심은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19-20장을 봐야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18-19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도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보십시오: “...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때 모세는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 치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20절).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와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늘에서부터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을 치른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며 불순종하면 불합격한 것. 합격이면 축복, 불합격이면 징계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자 하늘에서부터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자 하늘에서부터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혹이 다가와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저런 싸인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에게 주신 경고, 우리 양심에 거리낌). 그러나 제일 분명한 싸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들춰내시사 죄악임을 분명히 밝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과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시대 때처럼 하늘에서부터 우리와 말씀하십니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1)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2)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의 감동으로, 때로는 내면의 음성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3) 우리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소멸되면 은혜와 축복이 소멸됩니다.

(4)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적으로 의논하고,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줄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생활과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인터넷).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다 QT(Quite Time)(말씀 묵상)를 하십시오. 우리 모두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QT란 무엇입니까?(인터넷) QT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변화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QT의 순서와 방법은 기도와 찬양, 성경읽기(본문관찰), 묵상(해석), 적용(실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가이드로 SPACE 방법(쥬지 물러식 방법)이 있습니다: (1) S : Sins to

confess(자백해야 할 죄들), (2) P : Promises to claim(볼잡을 약속들), (3) A : Action to avoid(피해야 할 행동들), (4) C : Commands to obey(순종해야 할 명령들), (5) E : Examples to follow(따라야 할 모범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QT가 끝나는 것은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은 QT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없는 QT는 QT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적용은 중요합니다. 적용에는 3P가 있습니다: 개인적(Personal), 구체적(Practical), 가능한(Possible) 것.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함으로 새롭게 깨달았거나 감동이 된 내용들, 그리고 삶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눠야 합니다. 나눔이란 QT를 통해 발견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 나의 문제들과 기도제목 등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와 교훈들을 서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QT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삶을 위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5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 때의 자기들의 열조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과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땅 위에 서리처럼 쌓이는 하얀 밀가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다가 쌓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에 해당되는 분량만 취해야 합니다(출 16:12-20). 그럴지 않고 욕심을 부려 많이 가져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부패해버리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그날에 먹을 양식을 구해 놓아야 했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에 구해 놓은 만나를 안식일까지 먹어도 상하지 않았습다(출 16:23-31). 만나를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결국 만나를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인터넷). 이 만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루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좇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생명(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떡”(요6:33)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명을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29절).

여러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신 자들만이 영생(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8:11). 한국 성문교회 박영수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왜 그토록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방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마디로, 신앙인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본문 2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거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미리 24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곧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2 가지가 없이 말씀을 들었기에, 듣기는 들었으나 영적 기갈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영적 기갈의 해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열심히, 신실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을 통하여 영적 기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 묵상에 헌신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5b-17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을 읽으면서 쓴 말씀묵상 "인간관계"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 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인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을 멀리하는 모습에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기에 그를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한 후에도 그를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찾아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했습니다. 용납 받기를 원했던 아들 압살롬,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던 압살롬, 아버지의 용서의 포용을 원했건만 다윗은 그를 진정으로 용납하기를 거부했고 비인격적으로 용서했으며 그를 포용하기보다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묵상을 주위 형제, 자매들하고 나눴더니 한 형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어느 누가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을 쉽게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곱 번은 커녕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시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지..". 과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구누구는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지냈던 약 1년의 삶을 살았을 때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죄책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너 때문이야 ...'와 같은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의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이 괴로운 인생길을 힘없이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느헤미야 9장 15b-1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유의 하나님",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한 두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용서하시는가? (2) 하나님은 왜 용서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최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최악들은 바로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책 "회개행전"에서 교

만을 한 3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1) 첫째로,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악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눅19:9)이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존심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랑은 병적인 자만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만을 의롭다고 믿는 것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것은 자만인 것입니다.

(2) 둘째로, 교만이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죄악입니다.

성경 누가복음18장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세리와는 같이 기도하기도 싫어서 아예 자리를 따로 해서(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까지 세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영적 우월감이란 교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 남의 티를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다 교만이라는 병의 한 증후로서 이웃과의 교제에 벽을 쌓는 죄악입니다.

(3) 마지막 셋째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려는 죄악입니다.

성경 누가복음18장11-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서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 이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5b-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 9장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받은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교만하여 스스로 마음을 강퍽케 하였던 것처럼 이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한 가운데 스스로 마음을 강퍽케 한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반석에서 물을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배가 부른 후에 마음이 교만해 졌습니다. 사사가 생각납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사 구원해 주면 배가 불러서 교만히 행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교만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목을 굳게 하다.’ 영어로는 Stubborn(NASB)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16절), “… 목을 굳게 하여 …”(17절). 이 ‘목을 굳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담겨있는 원래 의미는 ‘황소들의 짐을 지기를 싫어하여 반항하는 것’입니다.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근데 짐을 지기 싫어서 반항하는 황소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란 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민14:33).

이 ‘목을 굳게 하다’ 즉 ‘교만하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교만하다 혹은 목을 굳게 하다는 말은 거역하다, 즉 듣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6절 하반 절에서 17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참고: 민 14:22).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15장3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목회자가 교만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교만한 자의 귀에는 오직 자기중심적 음성과 아부의 음성, 사탄의 음성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2) 교만하다 혹은 목을 굳게 하다는 말은 잊어버리다, 즉 기억하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십시오: “거역하여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빨리 잊어버리는(기억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성도나 다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행함을 내세우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3) 교만하다 혹은 목을 굳게 하다는 말은 돌아가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참고: 민 14:4). 출애

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시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지도자까지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일 첫째 되는 원인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12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그 탐지한 땅을 악평”(민13:32)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2-33절을 보십시오: “그 땅 거민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 들을 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러므로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하는 가운데(14:1) 그 곡함 이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2-3절).

그러면 교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1)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중 하나가 시편 78편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2) 둘째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78편 4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3) 마지막 셋째로, 배반의 죄를 날게 되는 것입니다(민14:43, 시78:17).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인간을 의지하여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교만이 낳는 마지막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이동원).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은 왜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참고: 민 14:19).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심이 그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스필존). 전정으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여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의 은혜로우심과 긍휼을 닮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잊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인터넷).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다 덮은바 되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잊었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compassion)는 라틴어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며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고 헨리 나우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카미’(rachamim)인데, 이것은 야웨(하나님)의 자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어찌나 깊고 중 심적이며 강력한 감정인지,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인다는 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나우웬). 그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민23:21).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사30:18).

(2)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십시오: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서에서 봅니다. 성경 요나 4장 2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3:10) 요나는 심히 성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었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 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화가 났었습니다(4:9).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4:11).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풍부한 인자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분노하는 하나님의 종 요나에게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그에게 풍부하시고 섬세한 사랑으로 다루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요나에게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에게 그늘을 주시사 괴로움을 면케 하셨습니다(4:6).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시사 박넝쿨을 씹게 하시고(4:7)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므로 요나의 머리에 해가 찌게하시므(4:8) 요나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한 하루살이 박넝쿨을 아낀 것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십이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한지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4:11).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일체 오래 참으심”, 즉 무한한 인내하심으로 표현하였습니다(딤후 1:16).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광야를 성소로 삼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시63:3).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풍부한 인자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성경 신명기 31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행하실 것이며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6절)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도 버릴 줄 이미 아셨으면서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상하 되십니까? 버림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너가 나를 버릴 줄 알지만 나는 너를 정녕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교만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실지언정 죄인인 교만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고자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할 못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극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를 그린 영화 “사랑의 원자탄”을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번에 그분의 따님이 쓴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를 보고 그분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순교 장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8년 10월19일, 해방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여수 지구는 반란군의 아성이 되었을 때에 반란군은 최악 성향의 학생들을 앞세워 반동분자를 색출한다며 정치 요인과 정당 관계자, 부유층, 기독교인들을 닦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무참히 학살했다고 합니다. 1948년10월21일, 좌익 학생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쉴 새 없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는데 그 때에도 그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총살하려고 할 때에 손 목사님의 맏아들은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마는 너희들은 그 죄 값을 어떻게 다 치르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잔소리 집어 치우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그 때 성악가였던 손 목사님 맏아드님이 마지막으로 찬송 한곡을 부르겠노라고 부탁해서 불렀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545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였다고 합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을 부른 후 총 방아쇠를 당겼을 때 손 목사님 말어드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면서 말을 다 끝맺지 못하고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쓰러져 있는 그의 형을 부여안고 “형님, 형님, 나도 형님 따라 천국에 가렵니다”외치면서 벌떡 일어나 살인자 집단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합니까? 하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내 신앙도 형님 신앙과 다르지 않으니 나도 쏘시오. 나도 형님 가신 천국에 함께 가겠소.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 자! 총을 맞을 터이니 너희하고 싶은 대로 쏘려면 쏘아라.” 그 때에 살인자들은 “야, 저 놈은 제 형보다 더 지독한 농일세”, “저런 놈, 살려 뉘선 안 되겠다” 말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손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총을 쏜 강철민(가명)은 확인사살로 두 발을 더 쏘았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홉 가지 감사문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두 아들을 총살순교 당함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문이 있는 가운데 일곱째 감사문이 이렇게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손동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신 손양원 목사님,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교만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기원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8-21절 말씀 묵상]

여러분 “길치”라는 말 아십니까? '박치'는 음악과 관련하여 박자 감각이 없어서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몸치'는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길치'는 길눈이 어두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썰미가 없어서 가본 적이 있는 길도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길치'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상 최악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초보운전자와 이른바 '길치'들에게는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안전운전 도우미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차 안 내비게이션이 달려 나오기도 하지만 휴대폰으로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빛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으므로 우리의 목적지인 천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5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의탁(YIELD): 의탁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탁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기도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을 의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샤에 대한 성경을 보면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라고 하였습니다(대하 17:16).

(2) 고백(CONFESS):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자 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라는 시편기자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시 139:23-24). 또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의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행 1:8).

(3) 기도(PRAY):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인도를 구하며 규칙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최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골 1:9; 4:12).

(4) 연구(STUDY):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 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십시오(딤후 2:15).

(5) 기다림(WAIT):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시 62:6).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당신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조급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인터넷).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8-21절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한 3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2)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3)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를 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예를 들어, 한 장님 아들이 자기 아빠의 팔뚝을 붙자고 시냇가를 징검다리를 밟아가면서 건넌 후 ‘아빠가 도와줘서 시냇가를 무사히 건넌 것이 아니라 저 징검다리 돌맹이가 나를 도와서 내가 건넌다’고 말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아빠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버리고 ‘그럼 니 멋대로 해바라’하면서 더 이상 장님 아들을 인도 안 해주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범한 큰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송아지를 가리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나오게 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길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지도자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놀아두었습니다(출

32:25).

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군중을 지배(control)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나는 것(출32:8), 둘째로, 목이 곧음(출32:9), 그리고 셋째로, 악하다는 말입니다(출32:22). 부패한 마음에서는 오로지 부패한 행동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부패하여져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디도서 1장 15-16절을 보십시오: “...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는 부패하여 방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은 하나님을 닮았는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시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서로에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여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역사를 속히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역경, 문제들을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걱정,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확신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잠언 3장5-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는(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긍휼입니까?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9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한바 “**긍휼**”이란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며 라틴 어로는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며 ‘함께 고통 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합니다(나우웬). 근데 그 “공홀”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참 놀랍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카뎨’(rachamim)인데, 이것은 야웨(하나님)의 자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궁의 특징(지혜)은 “모든 신체 조직이 이물질(異物)을 거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궁은 이물질에 해당하는 수정란(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란)을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후에 만들어진 태반 혈관이 자궁 내막 속으로 파고드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이는 까닭은 자궁 내 혈관과의 소통을 이루게해 영양을 공급하고 태반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태반 혈관의 침투를 무한정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반 혈관이 어느 정도 파고든 다음에는 더 이상의 침투를 억제해 태반 혈관이 모체 전신으로 도는 혈관과 소통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자궁 내막은 호르몬을 분비해 열 달 동안이나 세포의 자연사를 막아줍니다. 그밖에도 자궁은 임신 초기 견고하고 두꺼운 모습을 보이거나 임신 후기에 는 얇고 부드럽게 돼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인터넷). 하나님의 공홀, 그의 지혜는 마치 자궁이 “이물질”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십니다. 또한 마치 자궁이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이므로 태반을 자라나게 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 침투’까지 용납하시므로, 즉 죄를 대신 걸머지시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젠 더 이상 ‘죄 침투’를 막으시사 온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죄의 소통’을 막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치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세의 자연사를 자궁내막이 막아 주고 또한 임신 후기에 는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고자 자궁이 얇고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신앙생활을 하게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홀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수 없이 배반하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품안에 보호하시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에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마치 태아가 산모의 자궁을 떠나서는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시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문구 “연하여 공홀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다시 번역한다면 ‘많은 공홀’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즉, 한두 번이 아니라 수 없이 공홀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9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춰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한 이 주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이 되면 저의 셋째 딸인 예은이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저랑 놀다가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이 들곤 합니다. 아빠랑 “Bible”(성경책)하면서 침대에서 쓰러지는 게임도 하고 하는데 그 날 밤도 예은이가 놀다가 자기 방으로 가길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젠 ‘코지’(잠을 자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등불을 끄고 제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깐 예은이가 아빠가 잔다고 불을 끄고 누우니깐 할 수 없이 자기 방으로 가려고 문 쪽으로 걸어가는 데 갑자기 “쿵”하더니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불을 꺼서 앞에 안보여 똑바로 문으로 향하여 걸어가지 못해서 옆에 옷장 문 모서리에 부딪힌 것입니다.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좀 여러 번 웃었습니다. ㅎㅎㅎ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없으면 똑바로 걷지 못하고 뺄어져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뺄어져 걷는다는 말은 에베소서 5장8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엡5:9)을 맺지 못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엡5:11).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살면서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의 일에 들춰내어 책망하는 빛 된 삶을 살아야 하건만 어두움에 빛을 잃어가면서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시편기자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이 구절의 배경인 민수기 11장 17, 25절을 보면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14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 임한 신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선한 신”(good Spirit), 곧 “선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담임 목회자가 60만 명 성도들을 혼자 목양하는데 책임이 무거워 감당 못하여 탈진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우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백성의 짐을 지게 하므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선한 신(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선한 율례”입니다(9:13). 즉, 모세와 70인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의 선한 율법(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과 지혜를 주고자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열조인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성령님을 모세 외에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수문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약 6시간동안 7일이나 서서 들으면서 그 낭독되는 율법을 깨닫게 되므로 울며(9:8-9), 또한 말씀 순종하므로 크게 즐거워하는 가운데(9:17)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교만하여 우상숭배를 한 자기들의 열조를 긍휼이 여기시사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나 자기들에게나 세우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는가?’란 질문을 답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므로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교만이요, 목이 굳음입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인도함을 좇습니다. 내재하시는 선한 신이신 성령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성경 호세아 10장12절을 보십시오: “...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 자기 자신을 의뢰함으로(호10:13) 말미암아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은 땅인 강박한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으므로 성령님의 말씀 가르치심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겐 소망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37:26-27).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행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1절을 보십시오: “사십 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

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1절). 광야에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약속의 땅인 천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민수기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탐욕을 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울면서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신8:3)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 외에 이것저것 자꾸만 하나님께 달라고 불만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아니 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빌4:11). 오직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겸손히 이 천성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 대뇌생리학자가 쥐를 2개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습니다. 한쪽은 충분한 식량과 물을 제공하고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수면을 취하도록 했다. 다른 한쪽은 식량과 물을 찾아가려면, 미로를 거치고 장애물을 거쳐야 하며 또한 전류의 쇼크 등의 난관을 통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양육한 후에, 그 뇌를 조사해 보니 놀랄 만큼의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편하게 자란 쥐의 뇌는 뇌세포가 결락했거나 신경세포의 나뭇가지 같이 보이는 돌기가 감소하여 마치 유아로 되돌아 간 것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악조건 하에서 자란 쥐는 뇌세포의 결락도 없었으며 신경세포의 돌기도 왕성 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미로학습, 운동, 고생 등이 뇌를 활성화하여 생생하게 만든 것이 현미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인터넷). 인생은 마치 미로학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미로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는 혼인 잔치가 열리는 약속의 땅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사 인생의 미로에서 목적지인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사 아무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영원한 세상,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궁"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 (느헤미야 9 장 19절 상반 절).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영어로는 "compassion"이며 라틴 어로는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며 '함께 고통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합니다(나우웬). 그런데 이 "긍휼"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카뎀'인데, 이것은 "자궁"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면서 원어 히브리어로 "자궁"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인의 자궁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자궁의 지혜'라는 글이 눈에 다가와 여기에 한 3가지로 적어보았습니다(인터넷):

(1) 첫째로, 자궁의 특징은 "모든 신체 조직이 이물질(이물질을 거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궁은 이물질에 해당하는 수정란(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란)을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후에 만들어진 태반 혈관이 자궁 내막 속으로 파고드는 것까지 받아들입니다.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이는 까닭은 자궁 내 혈관과의 소통을 이루게해 영양을 공급하고 태반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태반 혈관의 침투를 무한정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반 혈관이 어느 정도 파고든 다음에는 더 이상의 침투를 억제해 태반 혈관이 모체 전신으로 도는 혈관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 또 다른 특징 하나.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자궁 내막은 호르몬을 분비해 열 달 동안이나 세포의 자연사를 막아 줍니다.

(3) 그밖에도 자궁은 임신 초기 견고하고 두꺼운 모습을 보이거나 임신 후기에는 얇고 부드럽게 돼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의 긍휼, 그의 지혜는 ...

(1) 마치 자궁이 "이물질"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십니다.

(2) 또한 마치 자궁이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임으로 태반을 자라나게 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 침투'까지 용납하시므로, 즉 죄를 대신 걸머지시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젠 더이상 ‘죄 침투’를 막아주시사 온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죄의 소통’을 막으십니다.

(3) 더 나아가서, 마치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세포의 자연사를 자궁내막이 막아 주고 또한 임신 후기에는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고자 자궁이 얇고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 없이 배반하고 버려도 우리를 자신의 품안에 보호하시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이 광야에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마치 태아가 산모의 자궁을 떠나서는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시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 1장 19절에 나오는 문구 “연하여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다시 번역한다면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한두 번이 아니라 수 없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간구하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사십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사오며”(느헤미야 9장 19-21절).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제 인생을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9-21절 말씀에 비춰보았습니다. 한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저의 행할 길을 비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9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저 인생의 참으로 어두운 시기에 저에게 빛을 비취주시사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거의 반이나 되는 약 20년의 삶을 어두운 마음의 방에서 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목사의 아들로써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곤 하였지만 내면적으로 제 마음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서나 성경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참으로 말씀과 동떨어진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저는 더 죄책감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명령에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눈은 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간 곳 없고 제 눈에는 제 자신의 죄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죄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마치 어두운 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듯 제 마음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마음이 지속되다보니 나중엔 자책감이 자괴감으로 발전하여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머리로는 눈을 들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빛을 비취주시사 저를 어두운 마음의 방에서 구출해 주시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저는 간 곳없고 십자가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민수기 11장 17, 25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14절) 하면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70인을 세우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한 신(the Spirit)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짐을 덜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는 “선한 신”(good Spirit), 곧 “선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선한 신(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선한 율법”이었습니다(9:13). 즉, 모세와 70인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나님의 선한 율법(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과 지혜를 주고자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열조인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숭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성령님을 모세 외에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수문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약 6시간동안 7일이나 서서 들으면서 그 낭독되는 율법을 깨닫게 되므로 울며(9:8-9), 또한 말씀 순종하므로 크게 즐거워하는 가운데(9:17)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교만하여 우상숭배를 한 자기들의 열조를 긍휼히 여기시사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나 자기들에게나 세우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저에게 가르치시므로 말미암아 저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나는 순간들과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자훈련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요한일서 5장11-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 구절로서 저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Fact”(사실), “Faith”(믿음), 그리고 “Feeling”(감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5장11-12절(구원의 확신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때부터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1-15절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 날 밤 집회 때 회개케 하시고 헌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 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 13년 전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케 하신 과정들을 결혼 예배 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시편 34편 8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God is so good”(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아내에게 “God is so good”(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제 아내는 “All the time”(항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All the time”그러면 아내는 “God is so good”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성경구절 또 하나는 바로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아기 선물인 주영(이름 뜻: “주님의 영광”)이를 빨리 죽게 해야 할지 천천히 죽게 해야 할지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질문을 받은 그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시편 63편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부 마음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영이의 55일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믿음을 주셔서 그 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제 아버님 목사님을 보시고 가족 식구들이 중환자실에서 아기 주영이를 둘러싸고 예배를 드린 후 주영이는 제 품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눈다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 2003년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개신목회자 협의회 수련회 때 감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심비에 적어 주시사 저로 하여금 다시금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사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저를 기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1절을 보십시오: “사십 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약속의 땅인 천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안에 잇는 탐욕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민수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탐욕을 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울면서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광야에서 오직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신8:3)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 외에 이것저것 자꾸만 하나님께 달라고 불만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가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전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에서 밥을 앞에 놓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 하였었는데 이젠 배가 불렀는지 그러한 눈물도 없습니다.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이 여겨주시사 저의 심령을 궁핍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을 주님을 찾게 만드셨고 찾은바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주시면서(빌4:11)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오직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사 저로 하여금 겸손히 제 앞에 놓여진 천성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저를 인도해주셨고 현재에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사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자가 되시기에 미련하고 우둔한 양인 저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음친한 사망의 골짜기를 제가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은 저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6).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22-26절 말씀 묵상]

1999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던 72살의 앤지 클렌스 할머니가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무려 20만 파운드(30억원)나 되는 거액에 당첨됐습니다. 복권발행회사측은 클렌스 할머니가 심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심장마비를 우려해, 이 할머니가 다니는 성공회 목사 에임스씨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에임스 목사는 할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복권이 당첨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이, 목사님도 참. 내 주제에 무슨… 그럴 리 없겠죠.’ 목사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말이죠.’ 잠시 생각하던 할머니는 ‘그렇다면 에임스 목사님. 당신이 모두 가져요.’ 에임스 목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돈을 모두 받았는데… 절반은 고인이 된 에임스 목사 가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인터넷).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축복인가 죄악인가’ 뜨거운 복권 논쟁”이란 글이 있어 나눕니다. 영국의 새해 첫 주가 투기 열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자 종교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코번트리 대주교 시몬 배링턴워드 신부는 복권이 사람들의 탐욕을 부채질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복권이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죄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한 존 메이저 영국 총리는 시몬 배링턴워드 신부의 복권 비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복권 사업으로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금 수십만 파운드는 정부가 세금만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포츠·예술·문화유산·불우 이웃 돕기 사업에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이 메이저 총리의 주장이었습니다(인터넷).

여러분 생각엔 복권 당첨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죄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2-2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 것인지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앙의 단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기복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복 신앙이란 자신이 설정한 행복과 가치를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야, 예수를 붙잡아야 행복해 지고 출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인터넷).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란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저야하는 십자가는 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복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도구로 퇴위시켰으며,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목적을 개인의 영달과 사업의 번영 등의 현세적인 것에 두게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기복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여서 무조건 물질의 복을 죄악시하는 또 다른 극적인 관점도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물질의 복을 얻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결과(수단이 아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물질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2-2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땅”이란 말이 이 네 구절에서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축복은 창세기 17장7-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참고: 창13:14-18).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성취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물질의 복은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5절을 보십시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외에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이나 전 거주자들의 소유물인 집, 우물, 포도원, 감람원, 과목 등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언약: 하나님의 약속 & 인간의 책임). 그것은 다른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23절).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물질 축복을 위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a) 첫째 계명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마 6:33),

(b) 둘째 계명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딤후 6:17).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마 6:21, 24),

(c) 셋째 계명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사랑하면 물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빼앗깁니다(딤후 6:10),

(d) 넷째 계명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재물과 가족을 버리면, 세상에서 백배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막 10:29-30),

(e) 다섯째 계명은 오직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 둔 보물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마 6:19-20),

(f) 여섯째 계명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말 3:8-10),

(g) 일곱째 계명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고후 9:6),

(h) 여덟째 계명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고후 9:7),

(i) 아홉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업에는 능력 이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고후 8:3),

(j) 열째 계명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자녀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으므로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마 25:14-30)(인터넷).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인복입니다.

제 결혼 예배 때 주례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례자 목사님께서 3개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복중에 하나가 바로 “인복”이었습니다(다른 두개는 하나님의 복, 물질의 복이었음). 인복이란 무엇입니까?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인복’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인터넷).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하며,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은 학생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서로가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인복은 무엇이었습니까?

(a) 첫째로,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3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많이 하시고 …”. 이 축복은 창세기 22장17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치라는 시험 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창22장).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약 40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 삶 속에서 하늘의 별 같이 많이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b)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인복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4절을 보십시오: “...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 거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가나안 거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붙여 주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약 400년 동안 애굽이란 이방인 나라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으로서 가나안 거민들을 자기 원하는 데로 부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관을 만나는 것, 사업하는 가운데 좋은 종업원들을 만나는 것, 다 축복입니다. 과연 이 물질의 복과 인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입니까?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 복종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성경은 현세에 있어서 물질적 축복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으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체가 가장 축복받은 상태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복종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누리야 합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주님의 큰 복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5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여기서 ‘즐겼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eveled”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한껏 즐기다, 향락하다; (술·도박 따위에) 빠지다; (시간·돈)을 흥청망청 쓰다, 낭비하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to luxuriate” 즉, “사치스럽게 지내다, 호사하다; (...에) 탐닉하다, (...

을) 즐기다”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남용한 것입니다. 배가 부른 땅’에서 ‘배가 부른 사람들’이 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25절), 바로 이것이 그들의 파멸의 원인 이였습니다(위어스비). 그들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부(wealth)는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will)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지배하도록 방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릴 수 있는 바른 신앙과 성숙한 인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gift)을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주신 분(The Giver of that gift)은 즐거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즐거워했지만 주님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낭비 하지 말고 즐거워하되 그 큰 복을 주시는 복종의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복보다 주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큰 복을 주신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이 주신 복에 우선을 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큰 복으로 “배불리 먹고 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를 거역(반항)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여 “크게 설만(모독)하게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므로 주님의 “큰 복”(Thy great goodness)이 주님을 “크게 설만”(great blasphemies to Thee)하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우리 배만 채우고 살찌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한 평신도의 글인 “물질이 신앙심 가능하는 잣대로 변질”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 등 교회성장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지도자의 현금강요, 직분을 맡기 위해 일 정액의 특별헌금을 납부하는 관례, 부흥회 개최나 강사 청빙이 신앙성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금수입에 강조점을 두는 문제 등 다양합니다. 특히 돈의 많고 적음이 직분자 선택 기준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한 목회자의 지적과 모 교회가 교회 특별사업을 위해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면서 1백만 원 이상 납부자에게는 담임목사가 축복기도를 해 준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국교회 물질주의 풍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풍조의 이면에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의 많음을 축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은 주를 위해 쓰라고 준 은사일 뿐입니다(인터넷).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복, 인복, 물질의 복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텐데 ...)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 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 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느헤미야 9장 25-26절).

저는 이번 달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기도회 때 연이어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를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특히 저는 1, 2절을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는 “세상 모든 풍파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너(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풍파 없고 근심, 걱정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신 복을 세어 보는 것보다 오히려 큰 풍파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위기감까지 들 때에 주님께서 내려 주신 복을 세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내려 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느헤미야 9장 22-24절 말씀 중심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복과 인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복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땅”이라는 단어가 22-24절에 7번이나 나옴)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25절)(물질의 축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습니다(2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는 상전이 되게 하시사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24절). 이렇게 물질의 복과 인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이 큰 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낭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5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주의 큰 복을 즐겼사 오나”(And reveled in Thy great goodness). 여기서 ‘즐겼다’는 단어는 영어로 “reveled”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한껏 즐기다, 향락하다; (술, 도박 따위에) 빠지다; (시간, 돈)을 흥청망청 쓰다, 낭비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to luxuriate” 즉, “사치스럽게 지내다, 호사하다; (...에) 탐닉하다, (...을) 즐기다”란 뜻입니다. 한 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낭비하였습니다.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받은 큰 복을 낭비했습니다. “배가 부른“(25절 - ‘기름진 땅’)에서 “배가 부른 사람들”(25절 - “배불리 먹어 살찌고”)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것이 그들의 파멸의 원인이었습니다(위어스비). 그들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부(wealth)는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will)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지배하도록 방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했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릴 수 있는 바른 신앙과 성숙한 인격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겠지만 점점 주신 복을 누리되 남용하고 낭비하다 보면 우리는 그 복을 주신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신 복만 즐거워하는 복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gifts(복들)를 즐거워하면서 The Giver of that gifts(그 복들을 주신 주신자)는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 보면서 더 큰 복, 즉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주시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인생의 풍파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물질의 복이나 인복이 다 없어 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궁핍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복을 헤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세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찬송가 28장)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하나님의 율례(말씀)보다 더 최우선에 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큰 복을 주신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여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이 주신 복에 우선권을 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큰 복으로 “배불리 먹고 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를 거역(반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여 “크게 설만(모독)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므로 주님의 “큰 복”(Thy great goodness)이 주님을 “크게 설만”(great blasphemies to Thee)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큰 복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을 크게 받는 만큼 그 만큼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배만 채우고 살찌게 하는데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좇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에 이끌림을 받는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힌 마디로, 우리는 주님께 받은 큰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는 큰 복을 주님의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의 복도 없고 인복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들을 누리되 결코 남용하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낭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큰 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복을 앞보다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복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남용과 낭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공황이 크신 하나님

[느헤미야 9장 27-31절 말씀 묵상]

우울증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울증을 ‘자살에 이르는 셋길 없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출발은 ‘나는 사랑 받지 못한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두 가지 요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상담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우신 목표를 발견한다면 마음의 병은 치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인터넷). 신앙인들의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울증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회 내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지그룹이 있다면 심각한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체계를 갖춰야 하며 성도들 역시 자신의 아픔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인터넷).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지그룹이나 상담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 - 아픔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체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구절로 말한다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롬12:15).

한 600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줄리안(Julian)은 ‘세 가지 상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1) 첫째는 회개의 상처입니다. 줄리안은 “오 하나님! 제가 회개의 아픔으로 상처를 받게 하옵소서. 제가 죄를 범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그 슬픔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2)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입니다. 줄리안은 “하나님! 하나님을 저에게 주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족하나이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추구한다면 저는 언제나 목마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오, 하나님! 불치의 항수병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소서. 이 세상이 저의 고향이 아니오니, 어찌 이곳에 정착하리이까? 어찌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3) 셋째는 공황의 상처입니다. 줄리안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토저 목사는 오늘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교리를 믿지만, 공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황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상처를 결코 치료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상처에 동참하고 싶다”(토저).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7-31절 말씀 중심으로 “공황이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걸고 과연 공황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공황의 상처를 입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9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즐기되 주님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26절) “배불리 먹어 살찌고” 있었을 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셨습니다(29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근거한 찬송가 315장이 생각납니다. 특히 3절 가사와 후렴이 생각납니다: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 받는데서 (후렴) “집을 나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0절을 보십시오: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 “.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신(성령님)(20절)을 모세 외에 70인 장로들에게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율례”(13절)를 가르쳐 주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한 율례”를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낭비하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교만히 행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목을 굳게 하면서 주님께 등까지 돌렸습니다. 한 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9-30절을 보십시오: “…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 하였나이다 …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11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주님의 율법으로 경계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큰 상’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큰 상’(“great reward”)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영혼이 소성되는 것이요(7절), 그가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며(7절), 그의 마음에 기쁨이 더한 것입니다(8절). 또한 다윗은 그의 영안이 밝게 되어서(8절)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길 간구하게 되었습니다(12절). 즉, 다윗은 “고범죄”(willful sins)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간구하였습니다(13절). 한 예화가 있습니다.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 가운데서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구조선 한 척이 다가와 외쳤습니다. ‘승객들이 위험하다. 승객들을 빨리 구조선에 옮겨 태워라.’ 아메리카호의 선장은 별로 걱정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는 견딜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의 선원들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객을 모두 갑판 위로 나오게 하라.’ 상황이 급하다 그러나 선장은 여전히 태연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다. 배를 옮겨 타는 과정에서 익사자가 나올 수도 있다.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자. 이튿날 아침 센트럴 아메리카 호는 흔적도 없이 바닷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선장의 무사안일이 빛은 참사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간단합니다. ‘너는 지금 너무 젊다. 천천히 믿어라’(국민일보). 우리는 마치 이 이야기에 나

오는 구조선의 선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 절을 보십시오: “...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천천히 믿으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7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 여기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인 이웃 이방인 손(30절)에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나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를(환난을) 당케 하셨습니다(27, 28, 30절). 지금 말로 하면 신자들을 불신자들 손에 붙이시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 왕의 후 시대에 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엔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복으로 주셨지만 그 복을 잘못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징계는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 나라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을 즐겼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위어스비).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주님이 주신 큰 복이 교만하여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큰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참고: 수24:20). 가나안 땅이란 축복을 겸손히 누리지 못했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이방인의 삶대로 이전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적인 이방인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28절).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사용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적에게 (불신자들에게) 잠시 버려두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한바 되어 불신자들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빛은 더 밝게 비취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주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에만 익숙해져 있지 하나님의 신실한 징계에는 익숙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기 때문입니다(히12:11).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6절). 우리를 사랑하는 참 아들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7-8절) 우리

의 유익을 위하여(10절) 우리를 징계하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하심에 참예케 하시며(10절) 또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11절). 우리는 시편 기차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징계를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5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71절), “...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다”(75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그 특권을 사용하여 죄를 범하는 특권은 절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8절 후반 절을 보십시오: “...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던 목을 굳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29절), 주님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26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사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27절).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Arabic 의미는 “sound as thunder”(우레 같은 소리)란 뜻입니다. 그 뿌리는 큰 곤란 중에서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란 중에서 함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27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28절).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버려 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하셨습니다(28절).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또) 건져 내”셨습니다(28절). 그리고 “다시” 주님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습니다(29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28절)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 하나님의 징계 -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간구) -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

우리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8-30절에서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다시”라는 단어(28, 29절)와 “여러”라는 단어(28, 30절)입니다. 죄를 범하여 환난을 당하게 하셨던 주님, 부르짖으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27-28절) 우리는 또 “다시” 죄를 반복적으로 범할 수 밖에 없는 심히 교만하고 목이 굳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그들을 구원해(건져내) 주셨습니다(28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용서”해 주셨습니다(3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참으시는 하나님(long-suffering God)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다시 죄를 범하는 그들을 한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므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27, 28, 31절).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멀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던 것입니다(31절).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사사기 10장 16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의 "곤고" 때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이 격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곤고를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곤고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보시면서도 참고 또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죄를 보시면서도 참고 견디시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롬2:4).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게 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곤고"를 보시면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할 지옥의 "곤고"(Misery of Hell)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동안 "He descended into hell"(사도신경 -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하게 하시므로 오히려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지옥의 "곤고"를 겪게 하셨습니다. 이 긍휼의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경고, 환난, 건짐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살아온,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느헤미야 9장 32-38절 말씀 묵상]

바다가재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물권리 운동단체들은 수년 동안 바다가재가 조리 때 고통을 느낀다며 끓는 물에 바다가재를 담그는 것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기에 노르웨이 정부지원을 받아 오슬로 대학의 과학자 팀에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과학자는 보고서를 보면 바다가재는 끓는 물에서 팔딱거리도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바다가재와 게, 벌레, 달팽이 등 대부분의 무척추 동물은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처음엔 좋겠다고 생각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 중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문둥병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십니까? 코가 떨어져 나아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9장 32-38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 한 2가지를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제목으로 교훈으로 받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기도제목은 우리의 악행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의 악행을 작게 여기는 죄악된 본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한 죄가 어느 정도 큰 범죄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늙으매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지만(1절) 그 아들들이 아버지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3절).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 사무엘에게 나와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5절) 요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큰 죄입니까 아니면 작은 죄입니까? 이것은 큰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을 보십시오: “...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일 곧 여호와와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왜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삼상10:19),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또는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보이는 사

람(들)이나 혹은 보이는 것을 우리의 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주로 삼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 큰 죄를 너무나 작게(가벼운) 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보시면서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환난을 보시면 견디지 못하시는 마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길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당신 이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 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아서는 결국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요나서 1장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한계가 도달했기에 참고 계시다가 우선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라고 보낸 여러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모독하게 행하였습니다(26절).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작게 여겼기에 계속 고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작게 여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악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호세아 4장4-8절을 보십시오: “...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 네가(제사장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 도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제사장인 목사와 다투는 자가 되고 있고 목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떼들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기보다 죄를 범하도록 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목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악행은 바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한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고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짚고 넘어 가야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큰 복”(great blessing/goodness)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큰 책임’(greater responsibilities)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금과 은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우상인 바알을 위하여 쓰는 죄와 비슷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죄를 작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그를 섬기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오 주여, 나의 큰 죄를 이젠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둘째로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기도제목은 우리의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큰 죄를 작게 보는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그 큰 죄로 말미암은 사랑의 징계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듭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7-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 왜 우리는 우리가 범한 큰 죄는 작게 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인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실지로 아프기 때문에 더 크게 보입니다. 그 한 예로, 자식이 부모님을 아프게 할 때에 자식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크게 느끼기보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렸을 때 그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2-38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더 이상 보고 참으실 수 없으셔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한 곤난’, 혹은 ‘큰 곤난’을 당하였습니다(37절). 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하고 ‘큰 악행’을 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에게 임한 것은 ‘큰 곤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낭용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젠 그 축복을 주님께서 빼어가시사 누리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상전으로서 이방인 거민들을 마음대로 부리기보다(24절) 이젠 그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 나라에 종이 되어 종살이를 하면서 큰 곤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난이 심하오며.”

왜 하나님은 사랑의 징계로 우리에게 ‘큰(심한) 곤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큰 곤난’을 통하여 우리를 작게(경손케)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보다 큰 모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곤난을 통하여 그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과 인격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케 하시므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통하여 자신만만하던 교만한 우리를 낮추 시사 엎드려 그에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맞습니다. 이사야26장 5절을 보십시오: “높은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앙모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줄 아십니다. 이사야 26장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큰 복과 그 큰 복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가 부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자기만 배부르게 먹어 살피고 주님의 주신 복을 낭비한 이스라엘 백성들(25절)로 하여금 그 큰 복을 다 빼앗아 가시므로 이젠 더 이상 상전이 아닌 종으로서 이방 열왕(37절)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님을 섬기도록 단련시키셨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했지만 환난을 당하여 종의 삶을 살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섬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방 열왕을 섬기는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모든 고난)을 작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가 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시기에 속히 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크게 여기셔서 구원하러 달려오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64장9절 상반 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함께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환난을 크게 여기셔서 구원하러 달려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난을 작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옥의 고난을 너무나 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작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지옥의 그 큰 고난을 작게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신 독생자 예수님의 ‘악행’을 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큰 죄악을 담당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큰 죄를 용서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고통을 작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 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고난을 통한 단련, 단련을 통한 기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느헤미야 10장 28-31절 말씀 묵상]

한 고용주가 일할 사람(종업원)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한 명씩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 한 지원자와의 대화입니다:

고용자: “이일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말아야 합니다.”

지원자: “그렇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난 직장에서 무슨 잘못된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거든요.”

참 어이가 없는 지원자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유모가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Who are They anyway?, BJ 갤리거·스티브 벤추라 공저)란 책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절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회피형 인간'(professional victims)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책임 회피형 인간'을 '책임지는 인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해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해답: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더 긴 해답: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 밖에 없다.

좀 더 긴 해답: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 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이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면서 영어로 책임감인 'ACCOUNTABILITY'란 단어를 한자 한자 풀어서 우리가 책임감을 구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인터넷):

A(인정): Acknowledge the situation (상황을 인정하라)

C(용기): Courageously face the difficulties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라)

C(대화): Communicate with positive language (긍정적인 말로 대화하라)

O(내 탓): Own the problem ... and the solution (문제도 해답도 다 나에게 있다)

U(이해): Understand others' viewpoints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라)

N(협상): Negotiate solutions that work for everyone

(협상으로 윈-윈 해결책을 찾아라)

T(책임 떠맡기): Take on new responsibilities (새로운 책임을 기꺼이 떠맡아라)

A(실천): Act, don't simply react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실행하고 실천하라)

B(유연한 대처): Be willing to reassess and renegotiate

(재평가와 재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 I(긍정적인 영향): Influence others and collaborate
(주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협력하라)
- L(무기력증 탈피): Leave the 'poor me' victim mentality behind
(남 탓하는 무기력 증에서 탈피하라)
- I(주도적 태도): Initiate thoughtful and deliberate solving
(깊이 생각하여 문제 해결을 주도하라)
- T(자부심): Take pride in your results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 Y(예스 마인드): 'Yes' leads to success (예스!라는 말이 당신을 성공으로 인도한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책임회피 형이 아닌 책임 형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28-31절 말씀 중심으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3 가지를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것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일” 때문입니다(9:38).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내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과거에 자주 범죄하고 벌 받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중은 “이 모든 일” 때문에 지금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한 후 이스라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쳤던 것입니다(9:38). 그 명단이 느헤미야 10장 1-27절에 나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과 하나님께 받은 벌을 회고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싸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계명)을 준행하는 것이였습니다(10:28). 지금 이스라엘 회중은 수문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열조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 계명을 지키(순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결심을 하였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하였습니다(29절). 이것이 진정으로 부흥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 진정한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였습니까? 그것은 이방 사

량과 절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라 6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많이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불신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신자들과 교제가 많이 할 때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들이 즐기는 세상 것들을 함께 즐길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에 가시”와 우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 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를 옆구리에 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것을 끊치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괴롭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절교를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 것을 끊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노인들을 태우고 카지노를 가던 관광 여행 차가 소방차가 부딪혀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약 50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 때 뉴스에서는 노인들의 도박 중도성이 점점 심각해짐을 지적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술, 또한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과 성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중독되고 있습니까?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나온 글 중에 “[도박 중독] 처음엔 한두 푼 ... 결국엔 무일푼”란 글에서 중독되는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인터넷):

(1) 첫 번째 원인은 사회 환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은 사회 환경도 도박중독증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노출되면 헤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병처럼 돌고 있는 “한탕주의”도 도박이나 복권 중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원인은 성격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이 쉽게 중독됩니다. 끝없이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탐닉형’ 성격의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 세 번째 원인은 우울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한국 마약 퇴치본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 네 번째 원인은 현실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도피적인 사람들이 중독의 위험이 큰 이유는 그들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친구가 별로 없고 사회활동도

미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또 한 가지는 의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도박중독은 의학용어로 ‘병적 도박’ 혹은 ‘도박광’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고칠 수 있는 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충동조절장애. 즉 도박에 대한 욕구가 강해 자기 스스로 행동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과 비슷한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지만 뇌 기능장애의 일종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 상태에 빠지면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1) 첫 번째는 바로 내성이라고 합니다. 도박하는 재미에 한번 빠지면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같은 흥분을 얻기 위해서는 도박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하고 거는 돈의 액수도 점점 커져야 합니다. 결국 웬만한 액수에는 눈 하나 깜짝 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또 하나 무서운 증상은 금단 증상으로서 대부분의 도박꾼들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정과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자제하려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금단 증상으로 번번히 실패하기 마련. 도박을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도박을 하는 순간부터는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고 다시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중독 현상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것을 끊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어떻게 헤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 놓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발을 들여 놓아 맛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고린도후서6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기는 어렵다 = 일단 도박에 중독되면 자기 의지로 끊기는 쉽지 않다. 다른 중독증과 마찬가지로 도박을 끊으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등의 금단 증상을 보이기 때문. 술기운이 떨어진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술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도박증세를 보일 땐 가능한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중독자는 도박을 절대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등 주변 사람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인터넷). 우리가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오직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버리고 마음, 곧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지식과 총명”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계명)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준행하므로 세상 것을 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의원이신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자녀의 결혼을 책임집

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요즘 자녀 결혼 시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가족 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가족학 박사인 배선희 박사는 “결혼 안 하든 늦든 다그칠 일 아니죠”란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딸이 서른이 다 되어 가는데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걱정이 되어 결혼 말을 꺼내기만 하면 심하게 화를 내고 급기야는 싸움이 되어 말하기도 겁이 나요. 그냥 내버려두자니 때를 놓쳐 시집도 못가고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고... 딸 결혼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적령기를 지나고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대부분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런 걱정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녀 결혼시키는 부모님의 책임이 막중합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으로서 아들, 딸을 결혼 시킨다는 것은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결혼시키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결심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결심은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찌기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7장3-4절 말씀대로 돌아가겠다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박운선). 성경 신명기 7장 3-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간의 결혼은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성경 에스라 9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이방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 이 죄악에 지도자들이 더욱 앞장을 섰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결혼에 대한 결심을 지금 말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신자하고 결혼 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계명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신7:3-4). 얼마나 우리 주위에 불신자와 결혼하여 전에 나아가던 교회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총각 때 또는 처녀 때는 교회에 잘 나아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과연 신자들끼리 결혼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자매가 저에게 통계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처녀 자매들이

형제들 보다 많은 때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이 다 가능한가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 결혼은 믿음으로 시키는 것이지 통계학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결혼시키기’의 모델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부될 사람을 택할 때에,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려 하지 않고, 멀리 자기의 고향인 메소보디아로, 그의 종 에리에셀을 보여 택하여 오게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결혼 문제에 있어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되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인 창세기 24장7절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 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지니라’.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있어서, 결혼 문제를 이처럼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 문제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할 것이며, 불신자와의 결혼은 단연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녀 간 신자로서 금전, 명예, 지위, 용모 등 허영에 끌려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처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결혼을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케 이루어질 것입니까?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가정은 미구에 무너질 위험을 염려해야 합니다(인터넛).

마지막 셋째로, 우리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칠 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밭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말씀의 부흥 가운데 결심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한 후 하나님의 율법을 좇겠다고 헌신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들은 모세의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31절).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인 백성들이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안 사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주일에 마켓 가서 물건 사지 않겠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제칠 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밭을 탕감하겠다는 결심하였습니다. 즉 칠 년째 되는 해 1년 동안은 경작지 않고 그대로 땅을 두겠다는 말입니다(그러므로 땅이 비옥해 진다는 것임). 그 뿐 아니라 그 해에 채무자들의 밭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다시 한 번 경제적 기반을 새로 닦아 나아갈 소망과 기회를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에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매매 자체를 정죄함이 아니고 육신의 안식을 방해할 정도로, 또는 신령한 예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취해지는 상업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육신이 쉬다는 것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에 쉬다는 것은 세상 일로 인한 고역을 하지 않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림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는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 나아가야 합니까? 저는 자라나면서 주일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언젠가는 주일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교 가서 바뀌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주일 돈을 사용하는 것, 즉 매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된 후 주일 매매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돼 있는 PCA(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헌법 48장을 보면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주일이 닳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세상일을 정리하여 합당한 때에 중지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8-3), “온 하루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날로 지켜야 하며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신앙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 종일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거룩하게 쉼을 얻어야 하며, 다른 날에는 합당하게 여기는 오락일지라도 삼가며, 또한 할 수 있는 한 세속적인 생각이나 대화를 피해야 한다”(48-4). 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주일을 닳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습관화 되어있습니까? 오히려 주일날 몰아서 주중에 못했던 것을 다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날 오락을 삼가야 하는데 오히려 주일 날 오락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12대 대통령 재커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거, 1849년 3월4일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라 취임을 거부하여 에치슨 상원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습니다. 주일성수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인터넷).

법정 총기난사 살인범인 브리이언 니콜스(33)에게 인질로 잡혔던 26세 미망인 애슐리 스미스는 니콜스에게 릭 워렌 목사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Day 33’에 나와 있는 진실한 종의 행동지침을 읽어주면서 애슐리 스미스는 니콜스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나를 인질로 잡게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살인행위로 인해 가게 될 교도소에서의 전도활동이 당신의 삶의 목적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들은 후, 니콜스는 이성을 잃은 살인마에서 중심을 잡은 사람으로 돌아왔으며, 급기야 애슐리를 풀어주고 순순히 투항했다고 합니다(신문).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버리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자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세상과 절교하지 못하고 짝지어 죄를 거듭 범하는 우리를 위하여 가정의 자녀 결혼 등 자녀 양육에 책임을 못 지는 우리를 위하여 성수주일을 하지 못하고 주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기를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성도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0장 32-39절 말씀 묵상]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여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났다 앉았다하며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사방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눈에 거슬렸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왔나 수를 세어 보는구나 하며 참았습니다. 예배 후에 여 집사님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0집사 0집사가 그저께 켓돈 줄 날인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오늘 왔나 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켓돈 받으러 온 것이요, 예배드리러 온 것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경해 서지요 뭐”(인터넷). 내가 받아야 할 “켓돈”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쳐야 할 헌금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학개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판벽한 집”이었습니다(학1:4).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방치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2-39절 말씀 중심으로 수문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39절)고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는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받치고자 했던 것은 성전 세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은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계십니까? 오래 전에 어느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을 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러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은 권면하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저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서도 나라에 세금을 양심 있게 받치는 것을 권면하는 신문 광고를 여러 번 본 기억이 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가이사(로마)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쳐야 할 예물(헌금)들은 받친다고 하면서 나라에 바칠 것은 바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2절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20살과 그 위로 하나님의 전 사역을 위하여 성전 세금을 반 세겔씩을 내도록 되어있었습니다(출

30:11-16). 이 세금은 이스라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되 값 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로서의 행동을 취할 것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원래 이 세금은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그리고 성전 기둥 갈고리를 만드는데 쓰여졌습니다(38:25-28). 그러나 그 이후로는 사역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느헤미야 10장 32절을 보면 반세겔이 아니라 “세겔의 삼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외국의 압제를 받아 너무 가난해진 결과(9:37)로 반세겔이 3분의 1세겔로 적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박윤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다시 반세겔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마17:24-27). 이 삼분 일 세겔을 해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을 때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돈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역에 필요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3절을 보십시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기서 “진설병”은 성소 안에서 떡 열두 개를 안식일마다 번갈아 진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외에 “소제”(곡식으로 성립되는 제물이니 노력을 제물로 드린다는 비유), “번제”(그 드리는 자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 “안식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제물로 드릴 것들을 가리킴) 등등이 있었습니다.

성전 세금을 요즘 말로 한다면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세겔의 삼분 일”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것처럼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헌금을 하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받쳐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헌신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족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받치고자 했던 것은 나무 헌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4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것은 성경 레위기 6장 8-13절(민28:1-8)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번제”를 위한 것으로 “단위에 붙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레6:12)해야 하기에 나무가 항상 많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 것인 만큼 그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단 위에 벌여 놓고 태워야 하기 때문에 단 위에 불이 항상 피워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간에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상번제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상번제” 재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번제를 드리

는 단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받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 헌금”을 지금 우리 시대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를 ‘나무 헌금’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위하여 단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무 헌금을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희미한 등불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발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희미한 등불처럼 빛을 발하기는커녕 어둠에 덮혀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성령의 불을 훔칠 타오르게 하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차 가솔린 가격이 얼마나 비싼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기에 우리는 돈을 많이 내서라도 가솔린을 차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불길을 훔칠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인 말씀과 기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는데 가격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로서 주위에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받치고자 했던 것은 첫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5-37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만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받쳤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번째 열매는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19절을 보십시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참고: 레 27:26).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첫 아기와 짐승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희생으로 구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친 첫 열매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토지에서 처음 익은 제일 좋은 열매의 첫 것이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 중에 제일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므로 하나님의 전을 섬긴 것입니다. 그 곡식들은 공간에 쌓게 하므로 성전에서 섬기는 종들로 하여금 사용케 하였습니다(느12:44).

우리는 우리의 제일 좋은 첫 것을 주님께 받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제일

좋은 첫 시간을 주님께 받쳐야 합니다(예: 새벽기도, 아침 말씀 묵상 등등). 또한 우리는 물질의 제일 첫 것, 즉 하나님께 받칠 예물(헌금)을 먼저 분리해 놓아야 합니다. 건강의 제일 좋은 첫 것을 주님께 받치자(예를 들어 주일 주님께 나올 때 제일 좋은 건강을 유지해서 나오는 것).

마지막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받치고자 했던 것은 십일조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7절 하 반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공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십일조란 무엇입니까? “십일조”란 단어 자체의 의미는 “십분의 일”이란 말입니다. 십일조란 자신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다. 한 3가지 종류의 십일조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1) 첫째로,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을 돕고자 매년 자기들의 생산물의 십분의 일을 가지고 주님께 받쳤습니다(레27:30-34). 유대인들에게 십일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민18:25-32).

(2) 둘째로, 신명기 26장1-11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십분의 일 외에 나머지 90% 에서도 십분의 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매년 잔치에 받쳤습니다.

(3) 마지막 셋째로, 이 두 가지 십일조 외에 또 하나의 십일조는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신26:12-15, 14:28-29).

십일조 하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이 말씀대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요약할 한 것이 있어 나눕니다(인터넷):

(1)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은 단지 이것을 위탁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둘째, 10분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간은 나눔의 최소화를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질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훈련의 기본단계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인간이

물질의 종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셋째,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일조의 운용을 통하여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나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일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위적으로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일조에 관하여 이러한 도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 받치는 십일조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1) 첫째로, 십일조를 잘못된 동기(예를 들어 마지못해서 혹은 욕심으로 - 만일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받치면 하나님께서는 꼭 나를 풍요롭게 하셔야 되!)로 드리는 것, (2) 둘째로, 십일조를 받친 후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3) 마지막 셋째로, 십일조만 드리고 주님께 사랑의 예물들을 드리지 않는 것(인터넷).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We make a living by what we get, but we make a life by what we give). 수문 광장에서의 진정한 말씀의 부흥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받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찬송가 185장이 생각납니다. 그 찬송 “내 너를 위하여” 해설은 이렇습니다. 작시자 하버갈은 독일 유학 중에 뒤셀도르프 시의 어느 화랑에서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버갈은 한동안 그림을 응시하다가 이 찬송시를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 편 하버갈은 빈민굴 양로원의 가난한 여인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쓴 이 글을 그들에게 읽어주자 그것을 들은 여인들은 뜻밖에도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감사를 했다고 전해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희생적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찬송은 바로 이런 심경을 절실한 어투로 표현한 노래입니다(인터넷).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헌신의 눈물을 주님께 받치길 기원하면서)

“자원하는 자들”

[느헤미야 11장 1-2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자원봉사자”란 말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서구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자발적으로 병역을 지원하는 지원병을 가리켜 '자원봉사자'로 일컫게 되면서부터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서서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면서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범죄, 지역사회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자원봉사자들”이란 말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기꺼이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에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인터넷):

(1) 첫 번째 특성은 “자발성”입니다: “어찌 내가 하지 않으랴!”

자발성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주체성에 의해 활동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시민 각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의 불행이나 공동체의 위기 및 사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즉 "누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에서 "어찌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결단력입니다. 좋은 일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자발적으로 먼저 행동하는가' 입니다.

(2) 두 번째 특성은 “공공성”입니다: 내 집 앞만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발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성 또는 공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바둑이나 낚시 등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자기 집이나 친한 친구의 집 앞만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골목을 모두 청소하는 것이 공공성을 지닌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무보수성”입니다: 대가는 무슨 대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교통비나 식사비와 같은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보면 “자원하는 자”란 문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이 다 재건 된 후 이젠 거기서 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도 다 회복되었기에 중심도시인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인구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곳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원수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데서 살면 더욱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 도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자원하는 자들**”이란 제목 아래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자원하였는지 그 두 그룹의 자원자들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자원한 첫 번째 그룹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1절 상 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 수문 광장에서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헌신의 표현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집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패커). 이들의 결심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에 경험한 일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돕고 있는 한 부부는 상계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들어올 즈음 교회 근처인 서교동(홍대 근처)로 이사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좀 더 헌신하여 적극적으로 하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가까우니깐 새벽기도회도 나아가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의 마음은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아 온 한인들의 공동체 한 복판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교회가 있어왔습니다. 이것은 제 1기의 한인사회에서 더욱 뚜렷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 건너 온 백 인 이민 집단들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민 집단들은 대개 성공회를 비롯하여 개신교회들을 세워 살았으며 아일랜드나 이태리 사람들은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으며, 러시아와希臘인 그리고 동부유럽인들은 러시아 정 교회(또는 동방교회)를 그들의 삶의 중심기관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에서 건너 온 이민자들 가운데에서는 한인들만이 유일하게 교회 중심적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인의 미주이민은 미국인 목사의 알선으로 시작된 데다 이민자 모집도 교회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처음부터 많았었습니다. 1903년과 1905년 사이에 하와이에 들어 온 7천 2백명 가운데 교인수가 40 퍼센트나 됩니다. 교회가 한인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 민족의 강한 종교적 심성과 함께 조국이 일본 의 침략으로 독립을 상실하게 된 데 자극되어 무엇으로든지 독립에 이바지 하겠다는 결의와 1세와 2세들에게 성경공부를 통하여 삶과 역사에 눈을 뜨게 하고 한글과 사회생활을 갈쳐서 교육수준을 높여주어야겠다는 요청 때문입니다. 망국인으로서의 이국생활은 자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애정을 더욱 짙게 하여 주었습니다. 중국계 집단은 전통적으로 강한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미국에 와 살면서도 가문을 찾고, 혈통을 찾는 종친회를

중심삼아 활동하였고, 절을 많이 세웠으며, 일본인 사회는 어느 현에서 왔는가를 따지며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신사를 세워 종교생활을 하였는데 한인들은 유독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펼치며 공동체의식을 키워가게 된 데에는 문화생활을 누리며 교회중심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것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인터넷).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파커). 이것이 현실로 가능합니까? 과연 지리학적으로 교회에 가까운 거리로 자발적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교회 가까이 이사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며 섬긴다는 말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대한 중에 하나는 구역(셀) 모임을 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성도들끼리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강한(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강한(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의 특성을 세 가지 꼽자면, 첫째는 전문성, 둘째는 다양성, 셋째는 통일성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1) 전문성: 그 첫 번째로, 우리 몸이 얼마나 전문화된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눈은 1억 개가 넘는 원추세포와 7 백 만 개의 간상세포로 구성되어 아주 작은 빛과 엷은 색깔도 구별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카소의 추상화나 밀레의 만종 같은 그림을 감상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바깥의 이 안테나로 몇 Km떨어진 곳의 귀뚜라미 소리도 잡아내며 전화를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알아낼 수 있도록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1 mm 밖에 안되는 얇은 고막을 통해 한꺼번에 수많은 소리를 감지해 내고 우리 귀속에 있는 세 개의 작은 뼈들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1초에 300번이나 진동을 해서 음을 구별해 냅니다.

(2) 다양성: 우리 몸은 기능과 형태에 있어 실로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 예로부터 인체를 일컬어 오장육부사지백체라고 말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확일 된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다양함 속에서 멋진 조화를 이루어 내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만물을 보십시오. 수천종의 곤충들, 그 중에 풍뎡이만도 30만종이나 되며,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헤엄치는 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고, 별 쓸모없이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하면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경우, 나약한 몇 개의 신경세포가 마비됨으로 눈이 멀게 되고 수족이 부패될 수 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발바닥의 신경세포가 마비될

때, 발의 감각이 무뎌져, 온돌방이 뜨거운 줄 모르고 잠자다가 회상을 입어 균에 감염되어 발이 썩어 들어가 절단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몸처럼 다양하지만, 가치 없는 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3) 통일성: 셋째는 통일성의 원리로, 우리 몸의 온갖 세포들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은 똑같은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어 어느 장기가 누구의 것인지 이 유전인자 암호를 확인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DNA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포의 핵에는 이런 염색체가 있고, 이것은 이러한 DNA로 구성되어 있듯이, 교회는 각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집합체이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한 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이 3가지 특성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강(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첫째로, 우리 교회는 전문성을 살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각자가 주어진 은사 또는 달란트대로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2) 둘째로, 우리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예: 3 사역들). (3) 셋째로, 우리 교회는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됨을 잘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히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마음껏 또한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자원한 그룹은 지도자들 외에 남은 백성의 십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 1절 하 반절을 보십시오: “...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 예루살렘 성과 문들이 재건된 후 거기서 살기로 자원한 지도자들 외에 남은 백성의 십분의 일은 제비뽑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느헤미야 10장 37-38절에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물산의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분의 일로 하여금 제비뽑아 다른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4절을 보면 성경은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이사하기를 꺼려했었습니다. 누가 불편하고 상황이 안 좋은 집이나 동네에서 살고자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한 10% 분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저는 한 2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1) 하나는, 그저 단순히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아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인상적인 사역을 수행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역인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의 십분의 일인 모든 남, 녀, 어린아이들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그 도시에서 살기로 결심 및 순종하므로 하나님과 나라와 미래 세대를 섬겼습니다.

(2) 또 한 가지는 공동체 가운데서 지도자들과 10% 성도님들이 전 교인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지도력’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교인 20%가 80%를 이끈다 ...’.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첫째는,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입니다.** 80/20법칙, 즉 파레토(Pareto)의 원리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파레토는 때때로 양적으로 작은 항목들의 가치가 다른 큰 항목들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여 간단한 도식을 만들어 냈는데, 전체 중 20퍼센트만의 투입으로 80퍼센트의 성과가 산출되는 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가지고 있다, 20%의 핵심인력이 80%의 일을 한다,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 20%의 핵심 제품이 80%의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등등의 사실입니다(인터넷).

(b) **둘째 법칙은 2.6.2 법칙입니다.** 어느 생태학자가 개미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계층”이 20%정도, “중간”이 60%정도,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는 계층”이 20%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계층 20%도 또 그 중 에서 “아주 열심히”가 20%, “중간 열심히”가 60%, “덜 열심히”가 20%가 되더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현상을 2.6.2 법칙이라고 이름 붙여 인간 세상에도 이 법칙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2가지 법칙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10% 백성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0인 소수의 무리가 나머지 90% 무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십분의 일 소수의 무리”냐는 것입니다. 한 3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분의 일 소수의 무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들 또는 자발적인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분의 일은 물론 “제비뽑아”(11:1) 이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박윤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또는 자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머지 90%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이끌 수 있는 지도자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둘째로, 헌신된 사람들:

요즘처럼 “헌신된 사람들” 찾기가 교회에서조차 힘듭니다. 만일 헌신을 기피하는 자들이 교회의 10%인 지도자들이 된다면 나머지 90% 교인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분의 일인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소수의 무리들은 쉽지 않는 헌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순종하든 자발적이든 이주한다는 그 자체는 쉽지 않는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위험지대로 이사하는 것인데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방인들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쁨과 승리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값비싼 헌신의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3) 마지막 셋째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

만일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분의 일인 소수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면서 사명감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무턱대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시)인 예루살렘에 지도자들과 함께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며 그 도시를 하나님께 받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는 그들은 평안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다른 성읍들에서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사명감이 투철한 이 십분의 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Risk-takers’(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 사명을 귀한 줄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일도 맡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인터넷).

어제 지도자 성경공부 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목자로서 왕의 기능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시편 45, 72)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전멸하는 것이었습니다(대상28:3; 시18:34; 78:72).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목자로서의 왕이었던 다윗 이후에는 어떤 왕도 이러한 이상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겔34:12-15, 23-24) 다윗의 왕조에 신적인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한 새로운 목자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

로 소개할 때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왕이 백성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예는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양 된 자기 백성(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죽으시겠다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힘이 없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에 따라 자발적으로 죽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51:12),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길 기원하면서)

헌당식의 예배자들

[느헤미야 12장 27-30, 43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헌당식과 입당식의 유래를 아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당(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들에서 산에서 자유롭게 모였습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Ekklesia)’ 곧 ‘불러낸 무리’인 것입니다. 건물이 결코 성전이나 성당이 아니라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2세기 이후부터 교회당 건물은 짓기 시작하여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 교회당이 고급스러워지더니 로마 카톨릭 전성기에 소위 성당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패는 더욱 속도가 빨라지더니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위해 속죄권(면죄부) 판매라는 중세 암흑시대의 절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 교회당마다 중세 성당을 뺀치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당 헌당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자들’(workers)과 ‘파수꾼들’(watchers)이 있었지만 이젠 성벽이 완공된 후에는 ‘예배자들’(worshippers)이 세워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헌당식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릴” 정도였습니다(느12:43).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느헤미야 8-10장에 나오는 수문광장에서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젠 이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인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헌당하는 일이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헌신한 후 예루살렘 성벽을 헌당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벽을 헌당하였지만 헌신한 사람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헌신된 ‘일하는 자들’(workers), 영적 ‘파수꾼들’(watchers)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worshippers)이 없는 가운데서 교회 건물과 크게 멋지게 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27-30, 43절 말씀 중심으로 “헌당식 예배자들”이란 제목 아래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함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3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을 때(27절) 사방에서 레위인들이 모여 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의 “몸”과 “백성”, “성문”을 모두 “정결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모여서 제일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먼저 정화의 순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레위인들이 무슨 방법으로 “정결케”하는 의식을 행했는지는 여기에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헨삼(Fensham)이란 학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금식과 성관계를 끊는 것, 속죄 제물을 드렸을 것이며 백성들은 옷을 씻는 것, 목욕 등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는 말은 분명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훤삼, 박윤선).

요즘 세상에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결케 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고 있다면 정결케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개혁 시대 때, 개혁주의자인 칼빈이 추구했던 “예배의 정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쓴 이정석 교수는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며 예배개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칼빈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예배가 타락하고 오염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원리에 따라 예배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회복에 그의 생명을 걸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와 비성경적인 그릇된 예배를 구별하면서, 로마교회의 우상숭배가 그릇된 예배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그릇된 예배의 3가지 유형을 소개하였습니다(인터넷):

(1) 첫째는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예배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예배,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정신과 민족적 전통, 또는 교파적 전통 등 인간의 생각을 가르치는 예배의 왜곡이다. 특별히, 그는 골로새서 2장의 “자의적 숭배”를 가장 전형적인 그릇된 예배로 규정하였다. 그들은 혹독한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종교적 철저성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전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종교성이다. 자기의 종교성과 영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종교적 노력과 예배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철저하고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릇된 예배인 것이다. 그것은 그 시대인 들의 종교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민족의 종교적 전통을 반영하며, 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올바른 예배가 아니며 인간중심적인 자기예배일 뿐이다.”

(2) 둘째는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칼빈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의 해석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권위를 주장하며 무리한 실천을 강요하고, 스스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식만 팔고 있는 샅군이 인도하는 예배가 바로 그릇된 예배라고 규정한다. 예배를 좌우하는 것은 예배 인도자라는 점에서, 이 지적은 중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차가운 죽은 정통의 예배가 여기에 속한다.”

(3) 셋째는 연극적 예배입니다:

분위기와 의식은 우아하고 화려하며 음악과 설교는 장엄하지만, 인도자는 연극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고 신의식과 외경심이 결여된 멋있는 예배다. 교인들은 예배를 즐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다. 정열적이고 감성적인 예배이지만, 연극을 관람하거나 음악회에 참석하거나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강의를 들은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순간

적인 엑스타시가 있지만,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 경험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흠모할 뿐이며, 그 체험은 마음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종교 심리적 조작에 의한 유사경험일 뿐이다.” 칼빈은 이러한 거짓 예배를 교회에서 정화하기 위하여 성상철거, 미신타파, 단순한 성경적 예배로의 복귀, 말씀에 대한 강조, 예배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서민적 언어사용을 통하여 경건하고 순수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에 관하여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요행사로써 “교회 창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일은 그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생일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의 탄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주일 예배를 교회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이때 예배 형식은 평소의 주일 예배 형식을 따르되, 특별히 설교는 노회안의 타 교회 목사님을 초빙할 수도 있으며, 또한 교회 창립을 축하해 주기 위해 타 교회 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해주는 순서를 마련할 수도 있다. 예배가 마친 후에는 2부 행사로, 떡을 떼며 공동 식사를 했던 초대 교회처럼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서로 친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인터넷). 저희 교회도 이젠 다음 주일(7월10일) 오후 4시면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께 크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하고자 합니다(시145). 세 언어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며 예배 후 식탁교제도 한국 음식, 미국 음식, 남미 음식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 인가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취볼 때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주일 창립 기념 감사 예배 때까지 우리 각자 자신과 가정과 학업/직장/사업과 교회를 정결케 하도록 힘쓰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기억해야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들을 거룩하신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들을 깨닫게 될 때에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도전입니다.

둘째로,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당식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헌당식을 축하했다는 말은 헌당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27절).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 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되어 합니다.

(2) 감사의 노래로 찬양을 드렸습니다(27절).

감사의 노래로 찬양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사 예루살렘 성벽을 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헌당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찬양이 아닌 그저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3) 여러 악기로 찬양을 드렸습니다(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50편3-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 교회도 예배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주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성경 시편 150편 3-5절 말씀에 관하여 “복음과 빛”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예배는 기쁨과 축제의 요소로 가득차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거운 분위기로 드러지기 보다는 밝고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드러지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배는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위해 왕이 준비한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기독교 예배는 승전한 왕의 잔치나 왕이 대자를 정하는 잔치 자리처럼 기쁨이 가득찬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배에서 축제적인 요소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거운 분위기와 슬픈 얼굴로 드리는 예배는 승리하신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인터넷).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창조주와 구주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적인 요소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는 축제적인 요소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이 요소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러한 축제적인 요소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우리는 교회 첫 번째 목적인 “주님을 모시는 교회: 예배-증인들”의 삶 초점을 맞추어 왔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므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함을 전파하고자 힘썼습니다(고전14:25).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나 오랜만에 왔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에 드러지는 예배가 예배당을 헐당하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celebrate)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순서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2장31-42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고 또 다른 그룹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끌었던 그룹은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면서(31절)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37절)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그룹은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 문과 어문과 하나빌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쳤던 것임(39절). 그런 후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40절) 주님께 봉헌식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봉헌식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그냥 예루살렘 성전 범위에서 만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과 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한 후 다들 집으로 보내지 않고 성벽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행진한 후 하나님의 전에서 만났습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성벽과 문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그 성벽과 문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2)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이 재건되었기에 그 성벽과 문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보면 원수 중에 한명이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틈이 보이리라)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든든하게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행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믿지 않는 주위 이방인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현실을 이방인들이 목격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행진하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낸 일의 성과를 목격하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은 이 역사를 한 사람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한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4:6).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일한 성벽 부분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으며 그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면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사용되어야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주위를 행진하므로 그들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에 한 부분 쓰임 받은 것이기에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무슨 것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주님께 받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의 부분을 밟고 걷는 것은 자기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로 창세기 13장 17절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였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여호수가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내가 모세에게 말한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행진한 것은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헌당식 예배는 사역의 시작인가 아니면 끝입니까? 너무 많은 때에 교회 헌당식 예배가 사역의 시작이 아닌 끝을 표시하고 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건축을 하기 시작하여 교회 헌당식을 드리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전 것처럼 편안히 자리를 잡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밴스 해브너(Vance Havner)은 한 교회 헌당식 때 헌당식 예배에 대하여 자기의 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 건물이 이정표(milestone)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무거운 짐(millstone)이었다'(해브너). 만일 우리가 앞(장래)에 비전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중단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뜻은 진정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삶에 짐이 되며 또한 우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헌당식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여 헌당식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전 건축 및 헌당식 예배를 무거운 짐(millstone)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크신 하나님 안에서 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정표(milestone)가 되어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다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헌신된 자가 없는 교회 헌당식 예배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항거한 평양의 산정현교회, 그 교회에 부임한 주기철 목사님, 그가 부임한 다음 해인 1937년 9월 5일에 250평 새 교회당을 완공하여 입당예배를 드릴 때 그는 설교하면서 이 교회는 일본 우상을 대항하여 신사참배를 절대로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국은 교회당 안에 일본 국기를 달게 하였고 일본 귀신이 들어 있는 가미다나를 벽에 걸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 강단에 어떠한 간판도 달지 못하며 못 자국 하나도 낼 수 없다고 교회당의 절대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38년 2월 8일 산정현교회 헌당식이 거행 된지 얼마 후에 주목사는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때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일이 있어 이에 흥분한 평양신학교 학생 만 명이 평북노회장의 기념식수를 도끼로 찍어 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관련시켜 주기철 목사를 검거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석방된 주목사는 1940년 2월 첫 주일 평양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중 나온 교인들의 환영은 열광적이었고 그는 곧장 산정현교회로 들어가 입은 옷 그대로 강대에 옆드려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고자 교인들은 운집하여 교회당은 입추의 여지없이 꼭 메워졌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교회당을 두 겹, 세 겹으로 포위하고 그 일부는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기도를 마치고 강대에 섰다. 흰 두루마기에 까만 머리 모습에 꼳꼳한 몸가짐으로 똑바로 정립한 그는 강대의 탁종을 두세번 누르고 "예배드립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의 찬송을 부르므로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1-12절(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과, 로마서 8장 31-39절(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

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을 읽으신 후 “다섯 가지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1) 첫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라면 열 백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년 천년 산다한들 그 무슨 삶이 되겠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이 목숨을 아꼈다가 주님을 욕되게 아니하도록 성신이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읍시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라도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2)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오래 오래 끄는 장기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씩, 1년, 2년, 10년이나 계속되는 고난은 도저히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한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고통도 면하고 오히려 후한상을 준다고 하였는데, 그런고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 어떻게 오랜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고로 다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3) 셋째,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80이 넘는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를 맞아 몸이 상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머니 생각하여 불효자식이 눈물 뿌리며 기도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도 네 명의 아들 어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는 이 내 마음 끝없이 비감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뒤에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상 이리 떼 중에 내 양들을 두고 갑니다. 말겁니다. 이 양들을 대목자장이신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산정재 이 강단을 떠나서 주님 뒤를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을 이기지마는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

다가 철석같은 마음이 변절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배교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얽힌 인정이 나를 얽어매어서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4)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 한국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났도다. 우뚝 솟은 모란봉아, 통곡하여라. 대동강아!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미천한 목숨이나마 주님 위하여 제물로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인생은 초로와 같이 짧고 의는 영원무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짐승만도 못합니다. 예수로 같이 죽고 예수로 같이 삽시다.”

(5)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 혹은 사형장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내 목숨 끊어질 때 꼭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원한 고향집이 됩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겨서 하늘나라 황금 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죄로 물든 내 영혼을 깨끗케 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부끄럼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기철 목사는 이러한 구구 절절에 불을 뿜는 설교를 힘차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자신이 감격에 넘쳐 두 손을 번쩍 쳐들고 마루바닥을 발로 툭툭 구르면서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만당의 예배자들은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며 찬송을 불렀다. 주목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신앙의 불길은 산정현교회 온 교인들의 가슴속에 퍼져 더욱 불타게 만들었습니다(인터넷).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세움을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헌신된 예배자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원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느헤미야 12장 44-47절 말씀 묵상]

성도를 품고 사랑하는 목회자, 목회자의 숨은 고충을 가슴 깊이 끌어안는 성도, 이해와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를 꿈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현실은 목회자는 보통사람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이 전체의 8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루비에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다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성의를 보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4-47절 말씀 중심으로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제목을 걸고 한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성의를 보이는 목회자들”, (2) 둘째로, “성의를 보이는 성도들”. 바라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여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해와 사랑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의를 보이는 목회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여기서 “힘썼으며”(performed)라는 말은 “주의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준수하다”(watch, guard, keep, observe)라는 의미입니다. 근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신경을 써서’(to exercise great care over)라는 말입니다. (1) 첫 번째 의미는 동사와 합성어 일 때에는 ‘조심히 혹은 부지런히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2)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이던 율법의 책임이던 시간에 매우 조심히 주의하여 감당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3) 세 번째 의미는 ‘돌보다, 보호하다’란 의미입니다. (4) 네 번째 의미는 ‘중요시하다, 주의/유념하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 된 후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관하여 무엇을 매우 신경 썼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떠한 일에 더욱더 성의를 보였습니까?

(1)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 만일 목회자가 하나님을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목회자가 성의 없이 준비하여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지키며, 주의하며, 매우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 합니다.

(2) 둘째로, 그들은 결례의 일을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 “결례의 일”이란 느헤미야 12장30절 말씀에 나와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우리는 자신의 정결과 가정의 정결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정결케 해야 하며 교회에 관하여서는 예배의 정화를 힘써야 합니다.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경이적인 성장을 한동안 거듭했던 한국 교회 1980년대부터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설교권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를 올바르게 내다보지 못한 목회자들의 안이한 자세와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면서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도출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철저한 자기갱신과 회개만이 무너지고 있는 강단을 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목회자들의 올바른 목회를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강조하고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배는 철저히 본질에 맞추어 드려져야 하며, 예배 회복을 이루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예배와 설교의 목회계획이 교회의 양적인 부흥에 바탕을 둔 목회현장에 대한 갈급함만으로 치우질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살피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목회계획을 수립하는 목회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결국 목회자의 권위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것으로, 목회자의 경건한 생활과 설교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는 목회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목회자가 존경 받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 하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일과 결례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들의 모범 중에서 한 2가지 적용할 만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원리는 팀워크(team work)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 현대 말로 해본다면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그리고 성가대/찬양팀과 안내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성전을 정결케 보존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2) 두 번째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오늘 말로 하자면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다른 성기는 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자기 자신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30, 45절) 힘써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대로 했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의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도회에 참석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순이다”(토저). 우리는 성의를 보이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며, 성의를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성의를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 가정을, 성기는 교회를 예배자의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예배자들로 세움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의를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성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였던 성의는 무엇이었습니까?

(1)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 이는 유다 사람이 성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오늘 말로 한다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성의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에 그의 성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를 기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과연 요즘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 목회자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한다면, 요즘 교인들이 목회자의 성감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원망”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원망하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원망한다면 그 공동체는 말이 살아있는 공동체지 마치 죽어가는 세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 원망을 품고 있다고 가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원망을 품고 있다가 또 다른 성도가 자기와 비슷하게 목사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두 죽어가는 세포가 뭉치게 되어 서로가 영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교회

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원망이 대상이 아닌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어쩌면 목회자들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좌절감과 낙심 등이 더 심각합니다.

목회자 충격 보고서”(피터 칼도르/로드 폴피트)란 책을 보면 목회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좌절감과 낙망 속에서 탈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 실망 속에서 탈진합니까? 탈진 평균 수치 제일 높은 것 목록 한 몇 가지 만 나눈다면 일상생활에서 피로감과 상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성취하려고 시도하다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 또는 성도에게 영적 변화나 성장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낍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들의 성의를 보이는 목회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인도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면서 그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2) 유다 사람들은 성전 사역자들을 지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공간을 쌓게 하였노니 ….” 모세의 율법의 기록된 대로 성전 사역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지지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성전에 받쳤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받친 것들을 잘 공간에 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나 헌물을 성전에 받친 이유는 성전 사역자들을 도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튼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졌을 때 그 일에는 하나님의 후원은 결핍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목회자들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 되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지는 결핍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성도님들은 그러한 종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는 일을 고린도후서 9장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며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겔44:30).

어느 교회에 사업하는 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봉사나 헌금 내는 일에 몹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독교인과 돈'이었습니다. 그 집사는 대단히 흥미롭게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3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대지는 돈을 많이 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집사는 계속 '아멘!'이었습니다. 2대지는 저축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멘!'이었습니다. 집사의 얼굴은 밝았고 설교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아멘' 소리가 계속해서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3대지에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라는 내용의 설교를 듣더니 그때부터 그 집사의 '아멘' 소리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집사는 친구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멋지지 않았어? 1대지, 2대지 아주 은혜로웠단 말이야. 그런데 3대지에 가서 그만 은혜를 쏟고 말았어. 한 마디로 말해서 3대지 때문에 설교 전체를 망쳐 버렸다고"(인터넷).

성의를 보이는 목회자로 세움 받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이 맡기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섬기길 기원하면서)

결론

교회는 재건 되어 합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재건 되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경적으로 재건 되어 합니다. 재건되기 위해선 교회는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사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사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하시사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므로 교회를 재건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시사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절교하고 정결케 하여 주님의 종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재건케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온 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성의껏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사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계십니다. 비록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어 갈 때에 사탄의 전략적인 역사 속에서 교회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님의 교회를 재건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성의껏 주님의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엡5:27).